

<http://m.cafe.daum.net/2hanlove/Opn/92?svc=cafeapp>

영화전문지 프리미어의 '진이한 그 남자가 사는 법

진이한은 욕심이 없다. 단지 자신의 꿈이 현실보다 한 발짝 앞서길 바란다. 사심 없이 연기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의 눈빛이 유독 빛나는 건 이 때문이다.

말쑥한 외모로 인한 연상작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진이한은 촬영을 위해 준비한 폭 좁은 청바지를 입고 연신 어색한 걸음을 걸었다.

<누구세요>의 신재하와 다르게 걸치레 하는 게 영 익숙치 않았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그 연유부터 물었다. 뮤지컬부터 시작한 연기 초보 시절 추리닝만 입던 게 습관이 되어서라고 했다.

그 때의 밀그림은 지금 진이한의 모습을 가능케 한 것이었다.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 뮤지컬도 처음부터 배역 따내서 몇 작품 하고 바로 주인공이 됐고,

<한성별곡>도 그렇고. 남들이 뭐라 해도 스스로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던 미술학도가 연기를 하겠다고 덤빌 수 있었던 건 자신감 덕분이었다.

군대 말년에 내린 결정이었다. 어린 시절 그렸던 그림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진이한은 다시 흰 도화지를 펼쳐 든 셈이 됐다. 연기 경험은 전무했다. 복학 후 연기 전공 수업을 들은 게 전부였다.

그럼에도 그에겐 배짱이 있었다. "<UFO>라는 언버벌 퍼포먼스가 제 첫 무대였어요.

그걸 보러 온 백재현씨가 "너 연기 해볼래?"하시더라고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주인공 아니면 안 하는데요?" 했더니 대뜸 "주인공 줄테니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팬한 허세는 아니었다. 이전에 찾아온 달콤한 제의를 스스로 차버린 후 중심을 잡아서였다.

이 곳 저 곳 문을 두드리며 오디션을 보던 때, 그는 공중파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신인 등용문이었던 터라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스타가 될 수 있었다.

겉멋 들어 시작은 했지만 예의 가벼움은 오히려 그를 진지하게 만들었다.

"연예인이 아닌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확실한 방향이었다. 그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무대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국어책 읽는다며 선배에게 타박받고, 울기도 울었다. 그 경험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차피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드라마 <한성별곡>은 진이한에게 또 다른 과제를 안겨줬다.

"조명이 어디서 오고, 날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처음엔 진짜 혼났어요.

절 안 잡고 있는 줄 알고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너 리액션 안하고 뭐하고 있냐"는 소리도 들었죠." 카메라 앞은 생각보다 혹독했다.

다섯 달의 촬영 기간 동안 그는 거의 앉아 본 적도 없었다.

군기가 잔뜩 잡힌 이 신인 연기자는 그저 감정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고맙게도 대중들은 그의 에너지를 알아봐 주었다. 이송희일 감독 또한 그랬다.

<한성별곡>의 상규에게서 뿔어져 나오는 소년의 눈빛을 기억해 둔 그는 진이한을 염두해 두고 캐릭터를 만들었다.

두 번째 드라마 <누구세요>에서 못내 아쉬웠던 것들을 토로하던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한성별곡> 팬이었던 몇몇 분들이 <누구세요>의 진이한은 보기 싫다고들 하더라고요.

이해해요. 스스로가 매력있는 역할을 소화도 못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죠."

그는 인터뷰 내내 "배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촬영 준비 중인 첫 영화에 아이처럼 설레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촬영 순간순간마다 새기고 또 새기는 그는 모래성을 쌓지 않으려 노력한다.

"죽을 때까지 해도 한 쪽 가슴이 비어있을 것 같다"는 진이한의 연기는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98?svc=cafeapp>

진이한, 쉽게 지는 별 아닌 배우를 꿈꾼다 081121

MBC 주말연속극 ‘내인생의 황금기’에서 주인공 이기 역에 출연 중인 배우 진이한(본명 김현중).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는 꿈 때문에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졸업 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는 극 중 ‘이기’는 실제 진이한과 닮아 있었다.

“쉽게 지는 별이 되긴 싫었다”

다수의 CF와 ‘루나틱’, ‘체인지’ 등의 뮤지컬에 출연하며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쌓은 배우 진이한은 대학 졸업 후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는 ‘내인생의 황금기’의 ‘이기’와 닮았다.

배우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진이한은 대학로를 다니며 오디션을 봤고, 2001년 뮤지컬 ‘UFO’를 통해 연기자로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2년 윤정희, 서지혜, 이윤미, 이윤지 등 많은 스타들을 배출해낸 KBS 2TV ‘토요일은 즐거워-산장미팅 장미의 전쟁’에 출연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일순간에 사라지는 스타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쏟아지는 러브콜을 모두 거절하고 먼 길을 돌아 다시 시청자 앞에 섰다.

“‘장미의 전쟁’은 분명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때 만약 그 일을 계기로 일을 시작했다면 배우가 아닌 연예인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에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연기였고,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느꼈기에 좀 더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때는 만약 이렇게 스타가 된다면 금방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 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이후 그는 여러 편의 뮤지컬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쌓았고 현재 브라운관과 스크린에 연이어 캐스팅되며 종횡무진 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윤계상, 아라 등이 출연한 MBC ‘누구세요’를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얼마전에는 소유진, 이영훈 등과 영화 ‘탈주’ 촬영을 마쳤다. 그리고 현재는 MBC 주말 드라마 ‘내인생의 황금기’를 통해 시청자들과 매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간의 세월 동안 제 스스로도 많이 성숙해졌을 뿐 아니라 배우로써 필요한 감정들도 많이 배웠어요. 물론 좋은 조건들을 뒤로 하고 돌아 섰을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랬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해요.”

“드라마 연기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작년 처음 드라마 ‘한성별곡’에 출연할 때만 해도 뮤지컬 식의 연기를 한다고 감독님께 많이 혼났어요.(웃음) 저도 모르게 뮤지컬 특유의 연기가 몸에 익었었나 봐요.”

그러나 그는 ‘한성별곡’ 출연 이후 무대 위가 아닌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통해 연기를 선보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뮤지컬을 사랑하는 배우 중 한 명이다.

“느껴보지 않은 이는 절대 뮤지컬의 매력을 알 수 없죠. 배우와 관객이 서로 교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데 뮤지컬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지금은 전 뮤지컬에서 잠시 물러나 있지만, 앞으로 뮤지컬이 대중화 되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또 다른 연기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영화 '탈주'와 드라마 '내인생의 황금기'를 동시에 촬영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의 열정과 노력은 그의 연기를 더욱 빛나게 해줬다.

“실제 군에 있을 때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조교였어요. 그런데 영화 '탈주'에서는 탈영병이 되어 산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는 진지한 캐릭터를 맡았죠. 밤에는 산을 뛰어 다니고 낮에는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며 뛰어다니니 초반에는 캐릭터를 잡는 데 어려움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는데 영화 촬영이 끝나더라고요.(웃음)”

현재 주말드라마 '내인생의 황금기' 촬영에 폭 빠져 있는 진이한은 문소리, 이소현 등의 주인공들의 투병생활과 이혼 등 자칫 어두울 수 있는 극 중 상황에서 다소 코믹한 캐릭터로 등장 매력을 선사 하고 있다.

“극 중 캐릭터가 너무 코믹스러워져 이번 작품이 끝나면 시트콤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되요.(웃음) 그래도 그 동안 절 차갑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기'로 인해 절 친근하게 생각해 주시는 이들이 많아 다행이에요.”

뮤지컬, 연극,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재능을 발휘하는 배우 진이한.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것이고, 또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신문 NTN 서미연 기자 miyoun@seoulntn.co.kr / 사진=한운중 기자

기사일자 : 2008-11-21

<http://m.cafe.daum.net/2hanlove/Opn/99?svc=cafeapp>

진이한, '탈출'을 꿈꾸다(인터뷰)

무몽-소선|08.11.22|119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겨울 기자]

진이한 ©송희진

기자@

진이한은 최근 공교롭게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탈출'을 꿈꾸는 인물을 연기한다.

그는 MBC 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이하 '황금기')에서 착실한 의대생에서 뮤지컬 배우로 '탈출'을 시도하는 모범생 역 이기로, 영화 '탈주'에서는 군대가 싫어 '탈출'을 감행한 박민재 상병으로 출연한다.

'탈출'이라는 같은 코드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중을 만나는 진이한. 그를 서울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만나 '탈출'이란 키워드로 인터뷰했다.

진이한, 신인의 딜레마에서 탈출하다.

진이한이 얼굴을 처음 알린 작품은 사실 예능이다. 2003년 KBS 2TV '산장미팅-장미의 전쟁'에 출연했던 진이한은 예능 첫 출연임에도 끼를 보여줬다. "방송에 출연하기 하루 전에야 어떤 방송인지 알았어요. 저는 제가 예능에서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첫 방송이 잘 됐나 봐요. 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겸손한 양 말하는 그는 사실 귀여운 외모에 애교까지 갖추고 있어 당시 여성 출연자들에게 인기 1위였다. 결국 그는 코요태 신지와 커플이 맺어지고 하루아침에 얼굴이 알려졌다. "당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라 그랬는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불편하기도 했어요." 당시 소속사를 구하던 중이던 그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소속사도 많았다. 대개 신인이라면 혹할 법도 한데 진이한은 훗날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스타가 될 것인가. 배우가 될 것인가. 결국 쌓인 것도 별로 없는데 선불리 나서 반짝 스타가 되느니 배우로서 입지를 굳히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예능에서 발을 떼고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는 백번 넘게 자신이 직접 오디션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하면서 '떳떳한' 성취감을 얻었다며 웃었다.

진이한©송희진

기자@

#기, 의대생에서 뮤지컬 배우로 탈출하다.

'내 인생의 황금기'에서 진이한은 막내아들이지만 점잖으면서도 누나들의 고민에 조언할 줄 아는 어른스런 캐릭터 '기'로 등장한다. 기는 외아들이라는 책임감으로 의대에 진학했지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부모님 몰래 학원에 다닌다. 기가 꿈꾸는 탈출은 그간 삶과는 다르지만 소신 있는 탈출이다.

"기는 착실하게 살아왔지만 뮤지컬 배우는 하고 싶고 결국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몰래 학원을 다니는 거죠." 그의 경우는 어땠을까. "저는 집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원래 형이 이 쪽 계통을 하려고 했는데 형은 서울대 법대를 가는 바람에 제가 하게 됐죠." 형이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한 '엄친아'라는 소리에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출연을 권하자 형이 결혼했다며 아쉬워한다.

진이한은 유치원 때부터 형과 춤을 연습했던 끼 다분한 소년이었다. 중학교 때는 비보이가 하는 브레이크 댄스로 직접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도 했을 정도. "저는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 같아요. 요즘은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 때만 해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약이 많았는데." 그가 지금 태어났더라면 동방신기나 빅뱅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박 상병, 핍박받는 군대에서 탈출하다.

영화 '탈주'에서 진이한이 맡은 박 상병은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자유와 생존을 찾아 탈출한다. 여기서 탈출은 살기 위해 탈영을 시도하는 것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절박함이 묻어있다. 그래서 인지 촬영이 여간 고된 게 아니었다는 진이한.

"촬영 때 발을 잘못 디뎠어요. 돌이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전 발이 90도 각도로 휘어지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는데 골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이한은 이 촬영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 중이다. 제대로 앉아있기가 힘들어졌다는 진이한은 '탈주'의 촬영은 그야말로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였다고. "뛰고 엎어지고 구르고 산을 헤매다 보면 저녁이 오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정말 힘든 촬영이었어요. 워낙 우울한 촬영이다 보니 그 기분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진이한은 '황금기'의 촬영 초기 때 '탈주'를 병행하며 촬영하다보니 모니터하다보면 박 상병의 모습이 묻어나 고생했다고 고백했다. 현재 '탈주'는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이한은 "최근 '황금기'에서 태영(이태임 분)과 키스신을 치렀다. 우리 커플이 극 중에서 제일 코믹하다"며 관심을 부탁했다.

[번외 인터뷰] 지인이 보는 스타 '내 인생의 황금기'에 함께 출연하는 이소연이 본 진이한은..

"오빠는 성격이 너무 좋아요. 촬영 전부터 뮤지컬 '뫼루스'로 유명한 배우인 건 알고 있었지만 오빠인지는 몰랐거든요. 무대에서 이한 오빠도 멋지지만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아직 밥은 안 사줬다는."

"드라마에서는 코믹한 역을 주로 하지만 실제로는 진지하고 의젓한 느낌이랄까. 어른 같아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108?svc=cafeapp>

최자혜-진이한, 진한 키스신 열연 '실제 연인 착각할라?'

09.01.06

[뉴스엔 이미혜 기자]

배우 진이한과 [최자혜](#)가 실제 연인을 방불케하는 진한 키스신 열연을 펼쳤다.

MBC 주말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에 출연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진이한과 SBS '로비스트'를 통해 개성있는 연기를 선보인 최자혜가 신인 남성 힙합 듀오 언터처블의 뮤직비디오에서 만났다.

진이한과 최자혜는 언터처블의 신곡 '텔 미 와이'(Tell me why) 뮤직비디오에서 이별한 커플로 호흡을 맞췄다.

'텔 미 와이' 뮤직비디오는 연인과 이별 후 괴로워하는 남녀의 애절함을 담은 내용. 최자혜는 이별 아픔으로 남자에 대한 기억이 지워져 혼란스러워 하는 여자로 분해 눈물연기를 NG 없이 한 번에 소화하는 등 열연을 펼쳤다. 진이한은 헤어진 여자를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분해 잊혀지지 않는 여자에 대한 애처로운 눈빛연기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최자혜와 진이한은 키스신에서 스탭들이 과감한 그들의 연기에 놀랄 정도로 진한 장면을 연출해 실제 연인사이를 방불케 했을 정도. 두 사람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혼신의 연기를 선보여 벌써부터 대박 조짐을 예감하기도 했다.

게다가 직접 연기에 도전한 가수 언터처블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며 과도한 오버(?)연기로 촬영장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눈물연기만점의 연기를 선보인 최자혜와 처음으로 뮤직비디오 나들이를 한

진이한이 촬영한 언터처블의 신곡 '텔 미 와이' 뮤직비디오 스포츠 영상은 2일 온라인과 케이블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111?svc=cafeapp>

진이한 “선악 공존하는 눈빛은 내 무기..변신의 귀재 되고파”

무몽-소선|09.01.26|71

MBC ‘내인생의 황금기’에 출연중인 배우 진이한이 한복을 차려입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진이한은 최근 뉴스엔과의 [인터뷰](#)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설맞이 인사와 함께 새해 덕담을 전했다. “한복은 ‘한성별곡’ 이후 처음이다. 그땐 반년 동안 한복만 입고 살았었다”는 진이한은 모처럼만에 입은 한복이 반가우면서도 쑥스러운 듯 연신 미소를 보였다.

‘내인생의 황금기’에서 진이한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뮤지컬](#) 배우라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의대생 신분을 버리고 극단에 들어간 덕분에 극중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실제로 그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반항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는 ‘효자’다.

“부모님께선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지지해주셨어요.” 어려선 군대식으로 엄하게 교육받았지만, 크고 나선 오히려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준 진이한의 부모님. 그가 진로를 바꿔 연기를 시작할 때도 든든한 [후원](#)과 지지가 있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돈독한 모습을 보고 자란 덕에 3살 위의 형과도 여느 형제들보다도 우애있게 잘 지낸다며 씩씩 미소지었다.

설 명절 연휴에도 드라마 촬영이 한창일 테지만 식구들과 함께 떡국 한 [그릇](#) 먹을 시간은 있을 것 같다는 진이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다 군 제대 후 연기로 진로를 바꾼지 어느덧 9년째란다. “하지만 연기라는 걸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건 26,7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대학을 [연극영화과](#)로 갈 걸... 하는 후회도 들죠”라며 허심탄회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뮤지컬을 통해 차근차근 자신의 끼와 능력을 계발하고, ‘한성별곡-正’, ‘누구세요?’, ‘내인생의 황금기’ 등 출연작들을 통해 눈에 띄는 연기 변신을 선보여온 그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천상 배우다.

변신의 귀재가 되고 싶다는 진이한. 배우로서의 꿈에 대해 묻자 그는

“조니 뎀처럼 변신에 능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조니 뎀의 경우, 전작의 역할이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작품에 따라 사람이 확 달라지잖아요. 저 역시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라고 힘주어 말했다.

헤어스타일에 따라 인상이 많이 달라지는 탓인지 그가 어떤 작품에 출연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한성별곡’과 ‘누구세요?’, ‘황금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지, 제가 출연한 작품을 대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편으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제게 변신의 가능성이 있는 거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 합니다.”

말없이 무거운 역할도, 나쁜 남자 같은 강렬한 역할도 해보고 싶다는 진이한. 바람둥이 캐릭터는 사절이라 하지만, 언젠가 알아채지 못하게 최고의 바람둥이로 변신해 있을 그의 모습 역시 기대된다. 선과 악, 두 가지 눈빛이 공존하는, 진정한 배우를 꿈꾸는 진이한의 연기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새해 각오를 묻자 진이한은 “목표한 바를 3 가지 이상 꼭 이루기. 설사 하찮고 사소한 것이라도 세가지라도 이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현재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 ‘탈주’의 촬영이 어찌나 고되던지 살이 10kg 도 넘게 빠졌다면 “오늘부터 운동을 꼭 하겠다”는 그의 결연한 새해 목표는 연기 변신이라는 그의 꿈과 함께 지금쯤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http://m.cafe.daum.net/2hanlove/Opn/113?svc=cafeapp>

진이한 “추석연휴 끝나고 부산영화제 참석 설레여”(추석 한복인사)

무몽-소신|09.10.07|7

배우 진이한이 추석을 맞아 팬들에게 근황과 함께 덕담을 전했다.

진이한은 최근 소속사를 통해 추석 연휴 및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진이한 측 관계자는 뉴스엔과의 통화에서 "진이한이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낸 후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간다. 이번 부산영화제에서 '탈주'가 상영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군분투 끝에 촬영을 마친 영화 '탈주'(감독 이송희일)가 올 연말께 개봉이 예정된 만큼 진이한으로서는 의미있게 연말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진이한이 차기작을 통해 또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현재 진이한은 MBC '내인생의 황금기' 후 차기작을 [검토](#)하며 브라운관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한복협찬=윤의 한복)

<http://m.cafe.daum.net/2hanlove/Opn/119?svc=cafeapp>

진이한, 싱글파파 역으로 일일극 도전 10.01.12

2010-01-12 12:22:09

인쇄



연기자 진이한이 싱글파파 역으로 일일드라마에 처음 도전한다.

진이한은 2월 초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KBS 1TV 저녁 일일드라마 '바람불어 좋은 날' (극본 이덕재·연출 이덕건)에서 주인공 장대한 역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장대한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유능한 남자. 하지만 사랑에 대한 아픈 상처를 가진 채 혼자 6살이 된 아들을 키우는 싱글파파다. 진이한은 드라마에서 여주인공 김소은과 만나 유쾌한 사랑을 키워나간다.

진이한은 ‘바람불어 좋은 날’을 시작으로 드라마 연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뮤지컬 ‘루나틱’ ‘풋루스’ 등 주로 무대에서 활동해온 그는 지난해 주말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로 시청자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09?svc=cafeapp>

늦깎이 텔런트 끼로 비상 10.06.29|23

■ 일일드라마 ‘바람불어 좋은날’ 장대한역 진이한

일일드라마 ‘바람불어 좋은날’(KBS1) 속 장대한은 외모도, 능력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남이다. 비록 변변찮은 집안 형편에 숨겨둔 아들도 하나 있지만 얼마 전 이 모든 걸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멋진 여자 권오복을 만나 결혼에도 골인했다. 흰칠한 키에 안정적인 보이스, 여기에 환한 미소까지 매력 3요소를 모두 갖춘 장대한을 보며 시청자들은 “대체 지금까지 어디 있다 나타난 거냐”며 궁금증을 터뜨렸다.

초등시절 비보잉... 무대서 잔뼈

뮤지컬서 실력 쌓고 지각 TV 데뷔

학창시절 비보이로 이름 날리기도

드라마 종영 2개월남기고 하이라이트

“달라질 전개...욕먹을 각오도 했어요”

텔런트 진이한(김현중 · 32)은 나이 서른이 넘어서 비로소 브라운관을 찾았다. 그리고 ‘시청률 보증수표’로 불리는 KBS 일일드라마 주인공 역할을 낚아챘다. 2002년 언버벌 퍼포먼스 ‘UFO’를 통해 연예계에 문을 두드린 그는 뮤지컬 ‘빠담빠담빠담’ ‘루나틱’ ‘풋루스’ 등에 얼굴을 내비치며 차근차근 연기실력을 쌓았다. 이후 퓨전사극 ‘한성별곡’(2007)과 ‘누구세요’(2008) ‘내 인생의 황금기’(2008) 등을 거치며 자신의 영역을 굳혀 나갔다.

현재 그가 출연 중인 ‘바람불어 좋은날’은 28일 시청률 20.7%(AGB 닐슨)를

기록해 동시간대 시청률 1 위다.

“너무 좋아요. 촬영 초반엔 ‘주인공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에 십이지양궤양까지 달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6 개월 넘게 찍었는데 2 개월 후면 끝이네요. 하지만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욕 얻어먹을 것을 각오하고 있어요. 대한이가 오복이를 많이 힘들게 할 거거든요.”

브라운관 속의 진이한은 영락없는 모범생이다. 눈앞에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습 역시 침착하고 차분하다. 간간이 유머러스한 농담을 던지는 것을 제외하면 학창시절부터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반장 포스가 느껴진다.

“지금은 많이 차분해졌지만 어릴 땐 ‘신림동의 김현중’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어릴 때부터 끼가 드글드글했거든요.”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비보잉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5 학년 때는 전문가도 어려워한다는 헤드스핀과 백핸드 텀블링, 벽공(벽타고 텀블링)을 섭렵했다. 직접 안무를 짜서 신림동 일대의 학교 축제를 휩쓸었다.

“군 제대 후에 ‘끼를 썩히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뮤지컬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장에서 저는 브레이크 댄스를 봤어요. 아마 심사위원들이 황당하셨을 거예요. 그때 짱이 있었죠.”

그의 무대 데뷔작이 된 ‘UFO’는 송승환이 ‘난타’ 후속작으로 기획한 년버벌 퍼포먼스였다. 8 명의 배우들은 2 시간여 동안 무대 위를 굵은 땀방울로 적셨다. 3 개월 후, 공연은 마무리됐지만 관객들의 열광하는 소리는 그의 귓가를 여전히 맴돌았다. 그리고 평생의 업을 결정했다.

“전 늘 ‘이게 아니면 끝’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연기에 임해요. 앞으로 3~4 년간은 결혼 생각 안하고 열심히 일만 하려고요.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니 뭔가를 제대로 보여줘야죠.”

진이한, 임순례 감독 연출 뮤비 출연

무몽-소선|09.12.03|91

배우 진이한이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연출한 임순례 감독의 첫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평소 임순례 감독의 팬이었던 진이한은 임순례 감독이 원로 가수 정태춘·박은옥의 30 주년 축하기념으로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의 헌정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출연 의사를 자원했다.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남자를 그린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진이한은 시각장애인 역을 맡아 절제된 [내면연기](#)를 선보였으며 두 여자로는 배우 전예서와 서지승이 맡아 진이 [한과](#)의 호흡을 맞췄다.

뮤직비디오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정태춘·박은옥 30주년 기념 공연에서 첫 공개됐다.

한편 진이한의 첫 영화인 '탈주'는 제 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관객에게 첫 공개됐다. 현재 진이한은 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 이후 차기작을 고르며 준비 중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11?svc=cafeapp>

바람불어~' 진이한 “8kg 빠지고 아줌마 팬 얻었죠” (인터뷰①)

[2010-07-19 10:14:08]

[뉴스엔 김지윤 기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여의도 KBS 방송국에서 한 시간째 기다렸을 때 '배우' 진이한이 나타났다. 불규칙적인 촬영 일정과 빡빡한 스케줄 탓에 느지막이 잡았던 인터뷰였지만 그것마저도 늦어버린 것에 대해 그는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KBS 1TV 일일드라마 '바람 불어 좋은날'에서 진이한은 '외모면 외모, 실력이면 실력'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남 장대한'으로 분해 열연중이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별 볼일 없는 집안의 장남에 숨겨둔 여섯 살짜리 아들까지 있는 '콤플렉스 덩어리'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캔디형 인간' 권오복(김소은 분)에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서서히 변화한다.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8kg이나 빠졌다는 그는 대신 위장병을 얻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작품에 임할 때마다 자신을 혹사시키는 유별난 성격

탓이라고 '자체 진단'을 내리면서도 그는 연신 서글서글한 웃음으로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일일극을 하기 전에 미니시리즈도 했었고 주말드라마도 3개나 했는데 그때랑 참 많이 달라요. 아줌마 팬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음식점에 가면 어머님들이 반찬도 더 주시고 밥도 더 주시고 그래요. (웃음)"

뚜렷한 이목구비, 단정하고 반듯한 성격 탓에 조금은 각쟁이 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자의 선입견과는 달리 배우 진이한은 털털했고 인간적이었다. 빠듯하게 나오는 대본 탓에 일주일에 하루 주어진 휴일에도 연기 연습을 하고 있어 힘들다고 어린 아이처럼 툭툭거리다가도, 자신의 연기관과 인생관을 털어놓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진지해졌다.

"'장대한'이란 역은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고 있는 캐릭터 같아요. 부모님 앞에서는 반듯한 장남이면서 또 아내 오복이 앞에선 애교도 부리고, 내가 봐도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천진난만해지기도 하고... 작품에 들어갈 때 몰입도가 심한 편인데,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는 마음이 편해요."

극중 상대배우와 '한복커플'로 불리며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련을 겪은 그는 실제로도 서른 셋, 적은 나이가 아니다. 제 아무리 시대가 변해 결혼 적령기가 늦어졌다지만 '까딱하면 노총각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진이한은 너털웃음을 지어 보인다. 오히려 임신한 형수 이야기에 신이 난 옆집 삼촌 같다.

"결혼보다는 우선, 자리를 잡아야죠. 그래도 빠르면 서른다섯, 늦어도 마흔 전에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저만 서두른다고 되나요? (웃음) 이상형이란 것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통하는' 그런 느낌이 가장 중요하죠. 같은 말을 해도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아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진이한은 드라마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6년 만에 찾아온 첫사랑과 11살 연하의 새로운 사랑 중 어떤 여자에게 더 끌리겠냐는 질문에 "나이가 들다보니 어린 여자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지며 상대배우에 대한 호감을 표한 바 있다.

2월 1일 첫 방송을 했으니 이제 3번의 계절을 함께 한 극중 아내 김소은에 대해, 그러나 그는 "세대차이가 안 난다"고 거듭 강조하며 "유쾌한 친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족, 친구들보다 가까워진 것 같은 출연 배우들에 대한 애정도 숨김없이 드러냈다.

"배우들과도 100회 정도까지 오니까 이제는 그냥 별 말을 안 해도 편해요. 다들 너무 고생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밥 먹는 신 찍다가 웃음이 터진 적이 있는데 짜증내지 않으시고 그냥 모두 같이 웃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바람불어~' 진이한 "사실은 개그맨 지망생이었어요" (인터뷰②)

[2010-07-19 10:14:17]

[뉴스엔 김지윤 기자]

(인터뷰 ①에 이어)

사실 진이한은 올해로 데뷔 10년차 베테랑이다.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서는 나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유명 스타'였다. 그런 그가 브라운관과 스크린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막연히 뮤지컬이 너무 하고 싶어 뛰어들었는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 초반에는 국어책을 읽듯이 연기를 했어요. 무대 뒤에서 정말 많이 울었죠. 그렇게 29살이 될 때까지 뮤지컬에 올인 했어요. 그러다가 뮤지컬 4개 주연으로 오디션에 합격하게 됐죠. 그랬더니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연기에 대한 갈증과 꿈에 대한 욕심으로 그는 무대가 아닌,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 난생 처음 기획사라는 곳에 들어갔다. 그리고 운명과도 같았던곽정환 PD의 '한성별곡'을 만났다. 카메오라도 꼭 다시 곽정환 PD와 작품을 하고 싶다고 그는 무한 신뢰감을 드러냈다.

"솔직히 처음 미팅할 땐 '어떻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을까'하는 어리석은 마음에 걸모습에만 치중하고 갔어요. 그런데 문득, '나는 배우가 아니다'라는 깨달음 같은

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웠죠. 단역이었지만 열심히 했고, 그 작품 덕분에 미니도, 주말도, 영화도 찍게 됐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의 얼굴을 알리게 된 것은 2003년 KBS 2TV '산장미팅'에서 코요태 신지와 함께 커플이 되면서다. 배우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예능에 대한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는데 그는 의외의 대답으로 기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아네요. 저 사실은 개그맨 하려고 했어요. 연예인이랑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쇼는 솔직히 재신이 없지만 '남자의 자격'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 잘할까봐 안 나가는 거예요. (웃음)"

뮤지컬로의 컴백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한다. 조금 늦게, 돌아 돌아온 만큼 "무엇 하나라도 꼭 해내고 말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실언으로 들리지 않음도 이 때문일 것이다.

오는 9월, 진이한은 탈영병들을 소재로 한 영화 '탈주'로 영화 팬들을 만난다. 벌써 2년 전에 촬영을 끝낸 작품이지만 고생하며 찍었던 첫 영화였던 만큼 그는 "개봉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3일을 개봉하더라도 뿌듯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배우가 되면 좋겠어요. 사람 냄새가 나는 배우요. 인기나 그런 건 그 다음이에요. 무대든, 카메라 앞이든 사람 냄새는 어떻게든 전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제 연기 점수요? 한 30점정도 인 것 같네요. 아직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처럼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어요."

‘바람불어~’ 진이한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했다"[인터뷰]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0-08-05 09:25

“휴... 솔직히 좀 힘드네요.”

KBS 1TV 일일드라마 ‘바람불어 좋은날’에 출연 중인 배우 진이한의 드라마 속 캐릭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진이한은 ‘바람불어 좋은날’에서 장대한 역을 열연 중이다. 대한은 띠동갑 권오복(김소은 분)과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골인했지만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출생의 비밀은 물론, 아이 딸린 싱글남이라는 일종의 ‘마이너스적’ 요소도 오직 사랑 하나로 극복했건만, 지금은 아이의 실제 엄마인 첫사랑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게 우리네 일상이라 하지만, 그럴듯한 당위성조차 잃은 기막힌 상황이 어디까지 전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 시청자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극 전개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바람불어 좋은날’ 메인주인공이자 논란의 중심에 선 진이한은 최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대한’ 캐릭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연기하면서 내가 지닌 여러 방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진이한은 극중 냉혈한 같은 차가운 이미지부터 필살 애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모를 대한 캐릭터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진이한은 “장대한이라기보다는 진이한이 가진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며 극중 역할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드라마의 전개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솔직히 요즘은 대한이 캐릭터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 힘드네요. 내가 믿고 있던 대한이와 달라,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진이한은 “하지만 배우라면 책임을 지고 캐릭터를 이끌어 가야 하니, 힘들지만 한편으론 공부가 되는 것 같다”고 의연하게 극에 대한 애정을 당부했다.

뮤지컬 배우로 연기에 첫 발을 내디딘지 어느덧 8년. 하지만 브라운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7년 ‘한성별곡-정’이 처음이다. 이후 드라마 ‘누구세요’, ‘내 인생에 황금기’를 거쳐 ‘바람 불어 좋은날’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다양한 캐릭터 변화를 선보이진 못했지만 초반 연기에 들어가 있던 힘은 어느 정도 빠진 듯 보인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던 지적,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서른살에 처음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한성별곡’은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세요’ 때도 어깨에 힘 들어갔던 거 알아요. 긴 호흡의 연기만

하다가 끊어가는 연기를 하니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작품 하나하나 해가면서. 주변 환경에도 적응하고, (연기에서)힘이 빠져 가면서. 편안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황금기’, ‘바람 불어 좋은날’ 등 주말극과 일일극을 통해 선배 연기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은 진이한에게 그 자체로 연기 수업이 됐다. 대본 연습이 여의치 않을 때도, 중견 배우들의 순발력과 연륜에서 묻어나는 카리스마를 보는 것 역시 큰 공부가 됐다.

특유의 우직함과 성실함은 배우 생활에 좋은 밑거름이 됐고, 근 1년간의 공백은 그에게 연기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됐다. 한때 연기를 포기해야 할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연기 욕심이 충만해졌다.

“이번 작품이 마지막라는 각오로 생각했어요. 예전엔 씬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유하게 흘러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내 캐릭터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잡아갔죠. 배우로서 욕심이요? 배우 냄새가 나는, 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히 한 곳만 바라보며 연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인생이 아닐까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224?svc=cafeapp>

진이한 "첫 영화 `탈주` 2년만에 개봉 기뻐"

난나야_혜지 | 10.08.06 | 74 | [목록](#) | [댓글 8](#) | [가](#)

배우 진이한이 스크린 데뷔작 `탈주`의 9월 개봉 확정에 대한 설레는 감정을 드러냈다.

영화 `탈주`(감독 이송희일)는 오는 9월 2일 개봉일을 확정했다. `탈주`는 군대를 탈영한 젊은이들의 6일간의 여정을 추적, 그들이 탈영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상황을 그린 작품으로 극중 진이한은 21세 탈영병 민재로 분했다.

진이한은 최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탈주`을 찍은지 어느새 2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개봉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상영 기간과 관계 없이 관객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진이한은 "'탈주' 찍을 때 31 살이었는데, 극중 21 살 역할을 맡았다"고 너스레를 떨며 "그동안 작품에서 보여드린적 없는 거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진이한은 거침없는 탈주신을 소화하던 중 무릎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진이한은 "그때 다친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너무 고생했던 작품이고 첫 영화라 내게는 정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63?svc=cafeapp>

진이한 파워풀 댄스+영똥 입담 “한때 개그맨이 꿈”

이한지키미영경|10.08.30|107 [목록](#) [댓글 7](#) [가](#)

배우 진이한이 가수 뺨치는 [댄스](#) 실력을 과시했다.

8 월 28 일 방송된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이하 [세바퀴](#))에서 "노래를 잘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노래를 불러달라"는 출연진에 [요구](#)에 진이한은 "노래 말고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진이한은 "중 2 학년 때 쫓던 춤이다"며 화려한 [댄스실력](#)을 과시했다.

파워풀한 웨이브를 선보이는데 하면 고난위도 동작을 시도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진이한은 "중 2 학년 때 개인기를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며 도널드덕 목소리로 '생일 축하합니다'를 선보였다.

"어릴 적 꿈이 개그맨이었다"는 진이한은 차분한 외모와 달리 다소 영똥한 개인기를 선보여

함께 출연한 출연진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세바퀴에는 변우민, 소유진, 조권, 민호, 태민, 장동민, 브아걸 나르샤 미료 등이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과시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57?svc=cafeapp>

MNI 엔터테인먼트사이트에 올라온 글~~탈주시사회

이한지키미영경|10.08.27|67

9월 2일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탈주]**의 기자 시사회가
8월 23일 왕십리 CGV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 많은 기자와 평론가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MNI 식구인 진이한, 소유진씨가 출연하여

그 현장을 다녀와 MNI 가족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영화 상영이 시작 되기 전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와 간단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배우들이 차례로 인사를 마치고, 바로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시작부터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이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상영 후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진이한씨는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소유진씨가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치 있는 말씀씨로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리며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배우들과 감독님의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탈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두 남자와 그들을 돕게 된 한 여자, 세 사람의
필사적이었던

6일간의 도주를 담은 비극 탈영 영화 [탈주]는 9월 2일에 첫 상영 합니다.

영화 [탈주]!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2일 첫 상영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영화와 드라마 중형무진 진이한, "이수만 사장 만나 아이돌 될 수도
있었는데.."10.08.31|172

드라마 '바람 불어 좋은 날'(KBS1)에선 애 아빠다. 하지만 주인공인 '어린 신부'가 아깝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다. 영화 '탈주'에선 센 척하지만 속은 어린 탈영병이다. 입에 욕을 달고 살지만 밉지 않다.

그러던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선 "중 2 때 추던 춤"이라며 마이클 잭슨 댄스 모임을 선보여 다른 출연진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다.

아이들도 아닌 32세 남자 배우가 남성 팬에게 인색하기로 유명한 김구라의 기립박수를 받고,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등극했다. 양과처럼 껌질을 벗길수록 뭔가가 계속 나오는 배우 진이한은, 직접 만나보니 더욱 묘했다.

▶나만큼 춤 추는 애 없었어요

진이한을 만난 날은 '세바퀴'(MBC)에서 진이한이 김구라의 기립박수를 받는 모습이 방영되고 난 다음날이었다. 그는 대단한 춤 실력에 대해 묻자 의기양양해졌다. "그 때는 정말 나만큼 춤 추는 애가 없었어요. 아는 친구 아버님이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사장의 친구분이어서, 고 1 때는 만나보라는 제의도 받았었죠. 만일 그 때 갔다면 정말 아이돌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대 때는 괜한 자존심이 켜다는 진이한은 괴상한 고집(?) 때문에 그 길로는 가지 않았다. "혹시 '꾸러기 콘테스트'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제가 중 2 때 그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데이프로 직접 음악을 편집, 녹음해서 마이클 잭슨 댄스를 선보였죠. '세바퀴'에서보다 더 잘 봤어요. 근데 춤추는 중간에 심사위원들이 절 부르더니 '춤 어디서 배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함을 주면서 '부모님한테 꼭 연락하라고 전해'라네요. 근데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나와서는 명함을 찢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웃음)"

▶군대에선 직업군인 될 뻔?

어려서부터 예체능에 두루 능했던 진이한은 대학에선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하지만 춤과 노래의 끼를 살려 결국 뮤지컬 배우로 나서게 된다. 본격적으로 배우가 되기 전인 1998년에 입대해, 강원도 22사단에서 신병교육대 조교를 했다. 이 때 신병 훈련을 시켜 보고, 탈영병도 잡으러 다니던 경험이 이번 영화 '탈주'에서 도움이 됐다. 하지만 막상 자신은 너무 군 생활에 잘 적응해 "직업군인 할 생각 없냐"는 제안도 받았다고. "그 때도 춤과 노래로 승부했죠. 고참들 앞에서 시키는 묘기는 다 했더니, 다들 제 장기자랑을 너무 좋아해서 이등병 때도 청소조차 안 했어요. 정말 맘에 든다면서 직업군인 할 생각 없냐는 말도 들었죠." 미술 전공에서 배우가 된 점이 톱스타 권상우와도 비슷한 진이한은 "권상우씨와는 게임 '위닝일레븐'을 좋아하는 점도 비슷해요. 실제로 같이 게임도 해 봤죠"라며

"몸 좋은 것도 비슷한가? 3~4 일만 맘 먹으면 금세 몸이 좋아져요"라며 웃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66?svc=cafeapp>

<탈주> 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 <바람불어 좋은날>

이한지키미영경|10.09.01|120 목록댓글 8가

-진이한, 이름이 특이하다.

=본명은 김현중인데 내가 바꿨다.

-뮤지컬, 드라마에서 주로 활동했다.

=춤 하도 좋아해, 유치원생 때부터 끼를 발휘했다. 연기를 할 생각은 없었다. 서울예대에 다녔지만 전공은 시각디자인이었다. 경험삼아 대학로에서 오디션을 본 게 시작이고 뮤지컬 배우가 됐다.

-얼굴이 알려진 건 쇼프로그램 <자유선언 토요일: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이었다.

=버라이어티가 대세니 그때 좀 열심히 할걸, 지금 후회한다.(웃음) 근데 난 "연기가 하고 싶다"라는 신념이 있다. 무대 위에서도 스타성으로 인한 주목보다는 연기에 집중하고 싶었다. 지금도 그 신념은 마찬가지다.

-<탈주> 촬영 때 주말연속극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병행했다.

=그래서 초반에 고생했다. 드라마는 가족극이고 극중 역할은 의사인데, 함께 밥 먹는 장면에서 보면 나 혼자 군인이었다.<탈주>를 하면서 야산이란 야산은 다 다니며 촬영하다 보니 피부도 까매졌고, 대사도 군인 말투로 나왔다.(웃음)

-<탈주>는 촬영과 도주, 매 장면에서 물리적 고생이 만만치 않은 촬영이었다.

=26 시간 연속 촬영한 날도 많았다. 영화가 처음이니 원래 이런 건 줄 알았다.(웃음) 촬영 5 개월 동안 8kg 빠지고 무릎뼈 다치고 발목 양쪽을 접질렀다. 그래도 힘든 줄 몰랐다.

-78 년생이면 첫 영화 데뷔로 적지 않은 나이다. 감회가 남다르겠다.

=나로선 개봉만으로도 감격적이다. 상영 내내 매일 극장에 가서 몰래 영화를 보면 좋겠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일일연속극 <바람불어 좋은날> 촬영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배우로서의 다짐을 한마디한다면.

=쉬지 않고 계속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68?svc=cafeapp>

그들이 탈영하고 끝내 죽음을 선택한 이유

//

오마이뉴스 | 입력 2010.09.02 15:55

"넌 이담에 돈 많이 벌고 뺑 많이 키워서 군대 가지 마라", "너나 부대로 돌아가. 이제 강간당할 일도 없잖아", "군대 안 왔으면 1급 정비사 자격증 따고 벌써 카센터 차렸을 텐데..." "군 당국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아래 탈영병들을 보는 즉시 사살하도록 했습니다."

절박한 사연을 안고 탈영을 감행한 탈영병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은 영화 < 탈주 > 의 한 대목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는 그들의 처지만큼이나 절박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2년부터 5년간 탈영병은 모두 5,919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평균 1천명 이상이 탈영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3년간 군 복무 중 232 명이 자살해 한 해 평균 7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는 6월 말까지만 45 명이 자살했습니다. 반면 저잣거리에서는 요즘 군대 생활은 예전에 비해 편해졌다고 합니다. 복무기간도 짧아졌고 내무반 환경도 좋으며 구타나 얼차려도 덜하다고. 그럼에도 [자살률](#)은 2006년부터 되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더 이상 갈 곳도 없는데 왜 탈영하는 걸까?

9월 2일 개봉한 < 탈주 > 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독립영화계의 산 증인이자 < [후회하지 않아](#) > 등 퀴어(성소수자) 영화를 연출한 [이송희](#) 감독은 "우리 친구와 아들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군 생활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벌어지는 탈영에 카메라를 밀착했습니다.

한 부대에서 세 명이 탈영합니다. 홀어머니가 자궁암 말기 선고를 받아 수차례 의가사 제대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한 일병 재훈(이영훈), 부대 중대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온 상병 민재(진이한), 고참들의 구타에 이미 두 차례 탈영에 자해까지 한 전력이 있는 이등병

동민(손철민)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일하는 재훈의 여친 소영(소유진)이 동행합니다.

탈영 이유도 목적지도 달랐지만 이들을 묶는 끈은 하납니다. 지옥 같은 부대에서 탈주한다는 것. 영화는 이들이 탈영한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하는 한편 탈영 뒤 갈 곳이 없다는 사실도 냉정하게 적시합니다. 추격대를 피해 숨이 턱에 닿도록 도망치기에 급급한 이들에게 한반도의 남녘은 모든 곳이 단절되어 있을 뿐이니까요.

감독은 영화 속 세 탈영병 캐릭터를 모두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영화는 현실과 픽션을 오가며 탈영병들이 검거되거나 자살하기까지의 심리와 탈주 동선을 처음으로 사실감 있게 스크린에 올립니다. 우리 곁에 늘 존재하던 비극임에도 그간 금기됐던 대한민국 탈영병들의 이야기가 이제야 관객들을 만난 셈입니다.

군대내 폭력, 군의문사는 계속 된다

영화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은 민재입니다. 민재는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친에게 복수하기 위해 탈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고참들의 집요한 성폭력입니다.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그런 민재를 통해 군대 내 성폭력과 성폭력을 당한 병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차갑게 응시합니다.

민재의 탈영은 얼마 전 벌어진 해병대 성추행 사건과 궤를 같이 합니다. 카센터 차리는 게 꿈이었던 민재가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 속에 자신을 파괴해 가는 것이나 해병대 사건의 병사가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것은 현상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재가 탈영을 선택한 반면 해병대 병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선택했다는 차이뿐입니다.

또한 영화에서 무장탈영병에 대해서는 경고도 없이 즉결사살토록 한 군법을 통해 군 당국을 그렸다면 해병대 사건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병사에게 9월 1일까지 부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간주하겠다는 살벌한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추행을 뚝 밟은 것쯤으로 생각하라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해병대 당국이 포개집니다.

영화 속 탈영병들의 이야기가 현재진행형임을 밝혀 주는 대표적 인물은 동민입니다. 탈영 뒤 모든 것이 단절된 경계의 밖에서 부상 끝에 자살을 선택하는 그가 군대에서 겪은 참담한 폭력은 대한민국 국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안보논리에 짓이겨진 인권과 민주주의의 어두운 [알레고리](#)를 상징합니다.

지난해 말 활동을 마감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600 건의 진정사건 중 60.6%인 364 건이 자살과 관련됐다는 것은 군기사고의 절반 이상이 폭력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구타와 가혹행위 등 군 폭력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는 동민과 같은 자살이나 군의문사는 끊임없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군내 폭력의 진실은 쉽게 밝혀지지 않을뿐더러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군대내 폭력에 따른 자살이 훈련 중 사고 등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죽은 병사'에게 진상규명 책임을 씌우는 군의문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침묵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

군대내 폭력에 의한 자살은, 자살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타와 얼차려에 의한 것이든, 성폭력에 의한 것이든, 집단 따돌림에 따른 것이든 한 병사에게 집요하게 가해진 집단적인 학대의 결과이자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간 조직적 '모의'라는 점에서 타살과 다르 없는 것입니다. 동민이 탈영을 하더라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다시금 탈영을 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민재도 재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윤종빈 감독의 독립영화 < [용서받지 못한 자](#) > 에 가 닿습니다. 민재와 동민은 < 용서 > 의 지훈이자 승용이고, 지훈과 승용은 민재와 동민의 다른 얼굴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폭력과 성추행에 찌든 군대문화를 바꾸겠다던 상병 승용이 고참들에게 상납하며 타협하고, 어리바리 고문관 이등병 지훈이 승용의 변절로 혼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악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훈과 승용의 악몽과 비극은 태정에게 넘겨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태정에게 승용이나 지훈은 침묵으로 묻어둔 2년간의 악몽을 애써

끄집어냅니다. 그 악몽은 끔찍하고 역겨우며 가능하다면 묻어두고 싶은 기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태정이 승용의 자살 뒤 섹스를 계속하고 계를 게걸스럽게 먹어대며 부정할수록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은폐와 망각을 뚫고 그의 목을 죄어옵니다. 그것은 휴가 나온 승용이 지훈의 자살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강변할수록 용서받지 못할 죄의 그림자에 짓눌려 자살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용서받지 못할 죄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 해안선 > 에까지 이어집니다. 람보에 취해 오로지 간첩을 잡겠다고 강 상병은 해안선 철조망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애인과 정사를 나누던 마을 청년에게 총과 수류탄을 난사한 끝에 간첩(?)을 잡은 공로로 포상휴가를 갑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미쳐 날뛰다 탈영해 명동 한복판에서 총검술 훈련을 하며 행인의 가슴에 칼을 꽂는 그의 광기를 통해 영화는 철조망이 이 땅의 젊은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고 황폐화시켜 끝내 부서지게 만드는지를 소름끼치게 보여줍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청년들이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되어 파멸해 가는 곳, 침묵으로 묻어 둔 그곳을 영화는 우리들에게로 확장합니다.

그 2년 비접한 침묵의 시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한반도의 풍광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철조망을 친 것처럼 따리를 뜯 안보논리는 쿠데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성역의 울타리에 가둔 채 미화시키고 신성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군의문사와 병역거부자는 한국사회에서 군대와 군인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일깨우며 안보논리의 맨 낮을 들춰내는 촉매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가혹합니다.

2002년부터 2006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모두 3,761명으로 연평균 752명에 이르고 이들 중 3,565명이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지금도 90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대체복무제](#)를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과자를 양산하는 병역거부자 문제나 민재나 동민과 같은 탈영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개혁과 폭력의 청산이 필수적입니다. 그와 함께 대체복무제도 허용돼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들의 신앙과 양심과 정치적 신념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소망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함의까지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엔딩 크레딧이 오르기 전 눈이 시릴 정도로 햇빛이 찬란하게 부서지는 부둣가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하려던 재훈과 소영은 세상을 향해 절규합니다. 침묵으로 물어둔 그 2년의 시간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비겁한 침묵을 더 이상 하지 말아 달라고.

"시작도 못했는데... 난 여기가 무서워. 세상이 개 같아. 여기만 아니면 돼."

<http://m.cafe.daum.net/2hanlove/Opn/270?svc=cafeapp>

세븐, 진이한과 댄스 맞대결 중 '파당' 굴욕 10.09.03|53

가수 세븐이 배우 진이한의 브레이크댄스 앞에 무너졌다.

지난 2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 시즌 3'에 출연한 세븐과 진이한은 목욕탕에서 이색 댄스 맞대결을 벌였다. 목욕탕에서 운동화를 신고춤에 도전한 진이한은 고난도 브레이크 댄스와 텀블링, 초스피드 몸부림 댄스를 선보였다. 예상치 못한 진이한의 프로급 춤 실력에 MC들과 출연진들은 놀라 입을 짝 벌여졌다. 그러나 구경하던 '댄스킹' 세븐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에 유재석은 세븐에게 춤출 것을 제안하며 진이한과 묘한 라이벌전을 형성했다. 급하게 이뤄진 목욕탕댄스 맞대결이었던 셈. 그러나 세븐은 본격대결에 나서자마자 굴욕을 맛봤다. '원드밀'을 선보이던 중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진 것. 이에 유재석이 "세븐의 이런 모습 처음 본다. 방송 최초 세븐의 춤 실수 장면이다"라고 말하자 '굴욕'당한 세븐은 어찌할 줄 몰라했다. 곧 정신 차린 세븐은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며 제작진에게 은근히 편집을 요구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결국 물결 웨이브와 문워크를 선보인 세븐은 실패했던 '원드밀' 댄스에 재도전해 성공했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7자'댄스로 마무리해 MC들의 환호를 받았다.

한편 이날 세븐과 진이한의 이색 댄스 맞대결이 펼쳐진 '해피투게더 시즌 3'에는 세븐의 '절친' 박지선, 진이한과 함께 영화를 찍은 소유진이 출연해 만담을 꽃피웠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77?svc=cafeapp>

"무비워크" 인터뷰 10.09.03|16[탈주③] 진이한, "자신을 비우고 캐릭터가 되고자 한다"

실제 군대 경험과 <탈주>는 달랐다.

난 군대가 재미있었다. 지금 가라고 해도 또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말이다. 내가 조교라서 그랬을까?(웃음) 그래서 처음에는 '탈영'이란 소재에 공감할 못했다. 그러다 문득 조교 시절 실제 탈영병을 잡았을 때가 떠올랐다. 강원도 어느 바닷가에서 쫓겨려 앉아 있던 탈영병은 아침 해가 뜨자마자 잡혔다. 순간 그의 입장을 생각해 봤다. 난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도망 다니는 사람은 어떨까 궁금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야산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탈영병에 감정 이입할 수밖에 없었다.(웃음)

첫 영화 현장과 '센스쟁이' 이송희일 감독님이 막연히 좋았다.

감독님이 원하는 영상을 뽑기 위해 지시하는 디테일들은 정말 뛰어났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특별히 끼가 넘치고 센스가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시각이 있을 것 같아 영화를 찍기 전부터 감독님을 믿었다. 막상 영화를 찍어보니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더라. 초반에는 첫 영화라 경직된 면도 있었다. 그런데 감독님이나 (이)영훈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 덕분에 긴장이 풀려 애드리브 연기도 많이 했다. 숏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께 미리 말씀도 안 드리고 애드리브를 했는데 감독님이 막 웃으시며 "이건 못 쓰겠다" 하셨다. 그런데 영화에 다 들어가 있더라.(웃음)

아쉬운 부분은 민재가 탈영한 진짜 이유가 뉴스를 통해 폭로될 때의 감정 신이다.

그때 현장 상황이 열악했다. 모기가 얼굴에 잔뜩 붙어 있었으니 말이다. 내가 생각한 감정만큼 치닫지 못한 기분이다.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다. 어쩔 수 없는 배우의 욕심인 것 같다.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은 스물아홉 살 때.

어느 날 문득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허무해졌다. 그래서 3개월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해를 피하기 위해 창도 가리고 어머니가 방으로 넣어주는 음식만 먹었다. 그러다 30 대로 가는 길목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덤빈 작품이 <한성별곡>(KBS, 2007)이다.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내겐 중요한 작품이다.

진심 어린 연기를 하자는 것이 데뷔 이후 내 철칙이다.

나는 자신을 버리고 캐릭터를 찾아가는 스타일인데, 순간에 집중하고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내가 굳이 캐릭터를 만들지 않아도 나만의 색이 들어간 캐릭터가 완성될 것이라 믿고 있다. 이건 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부단한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85?svc=cafeapp>

“스크린·안방극장, 양쪽서 떴어요”

소유진·진이한·신성록 등 영화·드라마 오가며 열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90801032830302004>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09-08 14:03

‘영화와 드라마,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오가며 활약 중인 연기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최근에는 영화 개봉과 드라마 방영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얼굴을 비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한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경쟁 드라마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어 흥미롭다. 최근 개봉한 이송희일 감독의 ‘탈주’에 나란히 출연 중인 배우 소유진과 진이한은 안방극장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라이벌이다.

소유진은 MBC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에서 엇갈린 복수극에 휘말린 주인공 현진 역을 맡아 열연하고 있다.

진이한은 동시간대 방영 중인 KBS 일일드라마 ‘바람불어 좋은날’에서 복잡한 가정사 속에 걸으로는 완벽하지만 속으론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대한 역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시청률은 근소한 차이로 진이한 승.

뮤지컬 배우에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영화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신성록도 최근 주목받는 배우다. 뮤지컬 배우로 이름을 알린 신성록은 SBS 주말드라마 ‘이웃집 웬수’에서 이혼녀 지영(유호정)을 짝사랑하는 요리사로 출연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개봉을 앞둔 영화 ‘살인의 강’에서는 첫사랑의 죽음 이후 방황하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남자 동식 역으로 주연 배우에 도전한다.

이 밖에도 떠오르는 10대 배우 심은경이 드라마 ‘거상 김만덕’, ‘나쁜 남자’, 영화 ‘반가운 살인자’, ‘퀴즈왕’ 등으로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징검다리 넘듯 오가면서 맹활약 중이고, ‘시라노:연애조작단’의 주연 배우 엄태웅,

최다니엘, 이민정, 박신혜 등도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쉼 없는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295?svc=cafeapp>

진이한 "길게 연애하는 스타일 집안 내력" | 10.09.15 | 138

스포츠조선 원문 기사전송 2010-09-15 15:45

KBS 일일극 '바람 불어 좋은 날'과 영화 '탈주'로 팬들과 만나고 있는 배우 진이한이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연애담을 공개하며 '순정파'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의 이상형은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김소은도 영화에서 함께한 소유진도 아니다.

"요즘은 주변에 여자도 별로 없고, 누굴 만날 기회도 사라져서 외롭다"는 진이한은 "(TV 밖에선) 저 별로 인기 없어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7년을 사귀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첫사랑이었다"고 밝혔다. "한 명을 만나면 굉장히 오래 만나는 편"이라는 진이한은 "그런 내 감정을 보고 날 아는 사람들은 바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성격은 집안 내력과의 관계가 있다고.

"저희 아버님도 10년 동안 연애한 첫사랑과 결혼해서 형과 저를 낳으셨고, 형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같이 나온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저도 여자친구를 사귀면 금방 헤어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서른이 넘어간 만큼 다음 연애를 하면 결혼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다. 진이한은 "길게 연애하는 성격이니 다음엔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저도 가정을 꾸려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네요"라며 웃었다. **‘바람불어’ 제 아들 찾으려는 생모 최미란, 막장인 이유는?**

뉴스엔 원문 기사전송 2010-07-22 07:55

[뉴스엔 유경상 기자]

최미란(이성민 분)은 7년 전 아버지의 계략에 의해 잃은 친아들 장독립(강한별 분)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친아들을 향한 생모의 애정은 모성애의 발현으로 아름답게 그려질 수도 있는 법. 하지만 최미란의 행보에는 막장논란이 따른다.

7월 21일 방송된 KBS 1TV 일일드라마 ‘바람불어 좋은날’(극본 이덕재/연출 이덕건) 121회에서 최미란은 장대한(진이한 분)에게 다시금 “장독립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자신이 불임임을 밝혔다.

최미란과 장대한은 과거 첫사랑으로 아들 장독립까지 낳았지만 서로를 오해한 상태에서 이별을 맞았다. 이제야 과거의 오해가 모두 풀린 상황. 장대한은 오해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랑을 그저 이미 지나간 일로 치부해 버렸다. 하지만 최미란은 달랐다.

이날 방송에서 최미란은 “오빠는 지나간 세월을 잃었을 뿐이지만 나는 여자로서의 미래를 잃었다”며 “독립이 내 처음이자 마지막 아이다. 독립이 낳고 뭐가 잘못됐는지 불임판정 받았다”고 털어놨다.

최미란은 과거 아버지의 거짓말에 의해 자신이 아이를 사산한 줄로 알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후에 불임판정을 받았고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과거 오해로 인해 이루지 못한 첫사랑과 아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미란의 행보가 막장인 이유는 그녀의 모성애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독립은 엄마가 죽은 줄로 안 상태에서 아빠 장대한과 행복한 생활을 해왔다. 새엄마 권오복(김소은 분)은 엄마가 되기 이전부터 장독립과 친한 사이였다. 장독립은 새엄마 권오복을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른다. 아직 7살인 장독립에게 최미란이 갑작스럽게 ‘엄마’라고 나타난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장대한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장독립에게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최미란은 “내 자식을 내가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새엄마인 권오복이 결혼 후 아들 장독립과 모자지간으로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위해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둔 것과는 대조되는 일.

모성애는 자식을 위한 어미의 본능적인 사랑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최미란의 모성애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다. 행복했던 과거를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불임이라는 여자로서의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다. 장독립을 낳은 최미란에게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368?svc=cafeapp>

DC interview

개인기로 푹푹 뭉친 진이한, "제 매력에 빠져 보실래요?"

2011-06-14 17:20:41

MBC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에서 까칠하면서도 어설픈 '전태풍' 역을 맡아 호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 진이한. 지난 3월 전태수를 대신해 뒤늦게 시트콤에 합류한 진이한은 극 중 동생을 대신해 김 원장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냉철한 인물 '전태풍'으로 분해, '몽땅 내 사랑'의 주요 스토리인 '복수'와 함께 새로운 '러브 라인'을 만들어 나가면서 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는 그동안 드라마 정극을 통해 쌓아온 깔끔하고 반듯한 이미지는 살짝 접어둔 채 '몽땅 내 사랑'에서는 차가운 매력과 함께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다.

2002년 뮤지컬 'UFO'를 통해 공연계에 데뷔한 진이한은 뮤지컬 '풋루스', '루나틱', 연극 '육분의 룩' 등 여러 작품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공연계에서 먼저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후 잠시 방향을 하기도 했으나, KBS 사극 '한성별곡'에 주연으로 깜짝 발탁되며 재기해 시청자들에게 연기 잘하는 신인 배우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내 인생의 황금기', '바람불어 좋은 날' 등 여러 편의 드라마에 연이어 주연으로 캐스팅, 안정되고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또, 진이한은 지금 열연하고 있는 시트콤 '몽땅 내 사랑' 외에도 오는 7월 방영예정인 MBC 새 주말드라마 '애정만만세'에 주연으로 캐스팅돼 곧 정극으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뮤지컬에서부터 드라마, 영화, 시트콤, 예능 등 온갖 장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뽐내고 있는 배우 진이한.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솔한 그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프로필>

이름 : 진이한 (본명 김현중)

생년월일 : 1978 년 10 월 10 일

데뷔 : 2002 년 뮤지컬 'UFO'

작품

- 뮤지컬 & 연극

2002 년 : 뮤지컬 'UFO'

2004 년 : 뮤지컬 '빠담빠담빠담'

2005 년 : 뮤지컬 '루나틱' - 나제비 역

2005~2006 년 : 뮤지컬 '풋루스' - 렌 역

2005 년 : 연극 '육분의 룩' - 정시규 역

- 영화

2006 년 : 굿럭 (인터넷영화) - 데이비드 역

2010 년 : 탈주 - 박민재 역

- 드라마 & 예능

2007 년 : KBS '한성별곡' - 박상규 역

2007 년 : KBS '얼렁뚱땅 흥신소' - 김준수 역

2008 년 : MBC '누구세요?' - 신재하 역

2008~2009 년 : MBC '내 인생의 황금기' - 이기 역

2010 년 : KBS '바람불어 좋은 날' - 장대한 역

2011 년 : MBC '몽땅 내 사랑'- 전태풍 역

2011 년 : KBS '명 받았습시다'

2011 년 : MBC '애정만만세' (방송예정)

-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이하 디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디시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 진이한 갤러리(이하 진갤)에 인증 글 올리신 것 봤어요. 진갤에 자주 들어오세요?(디시이용자 '꺼병홀릭')

가끔 방문하는데요. 일주일에 2 번 정도는 방문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부모님이 자주 들어가서 보세요.

- 부모님께서 진갤을 보신다고요?

네. 어머니가 저보다 인터넷을 더 잘해요. 디시 진갤에 자주 들어가셔서 보시고 정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시거든요.

- 와~! 연예인 어머니가 디시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웃음)

디시 인터뷰한다는 이야기도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진갤 공지에 올라온 걸 보고 말씀해주셨어요.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안 좋은 글이 올라오면 속상해하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 안 좋은 글 올라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로 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면 어머니께서 보시고는 '이러한 부분은 고쳐라'라고 저한테 전달하면서 혼내세요.

- 디시는 표현이 자유롭고 직설적인 편이라 거침없는 평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머니께서 보고 상처받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진깰에는 좋은 글들만 많이 올라오는 편이죠?

네.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 진이한 씨는 본인에 대한 안 좋은 평의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디시 이용자 '꺼병홀릭')

물론 속상하죠. 그렇다고 상처받아서 소주 먹고 괴로워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전 아직 저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적해주시는 글들 보면서 나의 잘못된 점은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죠. 제가 O형인데요. A형 같은 O형이거든요. 진깰에 누가 안 좋은 글 쓰는지 어떻게 썼는지 닉네임 다 외워요.(웃음) 농담이에요.

- 혹시 다른 사람인 척 댓글을 달면서 해명하신 적도 있으세요?

아뇨. 그런 적은 없어요.(웃음)

- 그럼 눈팅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글이나 닉네임 등이 있었어요?

눈팅을 자주 하는 편이라 웬만한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몇 명 생각나긴 하는데 다른 팬들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직접 언급은 안 할게요.(웃음) 공지 올려 주시는 분이랑 항상 진깰에 글 올리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다 생각나요.

- 정말 자주 눈팅하시나 봐요. 또 팬들에 대한 배려심도 깊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진이한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 요즘은 팬들과의 소통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주는 안 해요.

- 진갤에도 눈팅만 하지 말고 인증 글도 가끔 올려주세요.

저 가끔 댓글 달면서 진갤러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 아, 그래요? 몰랐네요.(웃음) 그럼 갤러들이 진갤에서 진이한 씨를 어떻게 부르지도 잘 아시겠군요. 여러 호칭들이 있을 텐데 가장 마음에 드는 호칭은 어떤 거예요?(디시이용자 '짱아찌짱')

저는 진초딩도 좋아요.

- 첫인상만 봐서는 '진초딩'이라는 별명이 잘 매치가 안 되는데요. 진초딩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스타일리스트나 매니저 등 주변 사람들이 제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인데요. 제가 장난기가 좀 많거든요. 분위기 메이커 담당을 주로 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4차원적인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 그럼 '몽땅 내 사랑'의 전태풍 같은 행동을 실제 생활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연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같아요.
(웃음)

- '몽땅 내 사랑'에서 각종 개인기를 보여주시던데, 이런 것도 본인의 실제 개인기인가요?

네. 잘할 줄 아는 것을 보여주면 좀 더 실감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뭐 할 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인라인도 탈 줄 알고 이것저것 할 줄 안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다음 주에 인라인 타는 장면을 넣으시고 또 다른 개인기하는 것도 넣으시더라고요.

- 아직 보여주지 않은 개인기가 더 있으세요?(디시이용자 '꺼병홀릭')

요즘 새로운 개인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아직은 비밀이에요.(웃음)
처음에는 개인기를 보여주는 게 즐거웠는데, 개인기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예능인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요즘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웃음)

- 제일 자신 있는 개인기는 무엇이에요?(디시이용자 '금사')

춤 잘 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웃음)

- 극 중에서 보면 춤과 노래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던데 춤 잘추는 비법, 노래 잘하는 비법이 있으세요? (디시이용자 'smile')

잘추는 비법이라기보다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저희 형하고 노래 틀어 놓고 한 시간이건 두 시간이건 땀을 흘리면서 춤추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집에 엄청 큰 거울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CD 플레이어도 없었고

테이프 양쪽에 넣는 카세트 틀어 놓고 춤을 췄어요. 더빙도 잘했었어요. 더빙해서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곤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창조해 내고 개발해 내는 것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다들 '서태지와 아이들' 춤을 똑같이 따라 추곤 했었거든요. 저는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절대 따라 안 췄어요. 저만의 춤을 만들어 췄어요. 항상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 추는 춤은 그때 몸에 배어 있던 것들이 나오는 데로 추는 거예요.(웃음)

-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수나 댄서의 꿈이 있으셨어요?

아뇨. 가수나 댄서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단지 춤추고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비비탄 총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할 때 저는 춤추는 거를 좋아한 거죠. 친구들과하고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 요즘은 워낙 아이돌 가수들이 유명하니까 어린 친구들이 춤추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웃음)

- 혹시 가수 제의받아본 적도 있으세요?

20대 초반에 댄스 가수 제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23살부터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 시트콤 하면서 또는 TV를 통해 아이돌 가수들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해봤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가수를 했었으면 지금 배우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 가수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도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20대였으면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죠.(웃음) 지금은 연기하는 게 좋아요.

- 그동안 정극을 해오시다가 이번에 시트콤은 처음 도전하신 거잖아요. 시트콤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디시이용자 'ㄱㄱ', '내사랑금지', '무몽???)

예능이라는 분야에 대해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감이 많이 들었어요.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서먹하고 현장에 가면 어색하기도 해요. 정말 말이 목까지 차오르다가도 들어가고 한 적이 많거든요. 심적으로 혼자 많이 힘들었죠.

- 예능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영화 '탈주' 홍보차 '세바퀴'나 '해피투게더'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 '명 받았습시다' 감독님이 그 프로그램을 보신 거예요. 그때 재미있게 보셨는지 한 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또 마침 제가 육군 조교출신인데 그 프로그램에 조교 출신 연예인이 필요했었어요. 처음 만나서 얘기 나눴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명 받았습시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 '명 받았습시다'에서 진이한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일찍 종영돼서 좀 아쉬웠어요.

네. 저도 첫 예능 프로그램이고 고생도 많이 한 작품이라 애정이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 그래도 다행히 '몽땅 내 사랑'이 연장됐잖아요. 진이한 씨의 다양한 개인기들을 계속 볼 줄 수 있겠죠?

네. 참 신기한 게 '몽땅 내 사랑' 미팅하기 전날 '명 받았습시다' 촬영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제가 '시트콤 하면 되게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매니저한테 그냥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몽땅 내 사랑'이라며 미팅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몽땅 내 사랑'을 많이 못 봤었고, 아이돌 가수들이 많이 나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미팅하러 갔는데 제가 100 번째 미팅하고 있는 거래요. 그날 저까지만 딱 보고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대요. 미팅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촬영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전태풍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 배우가 없어서 제가 들어오면 어린 배우들과 선배 배우들 중간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트콤에 합류하게 됐어요.

- 캐릭터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전태풍은 지금의 모습보다 더 센 사람이었어요. 고민을 많이 한 후에 감독님께 제가 생각하는 전태풍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트콤이라서 더 자유분방하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사이판 가서 촬영할 때도 작가분들이 전태풍은 재미있는 캐릭터인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 사이판 장면에서 진이한 씨 몸매가 돋보였는데, 말근육은 얼마 동안 만드신건지?(디시이용자 대한아찌짱)

예전에 몸이 좋았었는데 '명 받았습시다'에 출연했을 당시 해병대들이랑 보트 위에서 싸우다 갈비뼈에 금이 가서 한동안 운동을 못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몽땅 내 사랑'에서 사이판 촬영을 간다고 해서 한 열흘 정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든 거예요. 사진 찍어 놓은 게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데 이걸 공개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 팬들을 위해 공개해주세요.

한 달 정도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촬영 일정이 급히 잡혀서 운동을 많이 못 했어요. 속상해요.

-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이런 얘기 하면 정말 초딩 같은데 저 초등학생 때 정말 복근이 좋았거든요. 초등학생 때 사진 보면 웃통 벌고 반바지 입고 배에 힘 '뺍'주고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거짓말 아니고 요즘 아이돌 가수들 복근처럼 식스팩이 자리잡혀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좋았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복근 사진 살짝 보여 드릴까요?

- 우와~! 멋진데요. 양복 입고 계셔서 이렇게 몸매가 좋은지 잘 몰랐어요.
(웃음)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좋은 몸매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쉬웠어요.

- 화보 사진 아니죠? 근데 정말 화보 느낌이 나요.

제 매니저가 디카로 찍어 준 사진이에요.

- 진이한 씨는 카메라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원빈이나 장동건 씨 같은 분들은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원빈이다 장동건이다 한눈에 알잖아요. 전 각도 이상하게 찍으면 잘 몰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스타일만 바꿔도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2:8 가르마 타면 중국 사람 같거든요.(웃음)

- 다양한 모습이 더 매력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웃음)

- '몽땅 내 사랑'의 전태풍 캐릭터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질문은 제가 합니다!' 유행어도 있잖아요. 재미있던데요. 처음에 주위의 반응은 어땠어요?(디시이용자 '엽사마♡')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시던데요. '자꾸 왜 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감독님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앞뒤 맥락에 안 맞게 '질문은 제가 합니다'라고 하니깐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감정을 좀 더 섞어서 '질문은 제가 하겠다'라고 했더니 약간 재미있다는 반응이 오더라고요. 또 사과를 한 손으로 부수면서 '부셔버리겠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재미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NG 장면이 더 웃기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 뒤늦게 합류하게 됐는데 연기자들과 호흡은 맞추시기 어렵진 않으셨어요?(디시이용자 '*레인보우*')

솔직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다면 거짓말이겠죠. 예능이 처음이고 또 어린 동생들이라 서먹서먹했었어요. 다행히 어린 친구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금방 다 친해졌어요.

- 친해지기 위해 따로 술자리 같은 모임을 가지기도 하셨어요?

모임을 몇 번 갖기는 했는데 아이돌 가수들이라 바쁘니까 따로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촬영하면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고마웠던 게 제가 뒤늦게 합류했지만 그래도 형이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이 따라줬어요. 동생들이 오히려 저를 더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 연기자분들도 정말 잘 챙겨 주셨어요. 다들 저랑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난 인연이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낯설었던 게 적었어요.

- 전태풍 캐릭터와 진이한 실제 모습과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어요?

'허당' 같은 면? 전태풍을 보면 완벽하고 강해 보이지만 허당 같은 면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MBC '최고의 사랑'에 '독고진' 같은 캐릭터처럼 좀 세 보이고 아무에게나 명령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심각한 것도 아닌데 무표정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잘 못 걸어요. 화났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 극 중에서 전태풍을 보면 수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진이한 씨도 실제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디시이용자 '비타민 C 씨', '꺼병홀릭')

자격증은 한 개도 없습니다.(웃음)

- 그럼 '내가 전태풍보다 이견 낫다'는 것이 있다면요?(디시이용자 '꺼병홀릭')

전 전태풍보다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리고 활발하고요. 오늘도 하루종일 전태풍 연기를 하다 왔는데 계속 짜증 내고 화내고 김갑수 선생님께 대들다가 왔어요.(웃음)

- 전태풍 대사를 보면 어려운 전문용어도 많고 한 신에 대사 분량이 꽤 많을 때도 있는데, NG 를 많이 내시지는 않으세요?(디시이용자 '꺼병홀릭')

정말 어떨 때 대사가 입에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분(NG)이 와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디시에서 '앞에다가 글을 써놓고 읽는 거야?'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절대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감독님께서 정면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면을 보면서 대사를 하는데 그게 보고 읽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 자리를 통해 절대 아니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 본인만의 대사외우기 비법이 있으세요?

예전에 대본을 볼 때는 흐름 위주로 많이 봤어요. 그 신에 대한 흐름과 중요한 부분, 그 신에서 보여줘야 할 게 뭔가 하는 앞뒤 상황을 항상 보고 그랬었는데, 일일드라마 173회를 하다 보니까 대본을 딱 보고 읽으면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지금 스케줄의 몇 배는 더 많았거든요. 기계처럼 되더라고요.

- 역시 일일드라마의 힘이 크군요. 드라마 하나 하고 나면 연기가 많이 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KBS '바람불어 좋은 날'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감독님이 정말 꼼꼼하신 분이셨거든요. 대사가 없는 장면에서는 눈빛 연기로 감정을 이끌어 낼수도 있는데 감독님은 고개를 한번 숙였다 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한 계산된 연기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훌륭한 스태프들과 많은 선배 연기자분들과 함께 하니깐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 이전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처음 연기를 시작한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어요?

2002년 뮤지컬 'UFO'로 처음 데뷔했어요. 이 작품은 '너버벌 퍼포먼스'라고 두 시간 동안 대사가 아닌 몸짓과 소리, 리듬과 비트만으로 구성된 작품이에요. 요즘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나 '점프' 등 이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작품이 전혀 없을 때 난타 송승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제작한 작품인데 망했어요. 망했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그때 뮤지컬 음악 감독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때부터 뮤지컬을 하게 되었어요.

- 뮤지컬계에서 진이한 씨는 어떤 배우였어요?

스타가 되려고 하다가 스타까지는 못됐죠.(웃음) 저는 처음 뮤지컬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애는 뭔데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전에 저하고 같은 소속사 친구였던 최자혜 씨가 그러더라고요. 처음 저를 보는데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저 사람은 뭔데 자신감이 저렇게 넘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2~3년 후에 절 보더니 '오빠 눈빛이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웃음) 그만큼 저는 그 당시에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뭘 하든간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뮤지컬 '루나틱'을 할 때도 처음에는 저보고 앙상블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싫다며 배역 달라고 그랬어요. 신인이었고 연기의 '연' 자도 몰랐을 때였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말 국어책 읽듯이 하다가 선배한테 대본으로 얼굴 맞아가면서 혹독하게 배웠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첫 무대에 섰는데 정말 제가 이제껏 했던 연기 중에 제일 잘했던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연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운이 좋았던 게 배역으로 시작하니까 계속 배역 있는 역할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잘하는 배우는 아니었고 가능성이 있었던 배우였던 것 같아요. 조금만 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배우 있잖아요.

- 뮤지컬 하시다가 방송 쪽으로 옮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4살에 뮤지컬을 시작해서 쪽 해오다 29살 때 이쪽 일을 안 하려고 결심을 하고 나왔어요.

- 왜요?

그냥 힘들어서요. 연기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개인적인 집안 사정도 있고 해서 포기했었어요.

- 그럼 연기 접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전공이 시각디자이너였는데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해보든지 아니면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니까 사진 찍는 직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마 연기를 다시 안 했다면 지금쯤 어디선가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도 뮤지컬 배역은 계속 들어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되는데 그때는 그 일이 하기 싫어서 모두

거절했었어요. 그러면서 29살을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보내다 30살이 될 무렵 쯤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제의가 들어왔던 기획사에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할 게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표님께 '그때는 정말 죄송했다. 계약하고 싶다. 계약서를 달라'고 했죠. 대표님께서 조건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상관없다고 하면서 계약서 내용 하나도 안 읽고 그냥 사인했어요. 대표님께서 왜 계약서를 안 읽어보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후로 1년 넘게 대학로에서 연기 스터디 수업을 가르쳤어요.

- 배우가 아닌 연기 선생님이로 활동하셨군요.

네. 연기 선생님이로 신인 배우들이나 어린아이들 연기 연습시키고 그랬어요. 전 사실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저랑 같이 뮤지컬하고 연기했던 친구들이나 형들 동생들은 이미 다른 좋은 작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 못하니까 속상했었죠. 그렇게 힘들게 활동하다가 '한성별곡'이라는 드라마에 저희 소속사 연기자들이 출연하게 됐는데 제가 옵션으로 단역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수많은 미팅장에 들어가면서 '나는 배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외모에 신경 쓰고 대본 보면서 이 대사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만 했던 생각이 순간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이 없었죠. 문득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가식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팅하러 KBS 앞에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예전에 내가 그래 왔던 것들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 안에서 잠시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마음을 바로 잡고 '한성별곡' 감독님을 만나서 정말 편안하게 미팅을 했어요. 두 시간 반 정도 미팅한 것 같은데 가식 없이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말하고 저의 힘들었던 것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계속 웃으시면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왼쪽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 할 수 있어?'라며 시키는 거예요. '해본 적은 없는데 해볼게요' 하면서 정말 열심히 연기했더니 눈물이 딱 흐르는 거예요. 또 감독님이 '술 취한 연기 해볼래?'라고 하셔서 '네'라고 하고 술 취한 연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술 취한 연기 색깔이 다르겠지만 저는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의외로 감독님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대본을 던져 주시면서 '앞뒤 상황 모르고 이 신만 보고 연기를 해봐' 하시는 거예요. 또 연기했죠.

감독님께서 '아!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독님께서 이것저것 시켜보시더니 저에게 '상규'라는 주연급 배역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됐어요.

- 진이한 배우에게 한성별곡은 어떤 의미인가요?(디시이용자 '무몽???)

제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첫 드라마라서 애정이 많았어요. 미흡한 점도 많았고 좀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항상 서서 대본 보면서 감정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신이 없을 때도 항상 촬영장에 나왔어요. 촬영을 6개월 정도 했는데요. 한성별곡의 스태프들은 아직도 잊지도 않고 연락하고 지내요.

- 한성별곡 당시 머리를 길렀었죠. 그 때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 머릿도 길렀고 수염도 붙인 게 아니라 제 수염을 기른 거였어요. 감독님께 '제 수염으로 가면 어떨까요'라고 했더니 '오! 괜찮네'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다른 배우들도 모두 수염을 기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촬영 모두 끝나고 수염을 깎았더니 아무도 못 알아 보더라고요.(웃음)

- 한성별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뽑는다면 어떤 장면을 뽑으시겠어요?

진짜 하나만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때 했던 연기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조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감독님이 '여기서 이 신을 찍을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면 전 그때부터 나영이(김하음 씨)를 데리고 앞에 서서 감정을 잡아요. 그러면 금세 눈물이 고여요. 한장면 한장면 찍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 요즘은 다양한 사극들이 많이 나오지만, 당시 획기적인 사극이었죠?

그럼요. '한성별곡'을 리메이크한 작품이 '추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추노의 '왕손' 캐릭터가 저였어요.

- 김지석 씨가 연기한 '왕손'이요?

네. 굉장한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추노'라는 사극을 하는데 캐릭터 두 개가 있는데 고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이종혁 씨가 한 '황철웅' 캐릭터였고, 또 하나는 '왕손'이었죠. 저는 악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황철웅' 역을 하고 싶다고 했고 대본 리딩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작가님하고 감독님께서 계속 '왕손'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종혁 선배님이 하고 싶다고 들어오면서 제가 밀린 거죠. 아쉬웠어요.

- 진이한 씨가 하는 '왕손'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아마 김지석 씨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귀여우면서도 까불까불 하고 남자다운 역이잖아요. 김지석 씨가 정말 잘하셨어요.

- 가장 후회되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역할이 있나요?(디시이용자 우리집하루, 말리카)

후회되는 작품은 없어요. 물론 연기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역할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 영화 '탈주'라는 작품도 하셨던데, 이 작품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디시이용자 무몽???)

'한성별곡'을 보시고 이송희일 감독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탈주의 제 캐릭터가 21살 군인 캐릭터였어요. 그때 당시 제가 사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프로필에 긴 머리 사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군인 이미지와는 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도 한 번 보자고 해서 봤는데 실제로 보시더니 '실물이 훨씬 어린데' 하시면서 같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 첫 영화여서 이 작품도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이 작품 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몸의 상처요. 항상 야산을 뛰어다녔거든요. 양쪽 다리를 접질려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양쪽 다리가 접질려져서 정말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탈주를 찍고 나서 몸이 많이 상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몸이 안 좋아져서 다리를 굽히지를 못할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흥행에는 미치지 못해 좀 아쉬웠겠어요.

이 영화는 원래 독립영화라 흥행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흥행했으면 좋았겠죠. 그래도 배울 게 많은 작품이었어요.

- 데뷔 때부터 주인공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혹 다음 작품 고르는데 폭이 좁지는 않은지 궁금해요.(디시이용자 말리카)

현실적으로 소속사 입장에서는 비중 있는 역할을 선택하려고 많이 고려하는 편이에요. 아마 다른 연기자분들도 그렇고 기획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싫어하고요. 다양한 작품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 작은 역할이라도 다작을 통해 인지도를 쌓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있어야 좋은 작품의 배역을 할 기회가 높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아직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능을 하게 된 것도 진이한이라는 배우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하게 됐어요. 예능을 통해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능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윤계상 씨랑 같은 소속사이고 친구인데 어느 날 계상이가 요즘 뭐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깐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 좋은 나이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고르지 말고 빨리 뭐든 많이 하라고 조언해주더라고요. 계상이 말을 듣고 공감이 갔어요. 지금 이 나이에 보여 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연기에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 뮤지컬부터 데뷔하셔서 그런지 인지도 면에서 또래 배우들에 비해 좀 약하신 편인데 그런 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세요?(디시이용자 말리카)

있었죠. 그냥 스스로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했던 작품들 시청률이 다 저조한 편이어서 스트레스를 받긴 했죠.

- '바람불어 좋은 날'은 시청률이 높았잖아요.

고정 시청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위를 하고는 있었지만, KBS 일일드라마 사상 역대 제일 안 좋았죠.(웃음) 저는 운은 많이 따르는 편인데 그 운이 확 다 오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나면 제가 배우를 몇 번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꾸준히 할거고 새로운 모습 계속 보여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당장의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요즘 하는 영화나 드라마 중 혹시 탐나는 캐릭터가 있나요?(디시이용자 꺼병홀릭, 짱아찌짱)

'최고의 사랑'에 차승원 선배님이 연기하는 '독고진' 캐릭터가 탐나요. 아까 MBC 지하 주차장에서 차승원 선배님 잠깐 봤어요. 솔직히 잘 모르는데 후배니까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선배님께서 '오! 그래. 알아' 하면서 괜히 아는 척 해주시는데 정말 멋있고 좋더라고요.

- 파격적으로 변신하는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무몽???)

네. 그럼요. 전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추격자의 하정우 씨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한성별곡의 '상규' 캐릭터는 정말로 여린 캐릭터였는데, 정말 그때는 제가 상규 역에 너무 몰입돼서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눈물을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진을 보면 눈이 정말 선해요. 근데 좀 센 역할을 했을 때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역할을 해보면 정말로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배우들이 작품하고 나면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데 진이한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인 것 같은데 그 배역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해서 다음 작품에 민폐를 끼친 적도 있었어요. 한성별곡 끝나고 MBC '누구세요?'의 '신재하' 역을 맡았는데 재하는 차갑고 냉정한 캐릭터였거든요. 그런데 한성별곡 '상규'의 여린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 정말 힘들었었어요. '몽땅 내 사랑' 할 때도 초반에는 이전 작품의 '대한'이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계속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어요. 지금은 다른 것 같죠?

- 네. 지금은 전혀 대한이 느낌은 안나요.

다행이다.(웃음)

- 같이 호흡을 맞췄던 여자 연기자 중에 누가 제일 호흡이 잘 맞았어요?

김소은 씨도 좋았고, 김하은 씨도 좋았고, 또 이태임 씨도 그렇고 다들 좋았어요. 저랑 호흡을 맞췄던 여자 연기자들은 다들 잘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잠깐 상대역을 했던 여배우들도 정말 다들 지금 잘 됐어요.

- 여배우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배우였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복좀 받고 싶는데.(웃음)

- 연극, 뮤지컬 무대에서 먼저 활동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공연 무대에 대한 다시 서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무대 위의 진이한 모습도 무척이나 보고 싶다는 팬분들이 많으세요.(디시이용자 무몽???, 새봄띠)

지금도 뮤지컬 제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드라마 쪽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시트콤, 예능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장르가 가장 매력이 있으세요?

소극장 연기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배우로서 무대에서 관객들이랑 교감할 때 느끼는 그 기분은 이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소름이 끼치거든요. 저는 소극장에서 연기할 때 관객들의 표정을 다 쳐다봐요. 배우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관객들의 표정이 변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런 매력들 때문에 무대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죽을 때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고. 예전에 '육분의 룩'이라는 연극을 했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머리에 총을 쏘고 죽는 장면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 공연을 했었는데 한 달 내내 맨 앞에 앉아서 공연을 본 팬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공연하는 날이었는데 총 쏘고 죽는 장면에서 쏘기 전부터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내가 여기서 총을 쏘고 죽고 나면 더이상 이 무대는 설 수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총을 '탕'하고 쏘면서 저를 바라보는 관객들을 하나하나 다 봤어요. 위에서 빨리 죽으라고 막 그랬는데 되게 늦게 죽었어요.(웃음) 그 짧은 순간 30~40년 후에 내가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고 지금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는 관객들이 백발이 돼서 그때도 내 공연을 보러와 준다면 꿈을 이룬 거다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생각을 순식간에 하면서 죽었어요.

- 진이한에게 연기란?(디시이용자 말리카, 무몽???)

평생 가지고 갈 나의 꿈이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로 남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웃음)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말보다 무슨 표현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 '없다'고 말씀하시면 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웃음)

그런가. 그냥 진이한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연기를 보면서 공감할 수 있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공감을 느끼게 하는 배우' 좋네요.

네. '공감을 주는 배우'. 뭔가 지어낸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상하잖아요.
(웃음)

-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디시이용자 *레인보우*, 말리카)

아까도 말했듯이 죽는 날까지 연기를 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인데 무대에서 연기를 끝내고 죽는 거죠. 하하하.

- 분명 연기자로서 훌륭한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요. 혼자 시한부 삶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니 조금 재미있긴 하네요.(웃음)

제가 이래서 초딩이라는 얘기를 듣나 봐요. 죄송해요.(웃음)

- 진깡에 올라온 글들을 잠깐 봤는데 진이한 씨를 오래 전부터 좋아한 팬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뮤지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좋아해주시는 팬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좋아해주시는 팬들이 많으세요. 팬들이 선물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전부다 사진 찍어 놓고 모아 봐요. 한 방에 가득해요.

- 진이한 씨에게 팬이란?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디시이용자 '짱아찌짱, 나야냘')

항상 감사해요. 이런 말하면 너무 느끼해서 까는 글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팬들이 있으니까 진이한이라는 배우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고 제 심장같은 존재예요.

- 조금 느끼한 감이 있긴 하지만 팬들은 정말 기분 좋을 것 같네요.(웃음)

그러니까요.(웃음) 정말로 말로는 표현이 안될 정도로 감사한 분들이에요.

-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멘토는 누구인가요?(디시이용자 짱아찌짱, 말리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더라고요. 제가 목소리나 외모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고, 많은 것을 물려받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엄하셨는데 저희 형제를 굉장히 남자답게 키웠어요. 나가서 싸우고 오라고 그러셔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서 애들 때리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불행할 때 인내하고 행복할 때 긴장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연기하면서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삶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전 점을 보면 연예인의 기질이 없다고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연예인 기질이 굉장히 많다고 나와요. 노래도 정말 잘하시거든요.

- 연예인 끼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으셨군요. 어머님도 아까 모니터링도 꼼꼼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두 분다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분이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격투기도 하세요. 저희 집은 딸이 없어서 형이랑 제가 격투기 하고 있으면 어머니도 막 끼어드셔서 같이 하곤 그러셨어요.

-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때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디시이용자 짱아찌짱)

30 살의 한성별곡을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굉장한 감독님한테 '만약 신인상을 타면 수상소감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굉장한 감독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할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후보에만 오르고 떨어졌어요. 그 후에 또 기회가 왔어요. '바람불어 좋은 날'로 우수상 후보에 올랐는데 또 상을 못 탔어요. 얘기할 기회가 없어진 거죠.(웃음)

- 이번에 예능 상을 타고 말하시면 되겠네요.(웃음 0

예능 신인상? 저는 상복이 없어요. 짜증나요.(웃음)

- 진이한 씨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기 이야기 말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평소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디시이용자 새봄띠, 꺼병홀릭)

저는 술은 잘 안 먹고요. 주로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게임도 하고 그래요.

- 어떤 게임 즐겨하세요?

위닝이요. 축구 게임이죠. 요즘 계상이가 바빠서 같이 잘 못 하는데 주로 계상이랑 축구 게임하고 놀아요. 송중기 하고도 했었고, 탁재훈 형이랑도 같이 몇 번 했었어요.

- 요즘 고민이 있으세요? 진짚에서 명쾌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디시이용자 짱아찌짱, 꺼병홀릭)

음. 점점 늙어가는 게 고민이에요.(웃음) 농담이고요. 제가 제 나이 또래 배우들보다 어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나이대 배역이 안 들어와요. 속상해요. 하정우 씨랑 저랑 동갑인데 제가 훨씬 어려 보이지 않나요?

- 네. 어려 보이세요.(웃음) 그래도 어려 보이면 연기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지 않나요?

네.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면 너가 연기할 기회가 훨씬 더 많으니까 더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지난번에 윤승아 씨도 인터뷰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아는 너무 어려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29 살이었는데 지금 보면 완전 애 같아요.

- 콤플렉스가 혹시 있다면 뭘까요?(디시이용자 꺼병홀릭)

많죠. 되게 많은데, 옆머리가 자주 뜨는 게 짜증나죠.(웃음) 그리고 키가 180이 좀 안되거든요. 179. 몇인데 화면이나 멀리서 보면 키가 되게 작아 보인대요. 그래서 막상 옆에 서면 '어! 안 작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등을 굽히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 목소리가 좋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성시경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 편이에요.

- 즐겨부르시는 애창곡은?(디시이용자 smile)

임재범 씨 노래도 좋아하고, 이문세 씨 노래도 좋아해요.

- 결혼은 언제 짬 하고 싶으세요?(디시이용자 비타민 C 씨, 대한아찌짱, 새봄띠)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 대략적으로 몇살 전에는 하고 싶다 하는 계획도 없으세요?

마흔 전에는 하겠죠.

-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음 달에 결혼 발표하시거나 그러진 않겠죠?(웃음)

아뇨. 전혀 그런 계획 없어요. 여자친구도 없습니다.(웃음)

- 꼭 해보고 싶은 광고가 있다면?(디시이용자 꺼병홀릭)

자동차 광고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광고 안 가립니다. 막 이래요.(웃음) 어렸을 때는 제가 혼자 프로필 만들어서 광고 기획사에 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서브로 많이 했었어요. 제가 기획사에 30살에 들어갔으니까 그 전에는 혼자 활동을 했었거든요.

-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우가 아닌 자연인 김현중의 꿈은 무엇일까요?(디시이용자 꺼병홀릭)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게 꿈인데... 이번 주 로또 샀던가?(하하하). 로또 1등 되고 싶어요. 농담입니다.

- 끝으로 디시 이용자분들께 동영상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진이한이 MBC 시트콤 '몽땅 내 사랑'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잠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동안 드라마 정극을 통해 진지한 모습을 주로 보여 왔기에 그가 시트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몹시 궁금했다. 곧바로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 요청을 하니 소속사 측은 "아직 처음 시트콤을 시작하는 단계라 할 이야기가 많이 없을 것 같다"며 "자리를 좀 잡고 난 후에 하자"고 제의했다. 그리하여 두 달여가 지난 5월 말에야 진이한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대부분 촬영장에서 진행되는 인터뷰는 기다림의 연속일 때가 많다. 진이한과의 인터뷰도 마찬가지였다. 몇 번의 스케줄 변경 후, 일산 MBC에서 '몽땅 내 사랑' 스튜디오 촬영이 있던 날 인터뷰 일정이 잡혔는데, 두 시간의 기다림 후 초여름의 긴 해가 질 무렵 쯤 돼서야 인터뷰가 시작됐다. 온종일 진행된 촬영 스케줄로 많이 지쳐 보인 진이한은 기사를 기다리게 했던 것이 미안했는지 계속해서 '기다리게 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배고플 테니 함께 밥이라도 먹자고 배려하는 성의를 표했다. 피곤함에 뽀루지까지 돋은 그의 얼굴을 보니 불평스런 마음보다는 빨리 인터뷰를 끝내고 그를 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디시 이용자들이 정성스럽게 올려 준 많은 질문들을 그냥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일.

진이한은 반듯하고 잘생긴 외모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도도할 것 같은 첫인상과는 달리, 대화를 해보니 그의 말대로 참 재미있고 편안한

사람이었다. 가식이 없는 담백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울릴까?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외모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돈 버는 걱정도 하면서 소탈한 삶을 사는 듯했다.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에게는 많은 팬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인터뷰 중간마다 그는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전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진이한에게서 느낀 점은 연기에 대한 열정이었다. 20대 후반의 공백기를 통해 연기의 소중함을 알게 된 그는 보여 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이라며 연기에 굶주려 있다고 했다. 죽는 날까지 무대에서 연기하다 죽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내 머릿 속에도 백발과 깊은 주름이 패인 진이한이라는 노배우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 내는 멋진 연기를 펼치는 모습이 저절로 그려졌다.

사진 = 김기 기자(dc.kikim@gmail.com)

<http://m.cafe.daum.net/2hanlove/Opn/369?svc=cafeapp>

진이한 그 남자가 사는 법

♥발랄 *루비정옥♥|11.06.16|74 목록댓글 1가

말썽한 외모로 인한 연상작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진이한은 촬영을 위해 준비한 폭 좁은 청바지를 입고 연신 어색한 걸음을 걸었다. <누구세요>의 신재하와 다르게 걸치레 하는 게 영 익숙치 않았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그 연유부터 물었다. 뮤지컬부터 시작한 연기 초보 시절 츄리닝만 입던 게 습관이 되어서라고 했다. 그때의 밑그림은 지금 진이한의 모습을 가능케 한 것이었다.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 뮤지컬도 처음부터 배역 따내서 몇 작품 하고 바로 주인공이 됐고, <한성별곡>도 그렇고. 남들이 뭐라 해도 스스로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던 미술학도가 연기를 하겠다고 덤빌 수 있었던 건 자신감 덕분이었다. 군대 말년에 내린 결정이었다. 어린 시절 그렸던 그림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진이한은 다시 흰 도화지를 펼쳐 든 셈이 됐다. 연기 경험은 전무했다. 복학 후 연기 전공 수업을 들은 게 전부였다. 그럼에도 그에겐 배짱이 있었다. "<UFO>라는 너버벌 퍼포먼스가 제 첫 무대였어요. 그걸 보러 온 백재현씨가 "너 연기 해볼래?"하시더라고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주인공 아니면 안 하는데요?" 했더니 대답 "주인공 줄 테니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괜한 허세는 아니었다. 이전에 찾아온 달콤한 제의를 스스로 차버린 후 중심을 잡아서였다. 이 곳 저 곳 문을 두드리며 오디션을 보던 때, 그는 공중과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신인 등용문이었던 터라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스타가 될 수 있었다. 걸뭇 들어 시작은

했지만 예의 가벼움은 오히려 그를 진지하게 만들었다. "연예인이 아닌 연기가 되고 싶다"는 확실한 방향이었다. 그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무대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국어책 읽는다면 선배에게 타박받고, 울기도 울었다. 그 경험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차피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드라마 <한성별곡>은 진이한에게 또 다른 과제를 안겨줬다. "조명이 어디서 오고, 날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처음엔 진짜 혼났어요. 절 안 잡고 있는 줄 알고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너 리액션 안하고 뭐하고 있냐"는 소리도 들었죠." 카메라 앞은 생각보다 혹독했다. 다섯 달의 촬영 기간 동안 그는 거의 앉아 본 적도 없었다. 군기가 잔뜩 잡힌 이 신인 연기자는 그저 감정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고맙게도 대중들은 그의 에너지를 알아봐 주었다. 이송희일 감독 또한 그랬다. <한성별곡>의 상규에게서 뿔어져 나오는 소년의 눈빛을 기억해 둔 그는 진이한을 염두해 두고 캐릭터를 만들었다. 두 번째 드라마 <누구세요>에서 못내 아쉬웠던 것들을 토로하던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한성별곡> 팬이었던 몇몇 분들이 <누구세요>의 진이한은 보기 싫다고들 하더라고요. 이해해요. 스스로가 매력있는 역할을 소화도 못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죠." 그는 인터뷰 내내 "배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촬영 준비 중인 첫 영화에 아이처럼 설레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촬영 순간순간마다 새기고 또 새기는 그는 모래성을 쌓지 않으려 노력한다. "죽을 때까지 해도 한 쪽 가슴이 비어있을 것 같다"는 진이한의 연기는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420?svc=cafeapp>

진이한, 두 번째 시트콤 도전 “캐릭터 매력 200% 표현해낼 것” 11.11.07 | 33
[경제투데이 장병호 기자] 배우 진이한이 종합편성채널 MBN 새 시트콤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연출 김희원, 극본 황여름, 김경미, 선승연) 출연을 확정했다.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는 한국판 ‘프렌즈’를 표방한 작품. 진이한은 극중 아이큐 147에 S대 법대 출신인 ‘완벽남’ 고찬영 역을 연기한다.

진이한은 시트콤을 통해 독신주의자에서 20년 지기 이성 친구들과의 본의 아닌 동거로 변화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낼 예정. “두 번째 시트콤이지만 캐릭터는 물론 이야기 전개 스타일 자체가 달라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이한은 “고찬영의 매력을 200% 표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진이한 외에도 이수경, 유인영 등이 출연하는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는 첫 촬영을 준비 중이며 오는 12 월 MBN 개국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423?svc=cafeapp>

진이한 "이선균과 목소리 똑같아 주변서 착각하기도"

소울메이트★정미|11.11.23|59

배우 진이한이 이선균과 똑같은 목소리로 주변에서 오해를 샀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23 일 방송된 MBC TV '기분 좋은 날'에서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애정만만세'의 촬영장 뒷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진이한은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 것 같다"는 제작진의 말에 "내가 이선균과 목소리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이선균의 한 지인 분이 내 목소리만 듣고 이선균으로 착각한 적도 있었다"며 "언젠가는 드라마에서 이선균과 친형제로 나오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하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어보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김수미가 '애정만만세'에서 맡은 역할이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달라 연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 눈길을 끌었다.

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http://m.cafe.daum.net/2hanlove/Opn/426?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441?svc=cafeapp>

진이한 "죽을 고비 넘기고 새출발 합니다"12.09.08|5

'닥터진' 종영 직전 교통사고.."좀 쉬며 충전하라는 의미"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이거 오늘 처음 말하는 건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인생을 돌아보게 되네요. 조금 쉬면서 충전하라는 뜻 같아요.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탤런트 진이한(34)이 최근 죽을 고비를 넘겼다.

지난달 초 촬영장으로 이동하려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타고 있던 차가 반파되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것. 당시 앞자리 보조석에 타고 있던 그는 영화의 느린 화면처럼 앞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온몸이 흔들리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MBC '닥터진'의 마지막 2회 방송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하느님이 보우하사' 그는 이렇다 할 큰 부상이 없었다. 충격을 받은 후유증은 다소 있었고 이후 어떻게 드라마를 마무리했는지 모르지만 천운으로 더 큰 화는 피할 수 있었다.

"대사가 잘 안 외워지고 멀미 증상에 나타나는 등 한동안 고생 좀 했어요. 하지만 외상도 없고 CT 등을 찍어봤는데도 별것 없었어요. 천만다행이죠."

하지만 이 사고로 그가 통원 치료 등을 하면서 예정됐던 인터뷰는 드라마 종영 한 달 후에야 이뤄졌다.

지난 6일 을지로에서 그를 만났다.

진이한은 "내가 운이 좋긴 좋은 것 같다. 그런데 그간은 운이 있어도 늘 5%씩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사고에서 멀쩡한 걸 보니 그 부족했던 운이 다 모여서 날 구한 것 같다"며 웃었다.

실제로 그는 데뷔부터 '닥터 진'에 이르기까지 운이 좋았다.

미술학도였고 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는 2002년 어느 날 비언어극 'UFO'의 오디션에 도전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다.

"제가 춤을 잘 춰요. 어려서부터 춤깨나 추는 아이로 소문나서 가수 제안도 술하게 받았어요. 군 제대 후에는 용돈 벌이를 하려고 각종 춤 대회에 출전해서 상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춤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어요. 굳이 직업이 아니어도 전 제가 춤에서 최고라고 자부했거든요.(웃음) 그러다 'UFO' 오디션 공고를 보게 됐는데 대사는 없고 춤을 잘 추면 된다고 해서 도전해봤어요."

그는 거기서 진짜 춤꾼을 보게 되면서 처음으로 기가 죽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3차 오디션까지 붙었다가 최종에서 떨어진 그는 그러나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얻어 'UFO'에 출연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개그맨 출신 연극 제작자 백재현의 눈에 띄어 '루나틱'에서는 단번에 대사가 많은 배역을 따낸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기는 쥐뿔도 몰랐죠. 그래도 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겁 없이 거만했죠.(웃음) 처음 연습할 때 선배들이 '뭐 이런 놈이 연기하러 왔냐'며 대본을 집어던지기도 했죠. 오기로 밤샘 연습을 하면서 무대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폼생폼사' 인생. 그런데 운이 따랐고 그는 자신에게 오는 운을 기회로 살려 오늘에 이르렀다.

"제 안에 있는 끼를 삭히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보자 싶었죠."

하지만 뮤지컬계에서 별명이 '싸가지'였고 자존심 하나에 죽고 사는 인생인 그는 도중 '수가 틀려' 한차례 일을 '매려치우기'도 했다. 1년간 폐인처럼 지내가 다시 각오를 다지고 돌아온 건 2007년 KBS '한성별곡'을 통해서다.

"역시 운이 좋았죠.(웃음) 당시 오디션에서 난 가진 게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날 봐달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뭐 이런 놈이 있나?'라면서도 잘 봐주셨어요. 큰 모험이었을 텐데 덜컥 제게 주인공을 맡기셨죠."

이후 '누구세요?' '내 인생의 황금기' '바람불어 좋은 날' '몽땅 내 사랑' '애정만만세'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를 거쳐 '닥터진'까지 그는 즐기차게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연기력을 조금씩 쌓아왔다. 특히 지난 2년은 일주일에 고작 10시간밖에 못 잘 만큼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했다.

시트콤 '몽땅 내 사랑'를 통해서 코미디의 재능을 뽐내며 주목받았다.

진지한 표정으로 펼치는 코믹연기는 진이한이라는 배우를 다시 보게 만들었고 이는 두 번째 시트콤 '왔어...'로 이어졌다.

"제가 워낙 개구쟁이 같아 '몽땅 내 사랑' 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애드립의 재미를 알았는데 '왔어...' 때는 아예 제 연기의 70%가 애드립이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는 한가지 이미지에 머물지 않았다. 시청률이 높았던 '애정만만세'에서는 지독한 악역을 소화했고 '닥터진'에서는 개혁을 꿈꾸는 열혈 선비를 연기했다.

"'애정만만세'는 처음에는 악역이 아니었는데 극 전개상 캐릭터가 너무 심하게 악역으로 바뀌면서 솔직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배우는 어떤 연기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그 역도 제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닥터진'은 도중에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었는데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색깔이 퇴색된 감이 있어 아쉬웠지만 그 역기도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장에서 연기하던 시절부터 30년 후에도 이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고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는 "연기가 고프다. 너무 하고 싶어서 '근질'거린다"며 웃었다.

"얼결에 데뷔해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번에 큰 사고를 당하면서 잠시 절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당분간 몸을 추스르면서 승부욕을 새롭게 불태우겠습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443?svc=cafeapp>

진이한 "유지태와 연극하며 연기욕심 부렸다" (인터뷰)

이한지키미혜선|12.09.12|51 [목록덧글 3](#)가

진이한 "유지태와 연극하며 연기욕심 부렸다"(인터뷰)2012.09.11 14:41|

©홍봉진 기자

배우 진이한을 만났다.

진이한은 최근 종영한 MBC '닥터진'에서 홍영희 역을 맡아 안방극장을 찾았다. 그는 세도가의 서자 김경탁(김재중 분)의 오랜 벗이자 조선 후기 개혁의지를 불태우며 대립하는 연기를 펼쳤다.

그는 지난달 초 '닥터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냈다. 큰 외상은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안정을 취해야 했다. 이후 드라마가 종영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인터뷰에 응했다.

◆"재중이와 친분 오해하는 사람도..정말 친한 형동생"

'닥터진' 종영 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진이한. 그런데 요즘 부쩍 그에 관한 기사가 자주 올라온다. 드라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그룹 JYJ의 멤버 김재중이 SNS에 올리는 글 마다 화제가 되며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됐다.

"'닥터진' 끝나기 전까지는 안 쉬고 계속 작품을 하다가 오랜만에 쉬는데 뭐해야 될지 몰랐어요. 마침 재중이도 지금 쉬는 중이라 둘이 거의 매일 만나요. 저희는 정말 잘 맞는 친한 형 동생이에요. 재중이가 심지어 관리비 반반씩 내고 살자고 했어요. 재중이가 예전에 더블에스오공일 김현중이랑 같이 살았는데 제 본명이 김현중이거든요. 현중이랑 계속 엮인다며 막 웃었어요."

두 사람의 깨알 같은 친분이 계속 회자되자 일각에서는 이상한 추측이 제기됐다. '닥터진'에서 친구이자 적으로 애뒀한 연기를 펼친 것이 시작이었다. 드라마가 끝난 뒤 시청자 게시판에는 '두 사람의 눈빛이 오묘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제가 맡은 홍영희 역할인 극중 김경탁과 함께 하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재중이도 민영이랑 러브라인이었는데 인터뷰 하면서 '진이한 형이랑 하는게 더 좋다'고 했더라구요. 제 연관검색어 혹시 보셨어요?(한숨) 트위터에 대놓고 '저 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서 뇌뒀는데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연관검색어 보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예요"

사진피가기 이용안내

©홍봉진 기자

◆ "느낌이 오는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도.."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게이 오해를 털어내는 방법으로 '연애'를 추천했다. 연애를 안 한지 꽤 됐다는 진이한은 이상형을 문자 얼굴이 밝아졌다. 어느 정도 '예의상'의 질문이었는데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답했다. 그런데 그 이상형이 참 어렵다.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딱 봤을 때 매력 있는 사람이 좋아요. 예를 들자면 예쁜 걸 떠나서 뭘 안하고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셔도 매력이 있는 사람. 사람 자체에서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이요"

그런 건 이상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머리 묶었을 때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어 결혼계획을 묻자 대뜸 외롭단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하고 있다가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구요. 문소리 누나도 그랬고 주위에 결혼한 선배들이 말하기를 결혼할 사람은 보자마자 통하는 딱 그런게 있대요.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누군가를 만나서 느낌이 온다면 결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홍봉진 기자

◆"관객 두 명 앞에서 뮤지컬 공연..유지태와 공연하며 배우 욕심"

진이한은 학창시절 배우에 대한 꿈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오로지 그림이랑 춤 밖에 몰랐다고 한다. 군 제대 후 그림과 춤에 매진하던 진이한은 춤으로 대학로에서 오디션을 봤고 결국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백재현 선배의 제안으로 처음 '루나틱'이라는 뮤지컬을 시작할 때는 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연기의 재미를 알게 됐고 유지태 선배와 연극 '육 분의 룩'을 하다가 연기 욕심을 부렸어요. 주진모 등 선배들과 함께 연극무대에 서면서 많이 배웠죠. 제가 연기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선배들은 연기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선배들이 연기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것이 제 연기생활에 큰 도움이 됐어요"

진이한은 서른의 늦깎이로 브라운관에 데뷔했다. 29살 까지 대학로 연극무대에서 활동하며 관객 두 명을 앉혀놓고 공연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서른에 새로운 도전을 하자고 다짐했고 그렇게 KBS 2TV의 '한성별곡'으로 브라운관에 데뷔했다.

"뮤지컬만 하다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니까 연기 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무대에서는 두 시간동안 이어지는 호흡으로 연기했는데 드라마는 풀 샷도 찍고 개인 샷도 찍고 그렇게 끊어지는 호흡으로 하다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런데 촬영을

하다보니까 무대는 무대 나름, 또 카메라는 카메라 나름대로 각기 다른 매력이 있더라구요"

인터뷰가 끝난 뒤 '닥터진'에서 함께 했던 김재중과 송승헌을 만나러 간다는 진이한에게 '한류스타'가 되겠다는 욕심은 없냐고 물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고 본인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웃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444?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486?svc=cafeapp>

진이한, 기황후 종영 소감 "눈빛 연기 위해 많이 공부하고 노력했다"

쿠우선희♥|14.04.30|30

배우 진이한이 인기리에 막을 내린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의 종영 소감을 전했다.

진이한은 30일 소속사 월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내 스스로 탈탈이라는 인물을 만들어가 보자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고 입을 열었다.

이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눈빛으로 표현하기 위해 많이 공부하고 노력했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서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애정을 드러내며 촬영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좋은 배우들, 스태프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 행복했고 끝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청자 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

진이한은 29일 종영한 '기황후'에서 뛰어난 지략가이자 충성심 강한 인물 탈탈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특히 극 초반 감미로운 목소리와 대조되는 강렬한 눈빛 연기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냈고, 후반부에는 냉철하고 비상한 머리로 승냥(하지원)의 조력자로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황후 마지막회 아쉽다", "진이한 기황후 종영 소감, 다음 작품도 기대한다", "기황후 종영 소감 들으니 종영 실감난다", "기황후 종영 소감, 연장을 기대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황후’ 마지막회는 시청률 28.7%(닐슨 코리아 집계·전국기준)를 기록, 아쉽게도 30%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http://m.cafe.daum.net/2hanlove/Opn/505?svc=cafeapp>

2편[스타들의 수다] 배우 진이한 "어릴 적 꿈은 개그맨, 즐거움 주고싶다"140527

[조나영 기자] 드라마를 벗어난 일상에서의 진이한은 개그맨 못지않은 유머감각에다 재치와 장난기가 많은 배우다. 자못 토크쇼를 진행해도 될 만큼 화려한 언변에 상대방을 이끌며 재치있게 넘어가는 임기응변도 탁월하다.

드라마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진이한과 수다 2편 [스타들의 수다]로 들어가 보자.

Q. 목소리가 너무 좋다. 나레이션에서 들어본 것도 같다

예전에 '코이카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원래 배철수 선생님이 하시다가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때 나레이션으로 두 편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Q.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을 더 많이 닮았나

고루고루 닮은 것 같아요. 목소리는 아버님을 닮았어요. 아버님이 목소리가 좋으세요.

Q. KBS '해피투게더'와 '세바퀴'에서 댄스실력을 보고 놀랐다. 언제 배웠나?

그때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중2 때 춘거예요.(웃음) 어렸을 때 방송에서 마이클 잭슨이 문워크 하는 걸 보고 혼자서 연습을 했어요. 독학으로 형이랑 최소 2시간 씩 거울 앞에서 춤을 찼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장기자랑에 보통 기존가수의 춤을 따라 추는데 저는 저만의 춤을 찼던 것 같아요.(웃음) 카세트 두 개를 더빙하고 음향효과도 넣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Q. SNS 를 봐도 유머감각이 넘치는 것 같은데, 평상시 성격은

어렸을 땐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했는데 개그맨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군가와 똑같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만의 색으로 만들고 싶은 열정이 강했어요.

Q. 패션도 다른 사람과 같은 스타일은 안 좋아하나

옷을 입고 가는데 누가 저랑 같은 옷을 입고 가는 걸 보면 전 안 입어요.(웃음)

Q. 자신만의 연애 스타일이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나에 빠지면 엄청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연애는 해바라기(?) 스타일이죠.



: 에드워드 노튼_ "선과 악"이 공존하는 눈빛을 가진 배우"

: 조니 뎀_ "다양한 연기변신이 가능한 배우"

Q.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어떤 배우의 연기를 좋아하는지

‘에드워드 노튼’을 좋아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눈빛도 좋고 연기도 좋고요. 그리고 ‘조니 뎀’도 최고죠. 눈빛만으로도 캐릭터를 멋지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죠.

Q. 평상시 자주 만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재중이와는 워낙 친해서요. 예전에 MBC 드라마 ‘닥터 진’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재중이가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누나들만 있다 보니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중이 어머니가 저를 더 좋아하세요.(웃음)

석천이 형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할 때 알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2?svc=cafeapp>

진이한 "결혼 계획? 마흔 전에는 하고 싶은데.."(인터뷰)

가을햇살~태옥♡|14.07.01|40 [목록](#) [댓글 0](#) [가](#)

진이한이 서울 압구정 소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MBN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다.

올해 나이 37살, 어느새 30대 중반에 넘어선 진이한은 유독 열애설이 없는 배우로 유명하다. 워낙 스캔들도 없고, 결혼에 대한 소식도 없어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급하자 진이한은 자신도 역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까지 여자에 대한 소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가 아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수줍게 웃으며 털어놓았다.

진이한은 "어느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다음에 만나고 싶다"며 "사랑하는 여자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 편하게 해 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고백했다.

결혼 계획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마흔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털어놓은 진이한은 이상형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며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MBC 드라마 '기황후'에서 탈탈 역으로 이름을 알린 진이한은 이후 '개과천선'에서 판사 출신의 변호사 전지원 역으로 분해 열연을 펼치며 안방극장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3?svc=cafeapp>

뉴스엔

입력 14.07.01 16:06

[뉴스엔 글 황혜진 기자/사진 정유진 기자]

배우 진이한이 '개과천선' 종영 소감을 밝혔다.

진이한은 6월 26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중)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진이한 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전지원은 차영우웍 대표 차영우(김상중 분)의 러브콜을 받아들여 판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로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며 김석주(김명민 분)의 빈자리를 메울 차기 에이스 변호사로 활약한 인물. 전지원으로 분한 진이한은 유능하고 곧은 성품을 지닌 판사에서 숙물 면모를 지닌 변호사로 변화하는 캐릭터를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무리없이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진이한은 7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개과천선'이란 작품을 마친 소감에 대해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다. 전작이었던 MBC '기황후'를 끝내고 바로 '개과천선' 촬영에 돌입했다. 10개월, 11개월 정도 쉬지 않고 계속 연기를 해왔기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막상 끝나고 이틀 정도 쉬니까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기황후'에 이어 '개과천선'에 캐스팅돼 휴식기 없이 작품 활동을 하게 된 것에는 '개과천선'의 작품성과 탄탄한 출연진이 한 몫했다. 진이한은 "개인적으로 그런 장르물을 해보고 싶었다. 워낙 좋은 배우들과 함께하는 작품이었다. 모두 최소한 한 번은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좋은 선배님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망설임 없이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맛깔나는 장르물에 대한 개인적 욕심이 출연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지만 촬영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진이한은 "판사, 변호사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완벽하게 대본을 숙지하고 싶었다. 특 건드리면 바로 대사가 나올 정도의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국내 드라마 제작의 현실상 대본이 나오는 속도가 비슷했다. 주변 환경들 때문에 김명민 형도 많이 힘들어했고 나조차도 생각했던 것보다 전지원 캐릭터가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극중 전지원이란 캐릭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전지원이 숨겨둔 개인적인 아픔 등의 개인사를 좀 더 풀어냈으면 배우로서도 좀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캐릭터에 적응하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제 좀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작품이 끝났어요. 원래 시놉시스에는 전지원이 결혼을 했다 이혼하고 전 부인의 죽음으로 인해 아파하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조기종영이 결정됐고

아무래도 모든 스토리를 다 풀어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지원에 대한 설명 없이 김석주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연기하다보니 시청자 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개과천선'은 말 그대로 법정 드라마였다. 러브라인이 아닌 변호사들간의 권력 다툼, 어두운 권력의 이면, 그 속에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변호사들의 고군분투를 그리며 흥미를 더했다. 진이한뿐 아니라 김명민, 김상중, 김서형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단연 '개과천선'의 백미로 꼽힌다. 진이한은 "워낙 함께 연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선배님들이었다. 작품 속에서 호흡을 맞추며 느낀 감정은 들어가기 전 상상했던 선배님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정말 똑같았다. 카리스마 있는 눈빛 등 연기하는데 있어 배울 점이 정말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좋은 선배님들과 연기하게 돼 좋았지만 그만큼 서로 붙는 신이 적어 속상했어요. 김명민 형과 우연히 지나가다 마주치는 정도였어요. 서로 마주보며 정면 대결을 펼치는 투샷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신이 없어 안타까웠죠. 장르물의 특성상 하나의 사건을 꼭 풀어내야 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과천선'은 김석주가 갑작스레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고 속물 면모를 벗고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담았다. 김명민은 극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스토리를 이끌어갔지만 촬영 중 역류성 식도염과 골반염에 걸려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소속사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어떻게 보면 김명민 형이 주연으로서 이야기를 앞장서 스토리를 끌고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법정 드라마다 보니 대사 하나하나도 일상 생활의 그것과는 거리가 먼 전문용어였다. 김명민 형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보였다.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의 입장에서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프로답게 연기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김명민은 명품 배우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다. 정말 대단했다. 정말 본받고 싶은 면이다"고 말했다.

진이한에게 '개과천선'은 배우로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이 된 작품이었다. 진이한은 "앞으로 수많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연기하겠지만 '개과천선'을 통해 스스로 느낀 바는 늘 마음 속에 간직한 채 같 것 같다. 배우로서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다. 스스로 부족한 점도 많이 느꼈고 반성도 여러 번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는,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연기를 하는 인간적인 배우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04?svc=cafeapp>

1 편[스타들의 수다] 배우 진이한 "개성 넘치는 형사,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140527

기자] MBC <기황후>의 '탈탈'역, 사법계의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겸손한 수재 <개과천선>의 '전지원' 역까지. 그의 평온한 얼굴에서는 결코 화난 얼굴을 짐작할 수조차 없고, 암전한 얼굴에서는 과감한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며 설득력 있는 연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배우 진이한의 힘인 것 같다.

데뷔 12년 차가 된 배우 진이한. 그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방영일마다 포털사이트의 검색어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제 새로운 기착지를 향해 검푸른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데뷔 후 쉽 없이 작품을 했고 다양한 캐릭터를 했어요. 뮤지컬을 하다가 맡게 된 첫 드라마가 KBS <한성별곡>이었어요. 인터뷰 때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기황후>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예전에는 연극하듯이 그 '역'에만, 그 '신'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할 때 관객들에게 전해지듯이 드라마에도 시청자분들에게 모두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시 <한성별곡>을 한다면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작품 중에 한 작품입니다”라는 말을 강조했다.

어떤 이미지도 잘 표현해 내는 배우 진이한과 본격적인 [스타들의 수다]를 시작해보자.

Q. <기황후> 촬영 때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았는지

4일에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사극이다 보니 준비하는 시간도 길었고요. 그전에는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거의 못했어요.

Q. 사극은 장기간 촬영이라서 동료애가 더 강해졌을 것 같다

아무래도 50 회면 거의 8~9 개월 정도 같이 지내서 더 친분이 쌓이는 것 같아요.

Q. 많은 작품을 했는데 ‘탈탈’ 역할은 어땠나?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캐릭터예요. 첫 데뷔 드라마 <한성별곡> 때도 호위무사였는데 칼 한 번도 못 뽑아봤거든요.(웃음) 그때는 별명이 꺼병이였어요. 최근 연기한 탈탈 캐릭터와는 너무 달랐죠.

기황후도 20 회까지는 두 대사밖에 안 했어요. "숙부님", "뭔가 이상합니다" 이 두 개요. (웃음) 후반부로 가면서 작가님이 캐릭터의 색을 많이 입혀주셔서 장면이 많지 않아도 점점 존재감이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기황후 초반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대사가 거의 없고 리액션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눈빛 연기부터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본에 '!' 세개가 있어요. 이 점점 세 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배역들과의 호흡, 그 장면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문에 (진지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라고 적혀 있었으면 극 중 초반부터 그 지문에 한정되어 연기했을 텐데 제가 느낀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Q. 작가, 감독과 ‘탈탈’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지

극 중에서 하지원 씨한테 후궁교육을 시키고 나서 무릎 꿇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대본에는 '인정하는 순간 존대를 한다'라고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한 번에 무릎을 꿇고 존칭을 쓰는 걸로 상의해서 진행했어요. 작가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장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좀 더 몰입해서 찍었던 장면 중 한 신인데 잘 나왔어요. 작가님도 원하는 캐릭터를 잘 연기해줬다고 쫓파티 때 좋아해 주셨죠.

Q. 하지원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

개인적으로 하지원 씨와 오래전부터 연기를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연기도 물론 잘하지만 성실하기도 하고 좋은 배우라고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어요. 연기를 같이 하면서 느꼈던 건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동갑인데도 ‘배울 게 너무 많은 배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나 기질이 뛰어난 친구 인 것 같아요.

Q. 숙부 역을 맡은 김영호와의 호흡은 어땠나

드라마에서도 아버지 같은 숙부님으로 나오셨지만, 실제로도 더 정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정말 본받고 싶은 부분이 많은 선배님이시죠. 그리고 격투기도 잘하시고 미술도 잘하시고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Q. 인기를 실감하는지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작품의 캐릭터를 제가 한 배역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인지도가 있는 상태 때 많은 작품을 하는 것과 잘 모를 때 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Q. 만약 퓨전 사극 출연제안이 들어온다면, 그 밖에 맡고 싶은 캐릭터는

퓨전 사극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생각하는 게 수사물이나 형사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정형화 된 캐릭터가 아닌 제 스타일이 묻어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현재 드라마 <개과천선>을 촬영 중인데 앞으로의 전개를 귀띔한다면

로펌에 들어가서 극 초반부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요. 설레요. 6회까지는 한 장면 씩만 나왔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잠깐만 나오지?" 이렇게 궁금하게요. 작가님의 의도인 것 같아요.

Q. <개과천선> 출연 배우들과의 호흡은

김상중 선배님도 김영민 선배님도 워낙 연기와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제가 그사이에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요.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사진출처: bnt world, 진이한 트위터, 드라마 '기황후' 캡처)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6?svc=cafeapp>

진이한 "'개과천선' 시즌제로 나온다면? 당연히 해야죠"(인터뷰)

가을햇살~태옥♡ | 14.07.02 | 22 | [목록](#) | [댓글 0](#) | [가기](#)

MBN

입력 14.07.02 11:20

[MBN 스타 금빛나 기자] 배우 진이한이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과 이별함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시즌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진이한은 서울 압구정 소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MBN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MBC 드라마 '기황후' 종영 이후 쉴 틈 없이 '개과천선'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던 김상중, 김명민 선배와 연기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황후'에서 기황후(하지원 분)의 뒤에서 묵묵한 응원을 보내는 책사 탈탈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진이한은 '기황후'가 끝나자마자 조금의 쉴 틈도 없이 '개과천선'의 온화한 표정 뒤 야망을 감춘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으로 시청자들을 만나왔다.

맞물려 촬영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진이한은 "실제 '개과천선' 초반 촬영이랑, '기황후' 후반부 촬영과 맞물린 부분이 있었다"며 "4일 밤을 세면서 촬영을 한 뒤 충전할 시간도 없이 바로 '개과천선'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한 편으로 전력을 다해 촬영에 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개과천선'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작품이었다"고 전했다.

'개과천선'은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예정보다 일찍 막을 내린 작품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시청자들은 아쉬움을 남기며 시즌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진이한 역시 이에 대해 언급하며 "드라마 자체가 사건을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기존 드라마에서 선보였던 형식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시즌제로 나오면 더 잘 될 작품"이라며 "만약 시즌제 나오면 꼭 한번 다시 도전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세 끼 잘 챙겨먹은 것 밖에 없다. 다만 지금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라서 뭐라도 챙겨 먹어야 할 듯하다. 보약 한 채라도 지어야 할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MBC 드라마 '기황후'에서 탈탈 역으로 이름을 알린 진이한은 이후 '개과천선'에서 판사 출신의 변호사 전지원 역으로 분해 열연을 펼치며 안방극장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5?svc=cafeapp>

진이한 "하지원과 로맨스 연기하고파, 정말 매력적인 여배우"(인터뷰)

가을햇살~태옥♡|14.07.01|44 [목록](#) [댓글 1](#) [가](#)

뉴스엔

입력 14.07.01 17:57

[뉴스엔 글 황혜진 기자/사진 정유진 기자]

배우 진이한이 동료 하지원의 연기력과 배우로서의 성품을 칭찬했다.

진이한은 7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지난 4월 29일 종영한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극본 장영철 정경순/연출 한희 이성준)를 통해 호흡을 맞춘 하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극중 진이한은 고려 출신 기승냥(하지원 분)을 돕는 책사 탈탈로 분해 지적인 카리스마를 과시하며 주연 못지 않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하지원과 호흡을 맞췄을 때 정말 좋았다. 두 사람 다 개인적으로 단지 자신이 찍는 신만을 위해 연기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며 찍었다. (하)지원이도 상대 배우의 뺨을 때리는 신을 찍을 때 동선과 표정 등에 대해 상의했다. 그만큼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조언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이한은 "배우들끼리 상의를 하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원과 서로의 감정을 끌어내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덕분에 좋은 신들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이한은 "하지원과 동갑내기였던 만큼 촬영장에서 서로를 스스럼없이 대하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며 "하지원은 동료가 보기에든 정말 좋은, 매력적인 배우다. 자신의 연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배우들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여준다. 차기작이 로맨스 드라마가 된다면 꼭 한 번 하지원과 상대역으로 출연해 로맨스 연기를 펼치고 싶다. 로맨스 연기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전작들에서 로맨스 연기를 보여드리지 못 했는데 이제 오히려 그런 연기를 편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직 차기작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한 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작품성을 보고 출연을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간 게 '개과천선'이다"고 답했다.

진이한은 6월 26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중)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진이한 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전지원은 차영우웍 대표 차영우(김상중 분)의 러브콜을 받아들여 판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김석주(김명민 분)의 빈자리를 메울 차기 에이스 변호사로 활약한 인물. 전지원으로 분한 진이한은 유능하고 곧은 성품을 지난 판사에서 속물 면모를 지닌 변호사로 변화하는 캐릭터를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무리없이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진이한은 '기황후' 탈탈과 '개과천선' 전지원을 사랑해준 시청자들에게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다. 개인적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다. 앞으로도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배우로서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7?svc=cafeapp>

개과천선' 진이한 "박민영과 썸만 타다 끝나 아쉬웠지만"(인터뷰)

가을햇살~태옥♡|14.07.02|19 [목록](#) [댓글 0](#) [가](#)

뉴스엔

입력 14.07.02 14:11

[뉴스엔 글 황혜진 기자/사진 정유진 기자]

배우 진이한이 '개과천선' 속 박민영과의 러브라인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냈다.

진이한은 6월 26일 중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중)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진이한 분)으로 분해 호연을 선보였다.

극중 진이한은 유능하고 곧은 성품을 지닌 판사에서 속물 면모를 지닌 변호사로 변화하는 캐릭터를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무리없이 소화해내며 시청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진이한은 7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개과천선'을 마친 소감에 대해 "개인적으로 '개과천선'같은 장르물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좋은 선배님, 후배님, 감독님, 작가님, 그외 스태프 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 좋았다"며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게 해준 좋은 작품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개과천선'은 흠 잡을 데 없는 명품 법정 드라마라는 호평을 얻으며 막을 내렸다. 그간 '개과천선'에서는 기름 유출사고, 키코 사태 등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 등에 기반한 스토리가 펼쳐져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그만큼 대다수 배우들의 대사도 상대적으로 암기가 어려운 법정 용어로 이뤄져 있었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아무래도 법정 드라마다보니 절반이 넘는 대사가 법정용어였다. '개과천선' 출연을 확정하고 대본을 받은 뒤 자다가 툭 건들면 대사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숙지하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환경상 배우들이 대본을 외우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 했다. 그런 부분이 배우로서 많이 속상했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진이한은 '개과천선' 초반 차영우편 소속 인턴 이지윤(박민영 분)과 러브라인을 그리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극중 이지윤은 동네 주민인 전지원과 여러 차례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되며 그를 짝사랑하는 연기로 극에 흥미를 더했다. 그러나 극이 전개되며 두 사람의 러브라인은 점차 실종됐다. 진이한은 "주변에서 '박민영과 썸만 타다 끝났냐'고 하더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러브라인이 점차 사라져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법정 드라마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설득력 있게 풀려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개과천선'을 통해 대중의 뇌리에 진이한이란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키고 배우로서 한 단계 발돋움한 진이한은 현재 차기작을 검토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진이한은 배우로서의 최종 목표에 대해 "늘 아버지께 '항상 겸손함을 잊지 말아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배우이기 전에 인간적인 사람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배우란 직업도 다른 직업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늘 겸손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평생 배우며 연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8?svc=cafeapp>

'기황후' 진이한 "원래 하지원과 러브라인 있었지만 사라져"(인터뷰)

가을햇살~태욱♡|14.07.03|25 [목록댓글 0](#) [가가](#)

배우 진이한이 '기황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진이한은 지난 4월 29일 중영한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극본 장영철 정경순/연출 한희 이성준)에서 고려 출신 원나라 황후 기승냥(하지원 분)을 돕는 책사 탈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탈탈로 분한 진이한은 혈육을 고집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따르는 소신있는 행보를 보이는 캐릭터를 무리없이 표현, 주연 못지 않은 존재감을 드러내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진이한은 7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탈탈이란 극중 인물에 대해 "초반에는 대사가 별로 없었다. 워낙 연기를 잘하는 쟁쟁한 배우 분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다보니 비중도 적었다. 초반에는 '숙부님, 뭔가 이상합니다' 등의 짧은 대사만 했다"며 "20 회가 지난 뒤 중후반부터 점점 비중이 커졌는데 사실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작가님을 통해 탈탈의 활약에 대해 미리 듣고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라 작가님을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탈탈로 연기하며 나름대로 제 캐릭터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연기했어요. 연기를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면들을 작가님들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드라마 후반부에 작가님이 '미안하다. 잘 기다려줬다. 탈탈이란 캐릭터 덕분에 글쓰는 재미가 더 생기고 힘이 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감동적이었죠. 탈탈을 좋게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해요. 또 '기황후'에서 멋진 연출을 보여주신 한희 감독님과는 2012년 MBC 드라마 '닥터진'을 통해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는데 호흡도 좋았고 덕분에 더 좋은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출연진, 제작진과 함께한 덕분에 다소 호흡이 길었던 '기황후'를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찍을 수 있었어요. 배우와 스태프 누구도 빠짐없이 친해졌고 전체적인 조화도 좋았죠."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브라운관을 통해 빛을 보지 못 했던 '기황후' 속 러브라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놉시스에는 탈탈과 기승냥을 둘러싼 러브라인도 존재했다는 것. 진이한은 "원래는 탈탈과 기승냥이 스승과 제자 사이"라며 "탈탈은 기승냥 앞에서 절대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않고 그저 마음 속으로 혼자 좋아하는 역할이었다. 그렇게 가려다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를 한 끝에 러브라인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탈탈과 기승냥의 러브라인은 사라지게 됐다. 또 기승냥을 짝사랑하며 가슴앓이를 하는 모습보다는 대의를 위해 숙부를 죽이는 등 끝까지 멋있는 캐릭터로 남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작가님의 판단 하에 지금의 탈탈이 탄생됐다. 당시 작가님의 현명한 결정 덕분에 탈탈이란 캐릭터의 존재감이 더 살아나 시청자 분들도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초반의 탈탈은 정말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해야하는 캐릭터였어요. 눈빛으로 걱정하는 모습, 의심하는 표정 등을 연기해야하다보니 쉽지 않았죠. 중반쯤에 기승냥이 채찍을 맞는 신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탈탈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신이 있었어요. 채찍을 맞는 기승냥을

쳐다보며 탈탈이 뒤늦게 나가는 장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탈탈이 기승냥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남자로서 좋아하는 한 여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을 보여주고 나왔어요. 시간이 흐른 뒤 탈탈과 기승냥의 러브라인이 없어지는 걸로 결정돼 기승냥과 함께 찍는 신에서는 단지 스승이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만 보여주는데 집중했어요."

진이한은 '기황후'에 이어 6월 26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중)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진이한 분)으로 분해 호연을 선보였다. '기황후' 탈탈에 이어 '개과천선' 전지원 역으로 활약한 그는 최근 시청자들로부터 '뇌가 섹시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라는 애칭을 얻었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탈탈과 전지원 모두 머리가 좋은 캐릭터라 그런 애칭으로 불리게 된 것 같다. 그런 이미지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기보다 생각도 못 했던 좋은 이미지로 봐주시는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할 뿐이다"고 밝히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사실 지금은 그런 이미지인 지 몰라도 2011년 MBC 드라마 '애정만만세'에서는 배우 이보영의 전 남편인 한정수 역을 맡아 사고뭉치 캐릭터를 연기했어요. 최근 인터넷을 하다 한 포털사이트 댓글을 우연히 재밌는 댓글을 발견했어요. '애정만만세 때는 그렇게 짜질해 풀보기 싫더니 탈탈이 바로 그 진이한이었냐'라는 내용의 댓글이었죠. 댓글을 보고 많이 웃었어요. 배우에게 배역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애정만만세'도 당시 정말 즐겁게 촬영한 작품이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속 좋은 캐릭터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9?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19?svc=cafeapp>

진이한 "하지원과 연애? 친구사이..괜히 미안하다"

가을햇살~태욱♡ | 14.07.03 | 34 | 목 | 14.07.03 12:50

[TV 리포트=손효정 기자] 배우 진이한이 '하지원 연애'라는 연관 검색어에 대해 "동갑 친구 사이"라고 해명했다.

진이한은 지난 2일 TV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포털사이트에 '진이한 하지원 연애' 검색어가 뜨는 것에 대해 "나도 놀랐다. 왜 그렇게 뜨는지 모르겠다"면서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이한과 하지원은 MBC 월화특별기획 '기황후'에서 각각 책사 탈탈과 기승냥 역을 맡았다. 극 중 두 사람은 사제관계였지만, 남다른 케미스트리(화학반응)를 자랑해 많은 시청자로부터 커플 지지를 받았다. 이날 진이한은 "(하)지원이와는 동갑이라서 친구다. 현장에서 친구여서 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둘이 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신 것 같다"면서 "지금은 가끔 카톡하면서 안부만 묻는 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좋은 친구다"라고 강조하면서 "괜히 나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지원이한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이한은 MBC 드라마 '기황후'의 탈탈 역에 이어 '개과천선'에서 냉철한 변호사 전지원 역을 맡아 연기했다. 그는 많은 여성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대세 배우'로 수직 상승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0?svc=cafeapp>

진이한 "개과천선, 배우로서 스스로 반성케한 작품"[포토엔]

가을햇살~태욱♡|14.07.03|20 [목록댓글 0](#) [가가](#)

뉴스엔

입력 14.07.03 14:05

[뉴스엔 글 황혜진 기자/사진 정유진 기자]

배우 진이한이 최근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했다.

진이한은 6월 26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중)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진이한 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진이한은 7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개과천선'이란 작품을 마친 소감에 대해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다. 전작이었던 MBC '기황후'를 끝내고 바로 '개과천선' 촬영에 돌입했다. 10개월, 11개월 정도 쉬지 않고 계속 연기를 해왔기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막상 끝나고 이틀 정도 쉬니까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 운을 뗐다.

'개과천선'은 말 그대로 법정 드라마였다. 러브라인이 아닌 변호사들 간의 권력 다툼, 어두운 권력의 이면, 그 속에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변호사들의 고군분투를 그리며 흥미를 더했다. 진이한뿐 아니라 김명민, 김상중, 김서형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단연 '개과천선'의 백미로 꼽힌다.

진이한은 "워낙 함께 연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선배님들이었다. 작품 속에서 호흡을 맞추며 느낀 감정은 들어가기 전 상상했던 선배님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정말 똑같았다. 카리스마 있는 눈빛 등 연기하는데 있어 배울 점이 정말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진이한은 '개과천선' 초반 차영우팀 소속 인턴 이지윤(박민영 분)과 러브라인을 그리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극중 이지윤은 동네 주민인 전지원과 여러 차례 우연한 만나게 되며 그를 짝사랑하는 연기로 극에 흥미를 더했다. 그러나 극이 전개되며 두 사람의 러브라인은 점차 실종됐다. 진이한은 "주변에서 '박민영과 썸만 타다 끝났냐'고 하더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러브라인이 점차 사라져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법정 드라마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설득력 있게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개과천선'은 김석주가 갑작스레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고 속물 면모를 벗고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담았다. 김명민은 극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스토리를 이끌어갔지만 촬영 중 역류성 식도염과 골반염에 걸려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소속사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어떻게 보면 김명민 형이 주연으로서 이야기를 앞장서 스토리를 끌고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법정 드라마다 보니 대사 하나하나도 일상생활의 그것과는 거리가 먼 전문용어였다. 김명민 형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보였다.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의 입장에서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프로답게 연기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김명민은 명품 배우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다. 정말 대단했다. 정말 본받고 싶은 면이다"고 말했다.

진이한에게 '개과천선'은 배우로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이 된 작품이었다. 진이한은 "앞으로 수많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연기하겠지만 '개과천선'을 통해 스스로 느낀 바는 늘 마음속에 간직한 채 갈 것 같다. 배우로서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다. 스스로 부족한 점도 많이 느꼈고 반성도 여러 번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는,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연기를 하는 인간적인 배우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3?svc=cafeapp>

진이한이 말하는 하지원과 김명민 "연기력도 최고지만"

가을햇살~태욱♡|14.07.03|24 목록댓글 3가

조이뉴스 24

입력 14.07.03 15:53

< 조이뉴스 24 >

[이미영기자] 하지원과 김명민, 김상중. 연기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배우들로, 독보적 존재감을 갖고 있다. 진이한은 '기황후'와 '개과천선'에서 이들 배우들과 함께 호흡했다. 진이한의 눈에 비친 이들은 어땠을까.

진이한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조이뉴스 24와의 인터뷰에서 하지원과 김명민, 김상중과 연기한 소감을 전했다.

진이한은 '기황후'에서는 탈탈 역을 맡아 기승냥(하지원 분)과는 스승과 제자 이상의 케미를 선보였다. '개과천선'에서는 냉철한 변호사 전지원 역을 맡아 김명민, 김상중과 호흡했다. 두 작품을 연달아 하며 부지런히 달려온 진이한은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했다"고 말했다.

진이한은 "하지원과 김명민, 김상중의 공통점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배우들이다.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연기도 연기지만 사람 냄새 나는 인간적인 배우들, 좋은 배우들이다"고 말했다.

진이한은 이어 "하지원은 상대 배우를 많이 배려하는 배우다. 현장에서 편하게 해준다. 김명민은 옆집 형 같다. 남들이 보면 철저한 배우, 완벽한

배우라고 하는데 배우라면 그런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 같다. 기본적인 인성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진이한은 또 "김상중 선배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존경심을 드러냈다. 그는 "(김상중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다. 중후함에서 나오는 남자의 매력이 있다. 정말 멋있는 배우다. 선배님의 나이가 되면 그렇게 살고 싶다"고 치켜세웠다.

진이한은 "저와 김상중, 김명민 선배님 모두 알고보니 광산 김씨였다. 특히 김상중 선배님과는 항렬도 같았다. 그래서인지 더 많이 챙겨주셨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다.

진이한은 "하지원, 김상중, 김명민 선배님 모두 현장에서 분위기를 많이 풀어줬다. 긴장도 했는데 장난도 많이 치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다. 연기적인 부분에서도 워낙 배울 점이 많았지만, 인간적이라 더 잘 따르게 됐다. 저도 제 후배들에게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진이한은 '기황후'와 '개과천선'을 하며 일명 '연기 포텐'을 터트리며 인기를 얻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 '연기의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다'는 댓글을 보고 뿌듯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과천선' 끝난 후 일주일 쉬었는데 3일이 지나고부터 노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웃으며 "다양한 작품을 보고 있다. 좋은 작품, 좋은 캐릭터를 찾고 있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0?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3?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4?svc=cafeapp>

진이한 "'기황후'는 인생작, '개과천선'은 아쉬운 작품"(인터뷰)
14.07.04 09:16"'기황후'는 인생의 작품으로, '개과천선'은 아쉬운 작품으로 남을 것 같아요."

11 개월 동안 촬영장을 떠나지 않으며 두 편의 드라마를 끝낸 배우

진이한(36)을 만났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오후 만난 그는, 조금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해 보였다.

지난해 방송된 51부작 드라마 MBC '기황후'를 끝낸 그는, 쉬지 않고 이어서 MBC '개과천선'에 출연했다. 진이한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거의 11개월 동안 드라마를 촬영했어요. 쉬지 않고 드라마를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한 작품이 끝난 뒤 체력을 충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앞서 출연했던 '기황후'에서 진이한이 맡았던 탈탈은 역사 속 실존 인물을 모티프로 재창조 된 인물. 진이한은 드라마 촬영 전 탈탈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의 일대기 등을 찾아보며 캐릭터를 연구했다.

"개인적으로 '기황후'는 저의 인생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배우가 평생 연기하면서 이런 역할을 맡을 기회는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좋은 역할이었어요. 탈탈은 작가님과 캐릭터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중반부터 출연 분량이 많아서 초반에는 시간이 좀 있었죠. 그 시간에 캐릭터 연구를 많이 하고 작가님과 통화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드라마 중반부터 완전히 몰입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탈탈이었으니까요."

탈탈은 묵직하면서 말없이 지켜주는 흑기사 같은 인물이었다. 그래서일까? 탈탈은 주인공 타환(지창욱 분)과 왕유(주진모 분) 못지않게 여성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진이한은 진중한 표정과 깊이 있는 모습으로 탈탈을 완벽히 표현해 내며 사랑받았다.

"탈탈 역할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말만 들었지, 사실 저는 실감을 못했거든요. 한번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는데 팬들의 반응을 보고 실감했어요. 극중 기승냥(하지원 분)과 탈탈을 응원하는 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지원씨와 지창욱씨는 드라마 초반부터 치고 박고 싸우면서 멜레야 뭘 수 없는 케미를 풍겼죠. 저와 하지원씨 같은 경우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풍겨지는 미묘한 눈빛, 감정, 약간 선을 둔 애뜻함 등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기황후'를 끝낸 진이한은 쉬지 않고 곧바로 '개과천선'에 출연했다. 극중 전지원 판사 역을 맡은 진이한은 극 후반부 변호사로 변신해 주인공

김석주(김명민 분)와 대립했다. 진이한은 당초 '기황후'를 끝낸 뒤 시간을 가지고 쉴 생각이었으나, 작품에 대한 욕심으로 바로 후속작 촬영에 들어갔다.

"'개과천선'은 배우라면 누구나 욕심 낼 작품이었어요. 특히 작품 속 선배 배우들 역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고요. 김상중 선배, 김명민 선배와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들 것을 알면서도 선뜻 출연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참 아쉽게 됐어요."

당초 18부로 기획된 '개과천선'은 잦은 결방에 따른 촬영 연기, 시간에 쫓기는 촬영 스케줄 등의 문제로 2회가 축소돼 16회로 종영했다. 방송 내내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갑작스런 드라마 종영으로, 결말은 허무하게 마무리 됐다. 이는 '개과천선'의 애청자들에게 아쉬운 결말이었고, 출연하는 배우들에게는 뼈아픈 마무리였다.

"'개과천선' 작가님이 전지원 역할을 입체적으로 그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원래 좀 더 일찍 등장해서 개인사도 넣고, 세부 이야기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드라마가 장르물이고, 사건을 다루는 법정 드라마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묻힌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드라마는 시즌제로 가야한다고.(웃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개과천선'은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많이 아쉬운 작품이기도 해요."

스물아홉, 늦은 나이에 연기를 시작한 진이한은 30대 중반 어느 정도 배우로서의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했다. 그는 아직 스스로를 배우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말했다.

"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부족해서 배울 것도 많고 노력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를 하자면 '정말 고생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배우일을 직업으로 하다보면 공백기도 생기고 걱정될 때도 있죠. 하지만 저는 초조함은 버린 지 오래됐어요. 하루 이틀 연기해서 반짝 스타가 되고 싶어서 이 직업 택한 것도 아니고 평생 하고 싶은 만큼, 현실에 주어진 역할이나 작품이나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어요."

연달아 두 작품을 끝낸 진이한은 당분간 휴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오래 쉬지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국내여행을 다녀왔다가 곧 차기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5?svc=cafeapp>

진이한, 탈탈의 이상형은? "매력적이고 현명한 여자"

가을햇살~태욱♡ | 14.07.04 | 51 | [목록](#) | [댓글 2](#) | [가기](#)

스타뉴스

입력 14.07.04 09:16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과묵하면서도 다정하고, 똑똑하면서도 강한 남자 탈탈의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

지난 2일 오후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와 수목드라마 '개과천선'을 끝낸 배우 진이한(36)을 만났다. 진이한은 '기황후'에서 과묵하면서도 듩직한 탈탈 역할을 맡아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디테일한 연기와 중후한 목소리 톤으로 자신이 맡은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극찬을 받았다.

배우 진이한 / 사진=이기범 기자

탈탈이 사랑 받으면 진이한의 이상형을 궁금해 하는 여성팬들이 많이 생겼다. 그는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진이한은 이상형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질문에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고 생각도 안 해봤다"며 "대화가 통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이한은 "본인에게 현명한 사람이 좋다"며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과천선'을 끝낸 진이한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차기작을 검토 할 예정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6?svc=cafeapp>

'조교 출신' 진이한 "'진짜사나이' 출연하면 잘 할 것 같다"

가을햇살~태옥♡|14.07.04|36 [목록댓글 4](#) [가](#)

TV 리포트

입력 14.07.04 17:38

[TV 리포트=손효정 기자] '조교 출신' 배우 진이한이 MBC '일밤-진짜사나이' 출연에 대해 언급했다.

진이한은 지난 2일 TV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조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일밤-진짜사나이' 출연 의사를 밝혔다.

진이한은 신병교육대 조교 출신으로 군필 예능 KBS 2 '명 받았습시다'에도 출연한 바 있다.

그는 '상상이 안 된다'는 기자의 말에 즉석에서 조교 시범을 보이며, 낮은 목소리의 무게감 있는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이어 '진짜사나이' 출연은 어떠냐고 묻자 "원래 TV 자체를 잘 보지 않는다. '진짜사나이'는 채널을 돌리다가 몇 번 본 적이 있다"면서 "재밌게 봤다. '내가 출연하면 잘 하겠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나는 항상 열려있다"고 밝히며 "(김)구라 형이 계신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예전에 출연 제의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나가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진이한은 MBC 드라마 '기황후'의 탈탈 역에 이어 '개과천선'에서 냉철한 변호사 전지원 역을 맡아 연기했다. 그는 많은 여성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대세 배우'로 수직 상승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7?svc=cafeapp>

진이한, 뇌가 섹시한 대세 배우 되기까지 [인터뷰]

가을햇살~태옥♡|14.07.05|41 [목록댓글 0](#) [가](#)

OSEN

입력 14.07.05 08:05

[OSEN=표재민 기자] 배우 진이한(36, 김현중)의 연기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해 말부터 불과 며칠 전까지 고된 드라마 촬영, 그것도 연속해서 2편이나 참여했지만 여전히 연기에 대한 갈망이 컸다. 30대 농익은 남자의 매력을 뽐내며 '뇌가 섹시한 대세 배우'가 된 진이한과 수다는 달달했고 친근했다.

진이한은 MBC '기황후'에서 기승냥(하지원 분)을 보필했던 책사 탈탈 역으로 지성미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뽐냈다. 어딜 가나 탈탈이 멋있다는 여자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진이한의 재발견'이었다. 이후 그는 곧이어 '개과천선'에서 성공을 위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는 전지원 역을 맡아 김석주 역의 김명민과 대립각을 세웠다.

연이어 지적인 역할을 연기하며 그가 대중에게 각인시킨 것은 자신의 매력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배역의 구분이 없다는 것. '애정만만세'에서 욱하면서 정이 들었던 지질한 한정수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였다는 것을 연기라는 정공법으로 보여줬다.

"'애정만만세' 지질이 재야?, 라는 반응을 보며 뿌듯했어요. 사실 제가 '애정만만세' 때 주성우 감독님이 악역을 즐기자고 조언을 해주셔서 즐기면서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연기에 몰입하다보니 어느 순간 시청자들이 저를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한정수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쓰레기'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조금 과장되게 연기를 하다 보니 시청자들이 좋아해주셔서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웃음)"

실제로 만난 진이한은 눈빛으로 극과 극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남자였다. 섹시하고 남성적인 눈빛 뒤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느낌도 있었다. 눈빛을 보다가 무시무시한 악역을 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다는 농담을 건네자 그는 다시금 달달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렇죠? 제가 사이코패스 연기를 하면 사람들이 진짜 사이코패스로 볼 것 같아 두려워요.(웃음)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진짜 센 역할을 연기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진이한은 캐릭터 분석과 몰입이 뛰어난 배우다. 그가 '애정만만세'에서 주부들의 욕을 한 바가지로 먹는 한정수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기황후'와 '개과천선'에서 뇌가 섹시한 남자로 사랑받았던 것도 어느 한 배역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몰입하는 배우로서의 장기를 유감 없이 발휘할 줄 아는 영민한 연기 덕이다.

탈탈은 초반 비중이 크지 않았다가 후반 들어 승냥이 황후가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조력을 했다. 특히 숙부이자 권력욕에 미친 백안(김영호 분)을 죽이고 승냥이 목숨을 살리는 대목은 진이한의 묵직한 연기가 더해지며 '기황후'의 명장면으로 꼽혔다. 대의를 위해 혈육을 죽이는 남자의 뜨거운 눈물은 안방극장을 전율하게 했다. 그런데 진이한은 이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 드라마 초반부터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 탈탈이라는 인물에 감정을 넣어 연기했다. 이 한 장면을 위해 탈탈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드라마 내내 신경을 썼다. 그렇게 진이한은 섬세한 배우다.

"사실 드라마 중반에는 눈빛과 대사 한 마디가 탈탈의 역할이었어요. 대사는 적었지만 감정을 차곡차곡 쌓았죠.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셔서 탈탈이 백안을 죽이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숙부를 죽이는 마음이 어떨지 고민을 하며 연기를 했죠. 비극을 항상 염두했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진이한은 '기황후' 전까지 상당히 큰 비중의 배역을 연기했기에 대사 한마디 나오지 않은 날도 있었던 '기황후'를 버티는 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

"작가님이 제가 비중이 없는데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비중이 없는 것에 미안해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죠. 드라마가 끝나고 작가님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잘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몽클했어요. 전 비중과 관계 없이 탈탈을 연기하는 게 행복했거든요. 탈탈은 작가님이 써주시는 대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역할이에요. 대사나 지문에 없는 부분도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배우로서 폭 넓은 연기를 할 수 있었죠."

진이한은 배우로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준 장영철, 정경순 작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

"'기황후' 대본을 보는데 정말 만화책을 보는 것처럼 매회 재밌었어요. 50부작인데 매회 재밌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인물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님들이 제가 '개과천선'에 출연하는 동안에도 조언을 해주셨어요.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죠. 탈탈이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또 언제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죠."

진이한은 '개과천선'에서 '기황후'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전지원을 연기하며 김상중, 김명민 등 내로라하는 선배 배우들의 연기 경연의 장에서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개과천선'은 법정 드라마로서 따뜻한 인간애와 냉철한 현실 직시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다만 잦은 결방 등의 이유로 배우 일정 조정이 어려워지면서 2회 조기 종영됐고,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다소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김상중, 김명민 선배와 언제 또 연기를 해보겠나 싶어서 '개과천선'에 출연하게 됐어요. 두 배우와 함께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니까요. 촬영 여건상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연기를 할 수 없었어요. 더욱이 법정 장면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연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배우로서 아쉬웠죠."

극이 급하게 마무리되면서 전지원과 김석주의 대립이 극렬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전지원은 성공을 위해 판사의 자리를 내던지고 차영우 편에 들어와 김석주의 빈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차영우 편이 전방위적인 권력을 눈앞에서 지켜본 전지원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미처 풀지 못한, 드라마에는 나오지 못한, 그리고 진이한이 바라는 전지원의 이야기는 어떨까. 물론 상상이다.

"제가 김석주와 법정 대결에서 승소를 하고 넥타이를 푸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저는 전지원의 갈등을 표현한 거거든요. 전지원은 알고 보니 차영우 편이 꼭두각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논리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차영우 편이 권력에 기대서 이긴 것을 알게 된 후 전지원이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전지원은 차영우 편을 박차고 나왔을 것 같아요. 김석주와 마찬가지로 같은 고민을 하고 후학양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웃음)"

진이한은 연달아 출연한 드라마로 인해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가열차게 달려온 만큼 쉬어도 될 텐데 연기를 쉬지 않겠다는 생각이 크다.

"갑자기 쉬니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웃음) 하루 이틀 쉬고 나니 다시 연기를 하고 싶어요. 배우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일인데, 그래도 쉬면 왠지 정지된 느낌이 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연기를 하고 현장에 있는 게 살아 있는 느낌이 들죠. 배우로서 보여줘야 할 게,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더 많은 연기를 해서 무게감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8?svc=cafeapp>

진이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인터뷰)

기사입력 2014-07-07 09:02:27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지난해 가을부터 올 여름까지 안방극장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물들였던 배우 진이한은 누구보다 바빴고 누구보다 빛났다.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극본 장영철 정경순, 연출 한희 이성준)와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 연출 박재범 오현종)에 연달아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던 진이한을 최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기황후'가 끝나자마자 '개과천선'에 합류했죠.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개과천선'의 제작발표회 때는 농담이 아니라 뒷머리 가발만 떼고 참석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웃음)"

앞서 출연한 '기황후'는 진이한 이름 석자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충분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다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방송을 시작한지 7년 만에 진이한은 빛을 받았다. 탈탈은 어찌면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간절한 '기회'였다.

"'기황후' 초반에는 대사가 두 마디였어요. 작가님도, 감독님도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분량에 상관없이 없었어요. 어차피 중후반부에 제 이야기가 시작될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긴 작품에 대한 장점은 초반에 제가 스스로 캐릭터를 쌓아가는 거죠. 이후 기승냥(하지원 분)과 붙어서 장면을 하는데, 처음 입을 여는 듯 한 기분이었어요"

진이한의 말처럼 '기황후'가 중반부를 넘어가자 탈탈에게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탈탈의 부드러운 눈빛과 진중한 모습은 순식간에 극의 주요인물로 떠올랐다. 또 주인공 타환(지창욱 분)과 왕유(주진모 분)와 함께 기황후의 남자로 주목도 받았다. 황후로 올라서려는 기승냥의 옆에서 스승으로 혹은 남자로 조력해주는 탈탈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실은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제가 승냥이를 좋아하게 돼요. 철저하게 아닌 척 하면서 좋아하고, 몰래 뒤에서 도와주고 승냥이의 말 한마디에 뒤돌아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대놓고 러브라인이 나오면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작가님이 '탈탈은 멋진 캐릭터니까 대의를 위해 조금 다르게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죠. 그 때부터 승냥이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제자를 바라보는 눈길로 연기를 했어요. 시청자들은 그 아슬아슬한(?) 관계를 좋아해주신 것 같아요.(웃음)"

진이한은 특히나 '기황후'에 온 힘을 쏟아 부었다. 드라마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작가들과의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한 건 말 할 것도 없었다. 그 스스로 "작가들은 극 초반부터 몇 시간이고 캐릭터에 대해 이해를 시켜줬다. 이후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더라"라며 "나에게 '모래시계'의 이정재 선배처럼 그런 느낌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작가들이 진이한의 진면목을 알아본 셈이다. 또 함께 호흡하는 상대 배우들과의 궁합도 좋았다.

"(하)지원이는 배우로서 정말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이죠. 상대 배우를 편하게 해주다 보니 함께 할 때 집중력도 좋아져요. 다른 작품에서 이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서로 잘 호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창욱이와 (주)진모형과도 친해요. '기황후'를 끝내고 제가 바로 '개과천선'의 촬영을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바쁜 걸 아니까 다들 조금 기다려주고 있죠. 이제 다들 뭉쳐서 술 한 잔하며 회포를 풀어야죠.(웃음)"

이렇게 애정을 쏟은 '기황후'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진이한이 휴식기를 가질 거라 생각했다. 때문에 '기황후'가 막바지로 향할 무렵 '개과천선'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잠시 그가 철인으로 변한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예전에는 제 배역, 제 역할을 가장 많이 봤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큰 줄기 안에서 작품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과천선'을 선택했죠. 솔직히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들도 나오고 장르물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도전 정신이

생기더라구요. '개과천선'을 하면서 배우로서 좋은 걸 얻고 나간 기분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진이한이 참여한 '개과천선'은 여러 가지 방송 상황을 이유로 예정된 18 회 대신 16 회로 조기 종영했다. 장르물의 신선한 도전이라는 평가와는 별개로 급하게 마무리된 결말과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들은 시청자는 물론 배우에게도 아쉬움을 안겼다. 하지만 그는 되려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거듭 애정을 드러냈다.

대학로 무대 위에서 연기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텨온 그가 스물아홉 늦은 나이에 방송을 시작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많겠다"며 농을 치자 짐짓 진지한 눈빛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한다"는 부드러운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그의 조심스러운 "어떤 상황에서는 조심해야하는 행동들이 있는 것 같다"며 '개과천선' 속 전지원 판사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언성이 살짝 높아졌었어요. 제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가해자가 '이한씨 아니에요? 맞네, 맞네'라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에 알던 지인인 줄 알았죠. 그런데 '드라마 잘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리비요? 쌍방과실인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웃음)"

진이한은 당분간 차기작을 준비하며 휴식을 가질 예정이다. 팬들을 대신해 아쉬운 마음을 전하자 다정한 눈빛으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예고했다.

"드라마도, 영화도, 무대도 구분 짓지 않고 많이 하고 싶어요. 다 똑같잖아요. 보여지는 상황이나 환경은 다르지만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다 하고 싶어요.(웃음)"

인터뷰를 마치며 카페를 나섰을 때 벅찬 뿌듯함이 올라왔다. 이어 "최선을 다한 후엔 그로써 만족해야 하는 것, 달리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진이한의 드라마 데뷔작 '한성별곡-정'의 대사가 생각났다. 이렇게 '배우 진이한'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은 이유가 명백해졌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0?svc=cafeapp>

[인터뷰] 진이한, 조용히 쌓아올린 이 남자의 내공

가을햇살~태옥♡|14.07.08|47 [목록댓글 3](#)가

한국경제 TV|한국경제

입력 14.07.07 17:34 (수정 14.07.07 17:34)

진이한(37·본명 김현중)은 MBC '기황후'와 '개과천선'을 통해 무게감 있는 일약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로써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는 진이한이라는 배우가 주는 신뢰가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이한의 이러한 성공가도는 우연이 아니었다. 뮤지컬 무대, 많은 단역과 조연, 그리고 주연급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쌓아올린 내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영민하리만치 자신의 길을 잘 닦아온 진이한의 연기 인생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 진이한 "'개과천선' 한 24 부작 해야 하지 않을까?"

진이한은 '개과천선'을 아쉬움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했다. 걸출한 연출부와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까지 이른바 3 합을 완성시키며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던 '개과천선'은 결방으로 인해 2 회 조기종영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 50 부작 긴 호흡의 '기황후' 이후 쉴 틈 없이 '개과천선'에 합류할 정도로 작품에 대한 애정이 넘쳤던 진이한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쉬운 순간이었다.

진이한은 "'개과천선' 종파티 때도 작가님이 전지원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라. 시놉시스에 있었던 설정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당초 6 부부터 등장할 분량인데 12 부부터 나오게 됐다. 전엔 존재감이 없다가 갑자기 등장하니 시청자들도 어리둥절했을 거다. 그런 것들이 아쉬웠는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 사건들을 다루다보니 그 안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다가는 산만할 수도 있는 거다. 작가님이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이한의 말대로 굵직한 사건들과 김석주(김명민 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개과천선'은 벽차보였다. 회차에 대한 아쉬움을 묻자 진이한은 "한 24 부작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며 웃었다. 아쉬움은 많았지만 배운 점도 많았다. 진이한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다. 오히려 내 단점도 알게 됐다. '개과천선'으로 인해 한층 더 좋은 배우로 거듭날 수 있던 기회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 진이한의 터닝 포인트에는 항상 사극이 있었다?

진이한에게 잊을 수 없는 사극 두 편이 있다. 그의 데뷔작이자, 다시

배우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던 '한성별곡'(2007)과 30%대를 웃도는 높은 시청률로 그를 대세반열에 올려놓은 '기황후'(2013)가 그 주인공이다. 특히 하지원의 제 3의 남자라고 불릴 만큼 후반부에 큰 비중과 존재감을 보였던 '기황후' 속 탈탈을 진이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진이한은 "원래 중후반에 비중이 커지는 것은 알고 있었고 숙부인 백안(김영호 분)을 죽이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원래 보다는 작가님이 무게를 많이 실어준 것 같다. 정경순 작가님의 경우, 가닥이 잡히지 않을 때 전화하면 바쁜 와중에도 1시간 썩 통화를 해준다. 한희 감독님은 '닥터진' 때 인연으로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다. 그러다보니 나 또한 캐릭터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내 나름대로의 애드리브도 반영할 수 있었다. 그걸 또 적절히 사용해주셔서 좋았다. 고마웠던 기억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진이한에게는곽정환 감독의 '한성별곡'도 참 의미 깊은 작품이었다.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섰다가 29세 당시, 개인적인 사정과 고민으로 연기를 잠시 그만뒀던 진이한은 연기에 대한 갈망 하나로 다시 드라마 판으로 뛰어들었다. 당초 '한성별곡'의 작은 배역 오디션을 위해 곽감독을 만났던 진이한은 당시 이것저것 즉흥 연기를 시키는 곽감독을 의아하게 여겼다고. 그러나 이내 진이한은 '한성별곡'의 주인공으로 낙점되고 다시 한 번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진이한은 벽찬 얼굴로 그때를 떠올리며 "너무 놀랐다. 곽정환 감독의 말이 그때의 극중 박상규가 나와 비슷하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놈이라면 박상규를 표현할 수 있겠다. 너무 비슷하다'고 했었다. 그래서 신인임에도 과감히 기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곽감독이 느꼈던 배우 진이한의 절박함은 '한성별곡'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드라마 현장 분위기 원리 등 아무것도 몰랐다. 지금이라면 박상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많이 어색했다. 상투가 들리든, 구레나룻이 떠 있든 고춧가루가 끼든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신선하게 봐주셨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외모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지만 캐릭터를 찾아가는 순수한 마음만큼은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곽정환 감독도 한희 감독도 내겐 전환점을 열어준 감독이다. 사극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 무겁고 진중하다고? 진짜 진이한을 벗겨라

2007년 '한성별곡' 이후 쉬지 않고 꾸준히 활동해온 진이한은 "1~2년 해서 반짝 스타가 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평생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활동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다. 작품성이 있고 느낌이 좋은 작품을 선택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연기에 대한 갈망이 큰 배우이니만큼 배역에 대한 욕심도 컸다.

'한성별곡', '몽땅 내 사랑', '기황후' 등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 온 진이한에게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악역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넌지시 묻자 진이한은 "본래의 내 모습은 진지하다. 그러나 진지함 속에서 간혹 웃음코드가 있다. 그런데 그런 편안한 모습들을 공중과 드라마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다. 사실 완벽한 악역을 맡는다면 다들 날 너무 무서워할 것 같다"며 손사래를 쳤다. 학교 후배들 또한 '안 받아줄 것 같다'고 인사를 기피했을 정도라고. 이에 진이한은 '몽땅 내 사랑'에서 같은 밝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황후', '개과천선'으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진이한은 개인적인 시간과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충전 뒤에는 다시 시청자들이 믿고 보는 배우 진이한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시청자들에게는 계속 믿음이 가는 배우로 남아있고 싶다.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다.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믿고 보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2?svc=cafeapp>

""[인터뷰] '착한 키다리 아저씨' 전문 배우 진이한 "조기종영, 아쉬움이 크죠"

이한지키미혜선|14.07.09|58 [목록](#)[댓글](#) [3](#) [가](#)[가](#)

[""기황후' '개과천선', 짝사랑만 하다 끝났네"](#)

[\[인터뷰\] '착한 키다리 아저씨' 전문 배우 진이한 "조기종영, 아쉬움이 크죠"](#)

14.07.09 08:48| 최종 업데이트 14.07.09 08:55|

|오마이스타 ■취재/이선필 기자·사진/이정민 기자|<기황후>에 이어 곧바로 <개과천선>까지 근 10개월간 진이한은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달려다.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시청자들과 만난 그는 유독 '착한 키다리 아저씨'로 분해 주인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왔다.

<개과천선> 종영 직후 만난 진이한은 "체력적으로 분명 한계가 온 건 맞는데 끝나고 쉬니까 막상 힘들어도 촬영장에서 힘든 게 마음

편하다"면서 "배우는 자기가 있을 곳에 있어야 하는 법"이란다.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경험하며 연기의 소중함을 알았던 터라 '곧 죽어도 현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쉬움도 하나의 배움..."하지원씨에게는 미안해"

법정 드라마 <개과천선>이 조기 종영을 하며 예상보다 덜한 반응을 얻었고, 이에 따라 그가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의 역할도 다소 줄어들기에 아쉬움이 컸을 법했다. 진이한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크다. 이런 작품은 시즌제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면서 "극 중 이지윤(박민영 분)을 마음에 품던 지원의 감정이나 주변 관계가 조금만 더 드러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기 종영의 배경은 자세히 모르지만 스태프나 배우 입장에선 타격이죠. 준비한 게 많았고 해야 할 것도 많았는데! 김명민 선배, 김상중 선배와도 호흡하고 싶었는데 설정상 거의 현장에서 마주친 적이 없어요.

전문 용어가 워낙 많다 보니 다들 대본과 함께 사느라 술자리를 만들 기회도 없었고요. 채정안 누나가 <개과천선>에 출연한 걸 작품이 끝나고서야 알았다니까요.(웃음) 아쉬움이 크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만나기도 했는데요. 장면과 느낌을 표현하기엔 어려웠지만 진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얘기는 자연스럽게 <기황후>(탈탈 역)로 넘어갔다. 그리고 보니 두 작품에서 진이한의 사랑은 이뤄지지 못했다. 탈탈도 지원도 먼발치서 바라만 보다가 끝난 '해바라기 사랑'이었다.

"(웃음) 제가 복이 없나 봐요. <기황후>에선 원래 하지원씨와 러브라인이 있었어요. 기승냥(하지원 분) 뒤에서 늘 미소를 머금은 설정이었는데 작가님이 스승 같은 모습만 보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빠졌죠. 작가님이 대단한 게 수십 명이 넘는 배우와 일일이 통화하면서 상의하시더라고요.

하지원씨와는 동갑이다 보니 친하게 지냈어요. 좋은 친구이자 배우인 거 같아요. 연기에 대해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서 나눴죠. 때 아닌 열애설이 나기도 했는데 지원씨에게 미안하더군요.(웃음) <개과천선>은 아쉬웠지만 <기황후>의 탈탈은 이를 갈고 준비한 걸 보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대는 고향 같은 곳, 항상 꿈꾸고 있다"

아무래도 뮤지컬로 데뷔하다 보니 그에게 무대는 고향과도 같다. 2007년 이후 잠시 무대를 뒤로한 진이한은 "계속 서 있을 곳이 무대인 만큼 서서히 무대와 이쪽 연기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은 만큼 좋은 작품이 있다면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셈이다.

"본래 이것저것 하기를 싫어하고 몰입하는 타입인데 연기의 본질은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뮤지컬 <꽃루스>가 마지막인데 공연을 안 한 지 벌써 6년이나 됐네요. 종종 동생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걸 보면 뛰어 올라가고 싶더라고요.(웃음)"

중학교 때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며 연예인이 되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그가 이렇게 연기하고 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군대에서 수능 시험을 다시 준비할 만큼 연예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우연히 본 오디션을 통해 희열을 느꼈다"는 그는 "관객의 환호와 무대 위 희열 때문에 더욱 연기하고 싶은 것 같다"고 고백했다.

"전 지금도 제가 배우라고 생각 안 해요. 배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뮤지컬 하는 동생 중에는 열심히 하는 이들이 많아요. 체계적으로 배운 그들도 힘들게 하는데 우연히 연기에 빠진 전 어땠겠어요. 선배에게 대부분으로 얼굴을 맞기도 했고, 연기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배우는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할수록 성장하니 꾸준히 고민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배우든 가수든 이 일을 하며 버티기가 힘들어요. <기황후> 직전까지 저도 힘들었습니다. 드라마 <한성별곡>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면 <기황후>는 제게 배우로서의 가능성과 매력을 느끼게 한 작품이에요. 이젠 다양한 경험으로 깊이를 더해가고 싶습니다."

당장 휴식의 시간이 왔지만 진이한은 악기를 배우고, 연출을 공부하며 자신을 채울 예정이다. 대기만성의 오피스 예가 다시 한 번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3?svc=cafeapp>

진이한 "대세 배우? 여전히 갈길이 멀죠" (인터뷰)

가을햇살~태옥♡ | 14.07.10 | 58 | [목록](#) | [댓글 6](#) | [가](#)

엑스포츠뉴스

입력 14.07.10 08:59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안녕하세요." 중저음의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다가온 진이한(36·김현중)은 젠틀한 이미지 그대로였다. 진중하고 묵직한 느낌. 배우이자 인간 진이한의 첫 인상이었다.

최근 두 작품에서 그는 자신의 첫 인상처럼 무게감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다. MBC '기황후'에서는 깊은 학식과 명석한 두뇌를 지닌 탈탈을, MBC '개과천선'에서는 엘리트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 역을 맡아 열연했다. 연이어 두 작품을 촬영하느라 피곤할 법 하지만 작품을 끝내고 얻은 수확은 피곤함도 가뿐히 극복하게 했다.

배우 진이한이 '기황후'와 '개과천선'을 연이어 촬영한 소감을 밝혔다 © 월엔터테인먼트

"'기황후'의 탈탈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맡아볼 수 없는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멋있게 그려졌죠. 배우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캐릭터였고 제게 기회가 와서 감사했어요. 역사왜곡 문제는 있었지만 캐릭터로 봤을 때는 운이 좋았죠. 진이한이라는 배우의 연기 인생을 열어준 역할이니까요."

이에 비해 '개과천선'은 시원섭섭한 작품이었다. 고품격 법정드라마라는 호평을 받았지만 갑작스런 조기 종영으로 막판 전개에 개연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지원 캐릭터도 평면적으로 그려졌다.

"좋은 작품을 하게 돼 영광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아요. 배우로서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반성도 했고요. 시놉상에는 삼각관계도 있고 전지원의 개인사나 아픔도 있었지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김명민 선배님과 의 법정 대립신도 더 긴장감 있게 담겼을 텐데 말이죠. 작가님도 미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작품에서 좋은 배우들과 호흡할 수 있어 좋았어요."

배우 진이한이 진실된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 월엔터테인먼트

브라운관 속 모습이 실제인냥 깊은 눈빛과 차분한 분위기를 내뿜는 진이한. 조곤조곤한 말투의 그는 인터뷰 내내 무겁지만 지루하지 않은, 부드럽지만 남자다운 상반된 매력을 발산했다.

연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기황후'와 '개과천선'을 통해 그의 매력을 알게 됐고 팬이 되었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연기가 가능하고 여러 색채를 갖고 있는 배우가 바로 진이한임을 알 수 있다.

2004년 뮤지컬 '루나틱'으로 데뷔한 그는 드라마 '한성별곡'(2007), '내 인생의 황금기'(2008), '애정만만세'(2011), 시트콤 '몽땅 내 사랑'(2011),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 드라마 '닥터진'(2012), '기황후'(2013), '개과천선'(2014) 등에 출연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

여러 작품에서 안정된 연기력으로 인지도를 쌓은 그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손사래를 치며 겸손해했다.

"캐릭터가 일관되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웃음)
'애정만만세' 때의 캐릭터가 세서 아직도 '죽집 개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지금도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야할 길이 먼 배우들에게는 폭 넓은 연기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개과천선'에서도 이미지 변신에 중점을 뒀다가 보다는 작품성 있는 드라마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였어요."

배우 진이한이 '개과천선'으로 얻은 것과 아쉬운 점을 털어놓았다 © 월엔터테인먼트

그는 군대를 제대한 뒤 우연히 대학로를 지나다 뮤지컬 오디션을 보고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고 했다. 데뷔 1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배우로서 연기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무명시절과 슬럼프, 그리고 현재의 전성기까지 경험해본 만큼 눈앞의 인기만 좇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진정한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그에게 배우로서의 지향점을 물어보니 '진실된 배우'라고 답했다. 당연하고 평범한 대답 속에 연기에 대한 의지가 오롯이 느껴졌다.

"아직은 배울 것도 많고 해보지 못한 역할도 많아요. 아직은 고민을 더 해야 배우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매 작품마다 슬럼프가 오는데 이번 '개과천선'에서도 캐릭터를 못 잡은 채 끝나서 아쉬웠죠. 하지만 슬럼프도 황금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힘든 만큼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목표요? 사람 냄새나는 진실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시청자에게 믿음을 주는 배우가 되길 바라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6?svc=cafeapp>

인터뷰] '개과천선' 진이한, "아쉬움 남지만 그만큼 더 많이 배웠죠"

기사승인 [2014-07-16 09:34:07]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지난 4월 종영한 ‘기황후’는 올해 등장한 드라마들 가운데 몇 안 되는 킬러 콘텐츠였다. 30%에 육박한 시청률을 기록한 ‘기황후’의 인기 비결로 주연배우 하지원과 지창욱의 호연을 꼽는 이들도 있을 것. 하지만 ‘기황후’를 즐겨 봤던 시청자라면 극중 이 두 사람 못지않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드라마의 인기몰이에 일조한 인물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질은 이목구비가 돋보이는 수려한 외모와 보는 이들을 완벽히 극에 몰입하게 만드는 연기력을 겸비한 진이한은 당시 빼어난 학술적 소양과 명석함을 지닌 탈탈 역을 맡아 열연했다. 신중한 선비 기질 뒤에 서슬 퍼런 단호함과 대담함을 갖추고 있어 수차례 기승냥(하지원)을 위기에 빠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배우 생활을 시작한 지 수년 만에 대중들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된 진이한은 ‘기황후’를 마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차기작 ‘개과천선’으로 다시 안방극장을 찾았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제가 한 작품을 하면 그 캐릭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심지어 데뷔작 ‘한성별곡’이 배우 진이한을 탄생시킨 작품이라면 ‘기황후’는 제 2의 배우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작품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탈탈이란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컸어요. 그런데도 ‘개과천선’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작품성 때문이었고, 늘 존경하던 김명민 선배님이나 김상중 선배님과는 꼭 한 번 함께 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극중 진이한은 사법계 엘리트 코스의 정석을 밟아온 수재인데다 겸손하고 성격까지 좋아 윗분들의 총애를 받는 판사 전지원 역을 맡았다. 후에 그는 김석주(김명민)가 떠난 차영우(김상중) 로펌에 들어가 새로운 에이스 변호사로서 김석주와 경쟁하는 라이벌이 된다는 설정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당초 6 회에서부터 활약을 펼치기로 돼 있었던 전지원은 10 회분이 넘어가도록 제대로

등장조차 하지 못했다. 앞에서 풀어낼 이야기들이 조금씩 늘어지기 시작하며 그의 출연 순서까지 밀리기 시작한 것.

설상가상으로 ‘개과천선’의 조기종영이 결정되면서 진이한이 전지원이란 인물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가 지닌 사연들과 여주인공 이지윤(박민영)과의 러브스토리, 김석주와의 대립까지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드러나지 못한 채 어영부영 마무리됐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커요. 사실 전지원의 과거에 얽힌 이야기들도 나올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존재감 없는 인물이 돼 버렸어요. 하지만 배우로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작품이었어요. 이야기를 전부 풀어내기 힘든 상황이라 해도 주변 상황을 탓하지 말고 제 나름대로 중심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책도 많이 했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누구보다 정직하고 곧은 성품을 지닌 전지원이 차영우 로펌에 들어간 순간부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악인으로 돌변한 것도 시청자들의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진이한 역시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진이한은 빛나는 기지를 발휘해 전지원의 복잡한 심경을 표현해냈다. 김석주와의 재판에서 승리하고 차영우에게 크게 칭찬 받은 후,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시청자들의 입장에선 그나마 전지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명장면이었다.

“그 장면은 사실 대본에 없는 제 애드리브였어요. 큰 뜻을 품고 로펌에 들어오긴 했지만 권력의 꼭두각시가 된 자신의 모습에 허무함과 회의감을 느끼는 지원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지원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 돼버릴 것 같았거든요. 전지원을 정말 제대로 연기해 낼 자신이 생기자마자 극이 끝나버린 게 지금 생각해도 가장 안타까워요.”

인터뷰 내내 진이한은 못다 보여준 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몇 번이나 토로했다. 배우로서의 자긍심과 자신감, 더 큰 배우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큰 사람이기에 그만큼 아쉬움도 더 크게 남았으리라.

“저는 배우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박’이 날 것 같은 작품이나 캐릭터에 연연하고 싶진 않아요. ‘기황후’가 끝난 후 쉬지 않고 바로 ‘개과천선’에 들어갔던 것처럼, 작품성이 좋은 드라마라면

언제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전에 독립영화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기회가 닿는다면 영화 쪽 일도 다시 해보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진이한’ 하면 ‘믿고 볼 수 있는 배우’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진이한은 아직 자신이 배우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진이한을 응원하는 수많은 팬들에게는 그의 그런 모습까지도 마냥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질 터.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진이한 관련 게시판에서 그가 ‘요정’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아는지 묻자 진이한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게시판은 저도 종종 보고 있어요. 어찌다 30대 남자 배우가 요정이란 별명을 갖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팬들이 지어주신 거니까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제 팬들은 절대로 저를 옹호하지만은 않아요. 연기가 이상했으면 이상했다고, 어떤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고 정확하게 지적해주시고 연기 기복이 심할 때는 질타도 해주세요. 그런 글을 보면 상처를 받기보다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큰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8?svc=cafeapp>

데뷔 13년차' 진이한, 진짜 뇌가 섹시한 남자(인터뷰)

이한지키미혜선 | 14.07.17 | 43 | [목록](#) | [댓글 6](#) | [가기](#)

[TV 리포트=손효정 기자] 스타의 인터뷰에는 '솔직하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배우 진이한의 입담을 그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아쉽다. '거침없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듯하다. MBC 드라마 '기황후'에 이어 '개과천선'까지 연이어 출연하며 대세 배우로 우뚝 선 진이한을 최근 만났다. 곱상한 외모의 그는 알고보니 남자 중의 남자, 상남자였다. 그러면서도 답변 하나 하나에 진지했고, 따뜻했다. '기황후'의 탈탈처럼 한마디로 형용할 수 없는 백만가지의 매력을 지닌 배우였다

진이한은 2004년 뮤지컬 '루나틱'으로 데뷔한 후, KBS '한성별곡-正'(2007), '바람불어 좋은 날'(2010) MBC '애정만만세'(2011) '닥터진'(2012) SBS '주군의 태양'(2013) 등에 출연했다. 그리고 '기황후', '개과천선'을 만난 것. 데뷔 13년만에 대세가 된 배우, 그리고 인간 진이한의 매력을 '탈탈' 털어 봤다.

◆ 바빴던 1년, 대세 배우가 되다

㉔ '기황후' vs '개과천선'

: 진이한은 지난해부터 열연했던 '기황후'가 종영함과 동시에 '개과천선'에 출연했다. 아무래도 약 반년을 함께 한 작품과 출연분량이 아쉬웠던 작품에 대한 배우의 애정도는 달랐다. 진이한은 '기황후'는 인생작, '개과천선'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드라마라고 표현했다.

"'기황후'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작이에요. '닥터진'의 한희 감독님이 저를 추천해주셔서 '기황후'에 들어갔죠.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감독님부터 작가님, 배우분들, 스태프들 모두 좋았고, 긴 시간 촬영했지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원래는 '기황후'를 끝내고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작품성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개과천선'을 그렇게 느껴서 바로 한 거죠. 김명민, 김상중 선배님 등 평상시에 같이 호흡해보고 싶었던 선배님들을 보고 들어간 게 크죠. 그런데 선배님들과 붙는 신도 별로 없고, 캐릭터적으로 아쉬움이 컸어요. 작가님이 종방연 때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기종영도 많이 아쉬웠고요. 얻은 점이 있다고 하면 배우로서 저의 단점 부족한 점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었죠."

㉕ 뇌가 섹시한 남자

: '기황후', '개과천선'을 끝낸 후, 진이한에게는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별명이 생겼다. 진이한이 '기황후'에서 맡은 탈탈은 책사, '개과천선'에서 연기한 전지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였기 때문. 진이한은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말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씩스러워했다. 엘리트적인 인물을 연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까.

"탈탈은 초반에는 비중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디테일하게,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손동작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생각을 많이 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덕분에 어려운 역할이지만 탈탈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개과천선'에서는 법정용어를 소화해야 했는데, 대사 외우는데 정신이 없어서 어렵다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연기한 적도 있었죠. 배우로서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㉖ 대세 배우, 인기 실감?

: '기황후'가 방영될 당시, 전국에는 '탈탈얹이'가 강타했다. '기황후' 관련 기사에는 '탈탈에 빠졌다'는 댓글이 수두룩했다. 낮은 목소리의 묵직한 카리스마가 시청자를 사로잡은 것. 탈탈을 통해 대세 배우로 자리잡은 그는 인기를 실감했을까.

"이렇게까지 많은 인기를 받을지는 정말 몰랐어요. '기황후' 촬영할 때는 정말 몰랐고요. 인터넷을 보긴 보는데 촬영 현장에만 있다 보니까 몸소 느끼지 못했죠. '시청률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인가 보다' 이렇게 느꼈는데 디시갤러리도 활동이 많아졌고, 그런 것을 보니까 조금씩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웃음)"

㉔ 러브라인이 부족해

: '기황후'와 '개과천선'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진이한이지만, 드라마 속 그는 외로웠다. '기황후'에서는 하지원(기승남 역)과 스승과 제자로서 묘한 케미스트리를 발산한 것이 전부였고, '개과천선'에서는 박민영과 씬을 타는 듯 하더니 어떤 발전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여복이 없는 것 같다"며 웃어보였다.

"(하)지원이와는 주고받는 눈빛이나 호흡을 '케미가 좋다'면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지원이와는 동갑내기 친구예요. 현장에서 신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편하게 이끌어주더라고요. (박)민영이와는 '닥터진'에서 남매였다가 만났죠. 저도 러브라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원래 삼각관계였는데, 그랬다면 제가 느끼기에도 산만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로맨스 연기를 많이 했죠. 송민정, 이태임, 김소은, 클라라, 이수경, 윤승아 등 호흡을 맞췄던 여배우 모두 다 좋았던 것 같아요."

㉕ 목소리도 아름다운 남자

: 뚜렷한 이목구비를 지닌 진이한의 외모를 흠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이한 또한 자신이 잘 생긴 것을 아는 느낌이다. '개과천선' 제작발표회에서 "저의 무기는 미모죠"라든지, 인터뷰에서 "나의 매력포인트는 쇠골?" 등의 발언을 했기 때문. 그런데 실물을 보니 그의 발언들에 절로 수궁이 간다. 게다가 이 남자, 목소리까지 '꿀성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름답다.

"제작발표회에서 '미모' 발언은 장난이죠. 분위기가 안 좋길래 좀 띄어보려고 그런 거예요.(하하) 그리고 '개과천선'에서 제가 '꿀성대' 1위를

한 것은 잘못된 부정투표로 된 것 같아요. 김명민, 김상중 선배님이 훨씬 더 좋으신 꿀성대를 지니셨고, 제가 제일 안 좋죠. 두분 다 목소리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1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㉞ 바닥난 체력, 힐링이 필요해

: 지난 1년을 바쁘게 보낸 진이한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다. 그는 차기작을 검토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과천선' 종영을 하고, 한 주 동안은 집에서 시체처럼 쉬었어요. 삼일째 되니까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더 피곤하더라고요. 여행을 가고 싶기는 한데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어요. 쉬면서 체력관리도 좀 하고, 피아노든 기타든 정식으로 어깨너머로 배워왔던 것을 해보고 싶어요. 쉬더라도 바쁘게 보내고 싶어요."

◆ 진짜 진이한을 말하다

㉟ 실제성격

: 작품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진이한. 그래서 그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다. 진이한은 자신의 실제성격을 "그냥 평범한데 감수성이 예민하기는 한 것 같아요. 또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고요"라고 생각했다.

㊱ 이상형

: 믿기지는 않지만 올해 나이 37세. 그러나 아직까지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이상형에 대해서는 "대화가 잘 통하고 현명하고 매력적인 여자"라면서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동안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㊲ 조교출신

: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진이한이 신병교육대 조교 출신이라는 점. 그는 군필 예능 KBS 2 '명 받았습시다'에도 출연한 바 있다. MBC 예능 '일밤-진짜사나이' 출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TV 자체를 잘 보는 편이 아니에요.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봤는데 '내가 잘 하겠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나가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팬분들이 트위터를 보시고 제가 조련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닌데...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하."

㉔ 친분관계

: 진이한은 연예인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도 JYJ 김재중, 주진모를 친한 동료로 꼽았다. 특히 주진모에 대해서는 '기황후' 촬영 때 많은 조언을 해줘 고마웠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같은 소속사 식구이자 '기황후'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던 유인영에 대해서는 "그 전과 지금의 사무실이 같아요. 인영이를 알고 지낸 지 6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하는 여배우예요. 바토루('기황후' 역할)도 너무 잘해줬잖아요. 친한 동생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좋더라고요"라고 말했다.

㉕ 코미디언이 꿈?

: 진이한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어렸을 적 꿈이 코미디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도 그는 로맨틱코미디 같은 작품을 선호한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진이한은 차기작을 로맨틱+스릴러 드라마 tvN '마이 시크릿 호텔'로 결정했다. 그의 연기 변신이 기대를 모은다.

"물론 지금은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죠. 지금은 장르물 같은 것을 많이하지만 예전에는 로맨틱 코미디, 시트콤도 했어요. 특히 '몽땅 내사랑' 전태풍 역할은 '직접 한번 만들어봐라'해서 철저하고 군대 말투 쓰는데 허당인 캐릭터로 만들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애정만만세'에서 쓰레기 역할을 했죠.(웃음)"

㉖ 탈탈, 내 인생 최고의 캐릭터

: 알고보니 진이한 또한 '탈탈앳이'였다. 그는 '기황후'의 '탈탈'로 제 2의 배우인생을 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탈탈은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사극에 갈색머리와 눈썹이라니'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머리를 갈색으로 했던 이유는 조선시대 배경이 아니라 원나라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사극에서 노란, 갈색머리로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감독님과 분장팀과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갈색머리로 가보자. 고정관념 깨보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모르든 사람들은 '사극을 하면서 기본이 안 됐다', '생각이 없는 애야'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 팬

: 진이한은 팬 사랑도 남다르다. 팬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놀라자 "뮤지컬 할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라면서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진이한은 항상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더 진심되게 연기해야겠다', '항상 어디에서든 사람 냄새나는 사람처럼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해요. 팬미팅은 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기회가 닿으면,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과 밥이라도 먹고 싶어요."

㉡ 하고싶은 마지막 말

: 진이한은 어느날 갑자기 떠오른 스타가 아니다. 2014년 대세가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캐릭터에 대한 몰입과 애정이 남다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 그동안 차곡차곡 쌓은 시간들 덕에 현재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의 배우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냥 진실된 배우가 되고 싶어요. 30~40년 지났을 때, 저를 보러 와줬던 팬분들과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된 모습으로 무대 위에서 교감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배우로서 행복 아닐까요? 크게 봤을 때 진실된 배우가 되고 싶은 거죠."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9?svc=cafeapp>

데뷔 13년차 진이한 "무명시절 길었지만 후회없다"(인터뷰)

가을햇살~태옥♡ | 14.07.07 | 25 [목록](#) [댓글 0](#) [가가](#)

뉴스엔

[뉴스엔 글 황혜진 기자/사진 정유진 기자]

조각같은 외모에 남 부럽지 않은 목소리,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최근 안방극장을 휘어잡았다. 지난 4월 종영한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극본 장영철 정경순/연출 한희 이성준), 6월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종)에 연이어 출연하며 믿고 볼 만한 대세 배우로 떠오른 배우 진이한(35)의 이야기다.

진이한은 '기황후'에서 고려 출신 원나라 황후 기승냥(하지원 분)을 돕는 책사 탈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쳐 주연 못지 않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랬던 그는 '개과천선'에서 흠 잡을 데 없는 판사 출신 변호사 전지원으로 분해 여심을 사로잡았다. 연이어 완벽한 캐릭터를 연기한 덕분에 그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뇌가 섹시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다.

드라마를 통해 인기를 모았지만 시작은 카메라 앞이 아닌 무대 위였다. 서울예술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진이한은 2002년 년버벌 퍼포먼스 작품 'UFO', 뮤지컬 '루나틱', 연극 '육분의 룩'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7년 KBS 2TV 드라마 '한성별곡-正'을 통해 첫 주연에 낙점됐다. 이후 2008년 MBC 드라마 '누구세요', '내 인생의 황금기', 2011년 MBC '몽땅 내 사랑', '애정만만세', 2012년 MBC '닥터 진'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탄탄한 연기 내공을 쌓았다.

진이한은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기황후', '개과천선'을 통해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 데뷔 초에는 주로 뮤지컬계에서 활동했다. 최근 브라운관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무대에 다시 설 계획이다. 무대 위에 오를 생각이 있다, 없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그곳은 당연히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대 경험이 있는 배우 분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무대에 있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거든요. 앞으로 굳이 분야를 나눠 활동하기보다 좋은 작품에 참여할 기회가 온다면 망설임 없이 도전하고 싶어요. 최근까지는 스스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쪽으로 가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등을 생각하며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제 캐릭터나 장르에 차별을 두지 않고 연기할 생각이예요."

2002년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진이한은 올해 데뷔 13년차 배우가 됐다. 진이한은 "데뷔한 지 13년이나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아직 배우로서 배울 게 많기 때문이다. 배우란 직업에 있어 활동 기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간보다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며 "지난 13년간 배우로서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 더 풍부한 경험을 통해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로 거듭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무명 시절이 비교적 길긴 했지만 배우가 된 것에 대한 후회나 회의감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단지 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뿐이죠. 배우들이 기회가 부족해 연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동료들과 함께 뭔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욕심만큼 기회가 없어 아쉬웠죠. 기회가 없었던 걸 수도 있고 비슷한 역할만 연기해 좀 더 다양한 매력을 어필할 수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지금껏 연기해보지 않았던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520?svc=cafeapp>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9?svc=cafeapp>

진이한 “배우도 사람에 대한 도리가 우선” 140722

<http://m.cafe.daum.net/2hanlove/Opn/540?svc=cafeapp>

진이한, 갈증은 여전하다 (인터뷰)

Posted by [배선영](#) on 2014/07/22

진이한, 갈증은 여전하다 (인터뷰)

Posted by [배선영](#) on 2014/07/22

진이한은 ‘개과천선’을 막 끝냈음에도 ‘기황후’에 대한 잔상이 더 강렬하다고 말했다

진이한은 여전히 갈증이 나는 듯 보였다. MBC ‘기황후’의 탈탈 역으로 주목을 받았고, 곧장 설렘없이 MBC ‘개과천선’에 투입됐다. 지금 그는 막 스포트를 올리고 있는 참이었다. 당장은 휴식이 절실하다며 응석도 부렸지만, “사실, 하루 이틀 쉬고 나면 또 달라질 마음이란 걸 알아요”라며 웃는다.

그 말 그대로, 쉬겠다고 해놓고서는 곧장 차기작 소식을 들려줬다.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로 8월 말이면 또 다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듯 보인다.

차기작으로 뜨거운 여름 다시 돌아올 진이한의 못다한 이야기

Q. ‘기황후’ 탈탈로 전에 없던 주목을 받았는데, 전후의 삶에 변화가 있나요.

진이한 : 글썄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캐릭터가 더 돋보여야한다는 것보다 늘 그 신 자체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을 뿐인데요.

Q. ‘기황후’의 경우, 그런 의도가 잘 통한 사례이겠군요.

진이한 : 그렇죠. 작가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배우인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데, 그 때는 작가님도 많이 좋아해주셨고 힘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생각 이상으로 표현해주고 노력해줘 고맙다’라고 하시더군요.

Q. 그렇다면 ‘개과천선’은요? 상대적으로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진이한 : 장르물인데다 전문직 캐릭터였으니까요. 전문직이기에 한계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틀 안에 박혀있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을 표현하기 위해 고민을 했어요. 아마 김명민 형도 이 점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Q. 진이한 씨가 연기한 지원이 판사에서 변호사가 된 인물인 만큼, 직접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관찰하기도 했나요.

진이한 : 판사는 못 만났고요, 변호사분은 봤어요. 인상이라면 대화할 때 항상 여유가 있으시더군요. 미소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설명하기 묘한 강한 면도 함께 가지고 계시더군요.

Q. 캐릭터 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으나, 워낙 ‘개과천선’이라는 드라마가 전한 메시지가 강렬했고, 그래서 많이 회자됐다는 점에서는 참여한 배우로서 뿌듯했을 텐데요.

진이한 : 사실 사회적인 의미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시작할 때는 오로지 작품성만을 생각했거든요. 법정 드라마라는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김명민 선배, 김상중 선배와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고요. 실제 사건을 다루게 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는 시즌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Q. 시즌제? 왜죠?

진이한 :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다보니 캐릭터가 표현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사건 풀기에도 바빴으니까요. 이해는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아마 다른 배우들도 그랬을 거예요.

Q. 그럼에도 그 안에서 느낀 작가의 메시지는요?

진이한 : 현실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많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각자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느꼈어요. 저는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쉴 틈 없이 이어진 강행군 속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는 현재 충전 중이다

Q. 여하튼 두 작품 연속 했으니, 지금 상당히 지쳐있을 듯합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어요.

진이한 :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기황후’를 무려 8~9 개월 찍었잖아요. 이후 쉴 틈 없이 ‘개과천선’에 투입이 되었으니까요.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어요. 게다가 드라마 현실 상 꼭대본의 반복이었고, 특히나 ‘개과천선’은 전문 용어들이 많아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Q. 최근에 끝낸 것은 ‘개과천선’이지만, ‘기황후’가 여전히 가슴에 많이 남은 듯 보이는데요,

진이한 : 긴 작품이라 더 그런 것도 같고요. 무려 50 개짜리였잖아요. 작가님과 통화도 자주하고 선배들과 호흡할 시간도 많았어요. 긴 작품이 가진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현장 분위기도 늘 좋았고요. 누구 하나 모난 사람이 없어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이지 세계는 ‘기황후’가 인생의 작품으로 꼽을 만한 드라마예요. 사극에서 그렇게 매력 있는 캐릭터를 맡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배우 생활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좋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Q. 참,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서 나이를 검색해보다 깜짝 놀랐어요. 30 대 중반을 넘어섰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진이한 :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기황후’ 할 때 전국환 선생님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저를 ‘애늬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냥 ‘늬은이’인데, 하하. 그런데 저로서는 제 나이처럼 안 보이는 게 더 스트레스예요. 주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이 말을 후회할 수도 있을 테지만, 지금으로서는 배우에게는 동안이 장점만은 아닌 듯 하네요.

Q. 주름도 매력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진이한 : 주름 생기는 게 싫지는 않아요. 오히려 배우에게는 특히나 남자배우에게는 더 큰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결국은 늙어가겠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는데요, 뭐. 그런데 저 머리 스타일만 바뀌어도 확 달라 보이기는 해요. 만약 스포츠헤어로 짧게 깎는다면 고등학생처럼도 보이죠. 그건, 장점이네요. 생각해보니.

Q. 인간 진이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요. 성격은 어떤 편인가요.

진이한 : 매사에 가식적인 것을 싫어해요. 매순간 순간 진실하려고

노력하죠. 배우이기 전에 인간이니깐요. 한 번 ‘고생하셨다’ 인사를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해요. 정작 상대방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살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Q. 자, 이제 정말이지 쉴 수 있는 타이밍인데, 구체적 계획은요.

진이한 : 지금은 좀 지친 상태라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만, 쉬다 보면 다시 갈증이 생길 거란 걸 알아요. 성격이 워낙에 하고 싶을 때 하는 성격이다 보니. 또 쉬다보면 몸만 더 빠근해져서는 아마 시놉시스를 찾아서 보고 있을 거예요.

Q. 여행은 안가세요?

진이한 :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지방 계곡 같은 곳에 낚시라도 한다든지,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에 갔다오고 싶은데. 또 한 편으로는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들 정도예요. 집에서 편하게 아무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진이한의 인터뷰는 텐아시아가 24 일 발행하는 매거진 '10+Star' 8 월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41?svc=cafeapp>

진이한,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진지한'  140722

Best 한마디

이한이 개그 감각 섞이지 않은 진지한 화법으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고 있다./김슬기 기자

'스포츠서울닷컴 신개념 종합지 THE FACT'

[더팩트 | 이다원 기자] 진지한 사람이 원래 더 웃기는 법이다. 그만의 고유한 개그 코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신선한 맛을 줄 수 있다는 게 지론이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가는 길이 더욱 기대가 됐다. MBC '기황후'의 '탈탈', '개과천선'의 '전지원' 등 묵직하고 말없는 역만 도맡았던 배우 진이한(35·본명 김현중)의 이면에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개그 센스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순 없었던 것일까. 낯선 기자 앞에서 허심탄회할 수 없었는지 개그 센스가 조금 아쉬운 대화가 이어졌다.

진이한이 너스레를 떨면서도 선을 확실히 긋는 방법으로 빈틈없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김슬기 기자

최근 서울 압구정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만난 진이한은 진지 그 자체인 배우였다. '진지 열매'를 잔뜩 따 먹은 듯 시종일관 배우론에 대해 얘기하는 그의 눈동자에서 연기에 대한 목마름이 느껴졌다.

원래 재밌는 성격 아니냐는 질문이 조금하게 이어졌다. 그러자 슬그머니 웃더니 여유롭게 선을 그었다.

"평상시에는 밝고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웃기는 편이고요. 하지만 진지하려면 정말 진지해져서 거짓말을 해도 진짜처럼 믿게 된다고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진이한이 평소엔 재밌는 '상남자'라며 실제 성격을 밝히고 있다./김슬기 기자

아직은 친하지 않아 농담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린 것 같았다. 다만 대답에서 조금씩 비치는 특유의 너스레가 그의 진가를 가늠케할 뿐이었다.

"중고등학생 때 인기가 많았죠. 에피소드가 있냐고요? 굉장히 많아서 뭘 말해야 하나. 하하!"

웃어넘기는 표정에서 인기의 달콤한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여유가 묻어났다. '엄친아'로서 싱크로율을 물어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자신만만한 속내를 입증했다.

"절 잘 모르는 분들이 '엄친아'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닌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 쉬운 남자거든요? 진지하면서도 즐겁길 바라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진이한이 취재진과 다음 인터뷰에선 좀 더 친하고 재밌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다./김슬기 기자

조금 늦은 데뷔에 조금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빙긋 웃었다.

"다들 제 나이를 검색하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반응이 일단 좋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기황후'를 본 10대 20대 팬들이 제 나이를 알고 '헉, 나랑 거의 스무살 차이야?' 이러면서 흥미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하하."

30대 남자 특유의 능글거림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지닌 유머러스한 면을 더욱 부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였다. 아쉬운 마음에 "진이한씨, 다음엔 웃기고 재밌게 얘기 나눠요"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네. 다음에 만날 땐 좀 더 친하게(할게요)."

중저음의 목소리가 귓가를 윙윙 맴돌았다. 작품 얘기보다 인간 '진이한'에 대한 얘기를 깊이 나누지 못한 게 아쉬워서였을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웃음꽃 만발할 인터뷰를 머리속에서 가만히 그려본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42?svc=cafeapp>

140722 이한은 왜 '배우'가 됐을까?

'스포츠서울닷컴 신개념 종합지 THE FACT'

[더팩트 | 이다원 기자] "평생 배워야해서 '배우' 아닐까요? 인생 마지막에 배우로서 무대에 섰을 때 저를 사랑한 팬 스무 명이라도 객석을 채운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그리는 마지막 목표이기도 하고요."

담담한 목소리가 진중함을 더한다. 미술학도에서 배우로 접어든 지 벌써 12년째. 묵묵하게 이 길을 걷는 것에 이유가 생길 법한 시간 아니냐고 물으니 피식 웃는다.

"지칠 때도 많았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연기를 하루 이틀하고 말 그런 게 아니니까. 여유를 즐길 줄 알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 나이가 그 비결이겠죠?"

진이한이 무심코 도전한 뮤지컬로 연기 인생을 시작했다며 배우로서 운이 좋았다는 겸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슬기 기자

배우 진이한(35·본명 김현중)은 최근 서울 압구정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서울예대 시각디자인학과 출신으로서 미술을 접고 연기를 택한 이유와 '대기만성'형 배우로 평가받는 자신에 대해 가감 없이 털어냈다.

"어릴 적엔 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도 안 해봤다는 게 더 맞는 말이죠. 그러다가 제대 이후 우연히 도전한 뮤지컬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배우의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진이한이 뮤지컬 '유에프오' 이후 연기에 대한 욕심이 깊어졌다며 오랫동안 배우의 길을 걸어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김슬기 기자

정확히 '우연'이라고 말하는 입 모양은 "어떻게 우연히 뮤지컬 무대에 설 수 있죠?"라는 질문을 이끌어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임해도 떨어지는 오디션을 무난히 통과한 그의 저력이 무엇인지 물음표가 붙는다.

"'유에프오'라는 뮤지컬이었는데 사실 3차 오디션에서 떨어졌죠. 근데 제작진 쪽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절 캐스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운이 좋았어요. 첫 공연 전에 밤새도록 연습하기도 하고 부족한 연기력 때문에 선배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죠."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이었지만 갈수록 욕심이 났다고 했다. 배우로서 내공을 쌓고 싶어서 뮤지컬에 '올인'했고 깊이 파고 들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갈증은 더욱 심해졌고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활로를 뚫기 위해 40여 곳을 돌며 직접 프로필을 돌리기도 마다하지 않았단다.

진이한이 MBC '기황후' 탈탈(왼쪽)과 '개과천선' 전지원으로 분해 목격하면서도 깊은 남성미를 풍기고 있다./MBC 제공

그만큼 배우에 대한 목마름을 남달랐다. 그런 노력이 그에게 MBC '기황후' '개과천선' '애정만만세' 등 히트작을 가져다준 건 아닐까. 특히 '탈탈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그의 이름을 알린 '기황후'는 조금 더 특별하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보다 더 좋은 역을 다시 맡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SBS '모래시계' 이정재 같은 이미지잖아요? 물론 처음엔 대사도 없고 지문만 있어서 당황했지만 말 없이 눈빛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걸 제작진들이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진이한이 '기황후'와 '개과천선'을 마친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 배우로서 활동에 대한 소박한 꿈을 내비치고 있다./김슬기 기자

역에 대한 애정이 잔뜩 묻어난다. 진이한에게 있어 '탈탈'의 의미를 다섯글자로 줄여달라는 짓곳은 질문에도 "매력탈탈캐(캐릭터)"를 외치며 싱글싱글 웃는 그다.

"하지만 '기황후' 이후 바로 출연한 '개과천선'의 전지원 역은 가슴이 좀 아픈 캐릭터였어요. 애초 6 회부터 등장해야 하는데 비중이 줄어들어서 12 회 이후부터 나왔거든요. 러브라인도 축소됐고, 김명민 김상중 등 대단한 선배들과도 맞붙질 못해 정말 아쉬워요."

스스로를 배우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에게 인생 제 3 막을 그려보라 하니 허공을 잠시 응시한다.

"아마 그때쯤이면 얼굴 주름과 수입이 늘어나 있겠죠?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30~40 년이 지난 후에 백발로 무대에 섰을 때에도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팬들이 저를 지켜본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눈물 나지 않을까요?"

<http://m.cafe.daum.net/2hanlove/Opn/543?svc=cafeapp>

진이한 "잘생겼다 생각안해..외모 전부 마음에 안들지만"(인터뷰)

가을햇살~태옥♡|14.07.22|48 [목록댓글 1](#) [가가](#)

뉴스엔

입력 14.07.22 16:11 (수정 14.07.22 16:13)

[뉴스엔 글 황혜진 기자/사진 정유진 기자]

배우 진이한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진이한(35)은 지난 4 월 막을 내린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극본 장영철 정경순/연출 한희 이성준), 6 월 중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극본 최희라/연출 박재범 오현중)에 연이어 출연하며 훈훈한 이미지와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믿고 볼 만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대세로 떠올라 여성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지만 정작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배우 본인은 덤덤하고 겸손하기만 하다. 진이한은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훈훈한 외모와 일명 '꿀 성대'란 애칭을 얻게 해준 매력적인 저음

목소리에 대해 "내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이한은 외모 중 마음에 드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실 난 잘생긴 얼굴은 아니고 '훈남(훈훈한 남자)'에 가깝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다. 연예계에는 잘생긴 남자 분들, 예쁜 여자 분들이 너무 많다. 나같은 경우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매력이 있어 활동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우여곡절 끝에 데뷔해 활동 중인데 부모님이 제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실 때마다 정말 기뻐하세요. 저 나오는 작품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요."

과묵한 이미지이지만 어릴 적부터 유독 파이팅이 넘치는 성격이었다. 진이한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즐겁게 사는 걸 정말 좋아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성격도 어린 시절의 성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묵해보이는 얼굴이지만 밝은 성격을 보고 지인들들이 좋아해주는 것 같다. 항상 파이팅이 넘치는 편이다. 원래 성격이 되게 밝다"고 털어놨다.

"아직 배우로서 제 본 모습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로맨틱 코미디를 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기황후' 속 탈탈이나 '개과천선' 속 전지원이란 인물은 정형화된 전문직이나 지적인 이미지의 캐릭터였어요. 물론 둘 다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였지만 앞으로 출연할 작품에서는 좀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연기할 수 캐릭터를 맡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최근 연예계는 열애 사실을 공개하고 팬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는 배우 커플이 많아졌다. 이에 대해 진이한은 "현재는 여자친구가 없다. 열애 사실을 공개할 생각? 아직 잘 모르겠다. 우선 열애설부터 내보야할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진이한은 이상형에 대해 "굳이 꾸미지 않아도 예뻐보이는 사람이 좋다. 대화가 통하고 얼굴이 예쁜 것만을 따지기보다 자신의 매력을 알고 현명하게 행동할 줄 아는 분이 좋다"며 "아직 결혼 계획은 없다. 최근 절친인 배우 이천희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언제, 누구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진이한은 오는 8월 18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극본 김도현 김예리/연출 홍종찬)에 까칠한 완벽남 구해영 역으로 출연한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38?svc=cafeapp>

140820 진이한이 '마이 시크릿 호텔'로 한 번 더 일을 냈다.

진이한은 8월 19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2회(극본 김도현/연출 홍종찬)에서 허세 가득한 구해영으로 분해 물오른 로맨틱코미디 연기를 선보였다.

진이한이 '마이 시크릿 호텔'에서 맡은 구해영은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는 없는 것 같으면서도 허당기 다분한 남자. 다시 만난 전처 남상호(유인나 분)가 반갑고 그녀 행동에 일희일비하면서도 빼뚫어진 애정표현을 일삼고 있다. '마이 시크릿 호텔' 구해영은 남상호에 대한 관심을 심술로, 설렘을 막말로 엇나가게 드러내고 있다.

때로 유치하기 짝이 없던 구해영임에도 그가 알밋지 않은 이유는 애써 감추는 순정 때문이다. 구해영은 두 번째 결혼 전날 밤에 재혼을 되돌리기 위해 남상호에게 달려갈 만큼 여전히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애꿎은 타이밍은 늘 구해영과 남상호 사이를 휘방 놓았다. 구해영은 달려간 곳에서 조성겸(남궁민 분)과 웃고 있던 남상호를 봤다. 남상호는 구해영의 진심을 오해한 끝에 배신감과 아픔에 사로잡혀 자리를 피했다. 남상호가 구해영이 오기 직전까지 구해영의 재혼 때문에 울었다는 사실을 결코 눈치 못챘다.

진이한은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구해영을 꽤나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처 남상호를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던 구해영이 이해되는 이유는, 진이한이 몸은 커도 마음은 덜 자란 남자의 서투른 사랑을 귀엽게 표현해준 덕분이다. 무엇보다 '마이 시크릿 호텔' 2회 엔딩 무렵 남상호를 또 다시 오해하고 상처받은 구해영을 섬세하게 표현해주며 시청자들 감정이입을 배가시켰다.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남상호와 조성겸의 화기에애한 모습을 보고 눈동자에 물기까지 고였던 구해영의 아련함은 모성본능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이로써 진이한은 전작인 MBC ‘기황후’, MBC ‘개과천선’에 이어 tvN ‘마이 시크릿 호텔’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지적 매력과 냉철한 카리스마가 돋보였던 ‘기황후’ 탈탈이나 ‘개과천선’ 전지원과 다른 매력의 구해영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3연타 홈런을 쳤다. 영리하게 작품을 고르는 진이한의 선구안이 돋보였다.

한편 이날 ‘마이 시크릿 호텔’ 2회 말미에 다음 주 방영될 3회 예고편이 공개됐다. ‘마이 시크릿 호텔’ 3회 예고편에서 조성겸은 예식 책임자 남상호를 대신해 결국 망쳐버린 구해영의 두 번째 결혼식에 대해 사과했다. 구해영은 이런 조성겸의 태도에 오히려 심기 불편해져 “남상호 씨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는 말로 질투심을 드러냈다. (사진=tvN ‘마이 시크릿 호텔’ 2회 캡처)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2?svc=cafea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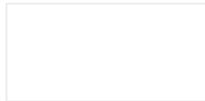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1?svc=cafeapp>

마시크’ 진이한, 2% 부족한 '도도+까칠' 나쁜 남자 매력

[OSEN=정소영 인턴기자] ‘마이 시크릿 호텔’ 진이한이 엉뚱한 구석이 있는 ‘까도남(까칠하고 도도한 남자)’으로 변신해 여심공략에 나섰다.

진이한은 18일 오후 첫방송된 tvN 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이하 ‘마시크’)에서 출중한 실력의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구해영으로 분해 나쁜 남자의 매력을 발산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전 부인인 남상호(유인나 분)이 총지배인으로 일하는 호텔에서 재혼을 기약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그는 자신의 대기실을 찾은 남상호에게 뼈뺌하게 굴며 구해영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에 남상호가 "혹시 뭐 마음에 안드시는게 있으시면"이라고 말하자 구해영은 말을 끊으며 "그런 게 있을리가 있나"라며 "충동적으로 아무데나 들어가서 하는 결혼도 아니고 이것저것 제대로 따져서 하는 결혼인데 물론 남상호씨가 제대로 했다면 말이다"라며 빈정거렸다.

하지만 사실 구해영은 남상효를 만나기에 앞서 자신의 결혼소식을 듣게 될 남상효를 상상하며 "결혼하면 놀라긴 하겠지. 놀라면 완전 토끼눈일텐데"라며 남상효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암시하며 그의 도도함이 의도된 것을 의미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그간 보여왔던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와는 달리 '마스크'에서는 시크한 표정과 낮은 목소리로 나쁜 남자의 매력을 흠뻑리면서도 남상효 앞에서는 다소 푼수끼 있는 모습을 보이며 '이중매력'으로 여심을 사로잡을 것을 예고했다.

한편, '마이 시크릿 호텔'은 새 신랑과 예식 지배인으로 7년 만에 재회하게 된 전 부부 남상효(유인나 분)와 구해영(진이한 분)의 꼬일대로 꼬인 결혼식과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매주 월·화 오후 11 시에 방송된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3?svc=cafeapp>

[별별연기] '마스크' 진이한, '섹시 사포남' 연기로 여심 홀릭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배우 진이한의 과격적인 연기 변신이 여심을 들쭉시키고 있다.

진이한은 최근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극본 김도현, 연출 홍종찬)에서 재벌 2 세이자 재혼을 앞둔 이혼남 구해영 역을 맡아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까칠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의 '사포남' 연기에 여성 시청자들은 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앞서 진이한이 로맨틱 코미디물을 차기작으로 선택했을 당시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어느덧 데뷔 11년차를 맞은 베테랑 배우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 온 진이한이지만, 보다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된 '기황후'와 '닥터 진' 등의 작품에서 그가 보여준 이미지와 로맨틱 코미디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늘 명석하고 신념이 강하며 무게감 있는 연기를 소화해 온 덕에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하지만 막상 '마이 시크릿 호텔'의 첫 방송이 나간 후 진이한은 그의

차기작 선택이 ‘신의 한 수’와도 같은 결정이었음을 입증해냈다. 선불리 따라했다간 굴욕적인 흑역사로 남을 수 있는 ‘브로콜리 헤어스타일’마저도 깔끔하게 소화해낸 진이한은 이번 작품을 통해 뇌뿐만 아니라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에서 섹시미를 내뿜고 있다.

극중 구해영은 겉으로 보기엔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완벽한 남자다. 훗칠한 키와 우월한 외모에 재력까지 갖춘 데다 일을 할 땐 누구보다 철두철미하다.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여자가 “잘 생긴 것도 죄, 정장이 잘 어울리는 기력지도 죄, 부드러운 목소리도 죄”라며 칭찬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갈 법 하다.

하지만 그뿐이라면 그토록 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진 못했을 것이다. 구해영의 진짜 매력은 그런 완벽함 뒤에 숨겨진 ‘허당’ 기질에 있다. 아닌 척 하면서도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흐뭇해하는 모습, 전 부인 남상호(유인나) 앞에서는 ‘쿨’한 척 하지만 사실은 상호의 일거수일투족과 표정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 상호에게 강편치를 맞은 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도 혼자 남았을 땐 불을 부여잡고 울상을 짓는 모습까지. 까칠함과 인간미 넘치는 허술함을 동시에 지녔기에 구해영이란 인물이 더욱 섹시하게 느껴진다.

‘마이 시크릿 호텔’의 제작발표회 당시 진이한은 “너무 무거운 역할들만 하는 것 같아 편하고 가벼운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었다”고 출연 동기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진이한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고르고, 완벽한 역할 소화를 위해 끊임없이 캐릭터 연구에 몰두한다는 사실은 그의 과거 출연작들과 인터뷰들만 훑어봐도 알 수 있다. 구해영이란 인물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또한 그런 그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터.

‘마이 시크릿 호텔’의 출연진은 촬영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가 누구냐는 질문에 만장일치로 진이한을 꼽았다. 차갑고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진이한 자신도 스스로를 장난기 많고 유머러스한 남자라고 칭했다. 이와 같은 반전 매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진이한과 구해영은 닮아 있다. 비로소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었다는 기분까지 든다. 단 2회 만에 여심을 사로잡은 진이한이 남은 14회분에서 보여줄 연기가 기대되는 까닭이다.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2?svc=cafeapp>

[뉴스엔 박지련 기자]

진이한이 ‘마이 시크릿 호텔’로 한 번 더 일을 냈다.

진이한은 8월 19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2회(극본 김도현/연출 홍종찬)에서 허세 가득한 구해영으로 분해 물오른 로맨틱코미디 연기를 선보였다.

진이한이 ‘마이 시크릿 호텔’에서 맡은 구해영은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는 없는 것 같으면서도 허당기 다분한 남자. 다시 만난 전처 남상호(유인나 분)가 반갑고 그녀 행동에 일회일비하면서도 빼뚫어진 애정표현을 일삼고 있다. ‘마이 시크릿 호텔’ 구해영은 남상호에 대한 관심을 심술로, 설렘을 막말로 엇나가게 드러내고 있다.

때로 유치하기 짝이 없던 구해영임에도 그가 알밋지 않은 이유는 애써 감추는 순정 때문이다. 구해영은 두 번째 결혼 전날 밤에 재혼을 되돌리기 위해 남상호에게 달려갈 만큼 여전히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애꿎은 타이밍은 늘 구해영과 남상호 사이를 휘방 놓았다. 구해영은 달려간 곳에서 조성겸(남궁민 분)과 웃고 있던 남상호를 봤다. 남상호는 구해영의 진심을 오해한 끝에 배신감과 아픔에 사로잡혀 자리를 피했다. 남상호가 구해영이 오기 직전까지 구해영의 재혼 때문에 울었다는 사실을 결코 눈치 못챘다.

진이한은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구해영을 꽤나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처 남상호를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던 구해영이 이해되는 이유는, 진이한이 몸은 커도 마음은 덜 자란 남자의 서투른 사랑을 귀엽게 표현해준 덕분이다. 무엇보다 ‘마이 시크릿 호텔’ 2회 엔딩 무렵 남상호를 또 다시 오해하고 상처받은 구해영을 섬세하게 표현해주며 시청자들 감정이입을 배가시켰다.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남상호와 조성겸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고 눈동자에 물기까지 고였던 구해영의 아련함은 모성본능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이로써 진이한은 전작인 MBC ‘기황후’, MBC ‘개과천선’에 이어 tvN ‘마이 시크릿 호텔’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지적 매력과 냉철한 카리스마가 돋보였던 ‘기황후’ 탈탈이나 ‘개과천선’ 전지원과 다른 매력의 구해영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3연타 홈런을 쳤다. 영리하게 작품을 고르는 진이한의 선구안이 돋보였다.

한편 이날 ‘마이 시크릿 호텔’ 2회 말미에 다음 주 방영될 3회 예고편이

공개됐다. ‘마이 시크릿 호텔’ 3회 예고편에서 조성겸은 예식 책임자 남상호를 대신해 결국 망쳐버린 구해영의 두 번째 결혼식에 대해 사과했다. 구해영은 이런 조성겸의 태도에 오히려 심기 불편해져 “남상호 씨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는 말로 질투심을 드러냈다. (사진=tvN ‘마이 시크릿 호텔’ 2회 캡처)

<http://m.cafe.daum.net/2hanlove/Opn/558?svc=cafeapp>

[어저께 TV] ‘마시크’ 믿고 보는 진이한, 이쯤되면 여심사냥꾼

[OSEN=오민희 기자] 이쯤 되면 여심사냥꾼이다.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에 출연중인 배우 진이한이 달달한 로맨스 [연기](#)를 근사하게 소화하며 대한민국 여성의 마음을 흔들었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진이한은 까칠하면서도 로맨틱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며, 여성들의 판타지를 브라운관으로 옮겼다.

지난 7일 방송된 tvN ‘마시크’ 14 회에는 전처 남상호(유이나 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해영(진이한 분)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해영은 앞서 호텔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자신과의 동거를 선택한 상호 때문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상호를 껴안으며 그녀를 향한 애뜻한 마음을 드러내 보는 이들을 설레게 했다.

단 이들 동거에는 조건이 있었다. 해영이 상호에게 조성겸(남궁민 분)과 스킨십 금지, 야근 금지, 여보라고 부를 것 등의 유치한 조건을 덧붙인 것. 이에 상호 또한 유치한 조건을 앞세우며 해영과 티격태격 다뤄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해영은 잠든 상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사랑한다 남상호”라고 조심스럽게 고백, [이마](#)에 도둑 키스해 안방극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이후 해영은 그동안 상호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하기로 결심, 식사 준비를 시작으로 로맨틱한 면모를 마음껏 드러냈다. 상호를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해영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히지 않았다. 그러나 저녁 시간이 되어도 상호는 집에 오지 않았다. 해영이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상호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다는 간호사의 말만 들을 수 있었다.

이에 해영은 혼비백산해 응급실로 달려갔다. 해영의 얼굴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 그러나 응급실에 들어선 해영은 성겸의 곁에서 그를 걱정하는 상호를 보며 허탈해졌다. 상호에게 화내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검사결과까지 확인하겠다고 버티는 상호 때문에 해영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

결국 폭발한 해영은 상호에게 “네 진심은 뭐야. 지금 조성겸한테 가고 싶은 게 네 진심이야. 아니면 내가 붙잡을 때마다 붙잡혀줬던 게 진심이야”라고 따졌다. 이어 7년 전 자신과 함께 떠나지도 자신을 기다리지도 않았던 상호에게 “넌 날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젠 나도 지쳤어”라고 구슬프게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마이 시크릿 호텔'은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에서 새 신랑과 [예식](#) 지배인으로 7년만에 [재회](#)하게 된 전 부부 남상호(유인나 분)와 구해영(진이한 분)의 꼬일대로 꼬인 결혼식과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을 그린 16부작 킬링 로맨스물.

진이한은 구해영으로 분해 일에는 완벽함을 추구하면서도 사랑에는 한없이 로맨틱한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연기해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였다. 툭툭거리면서도 슬며시 짓는 부드러운 미소와 [연애](#)세포를 자극하는 애절한 눈빛연기가 압권. 전작 '애정만만세(2011)'를 시작으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진이한은 최근작 '기황후' '개과천선'에 이어 '마시크'에서도 제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어떤 역할을 맡겨도 믿음직한 배우임을 증명하고 있다.